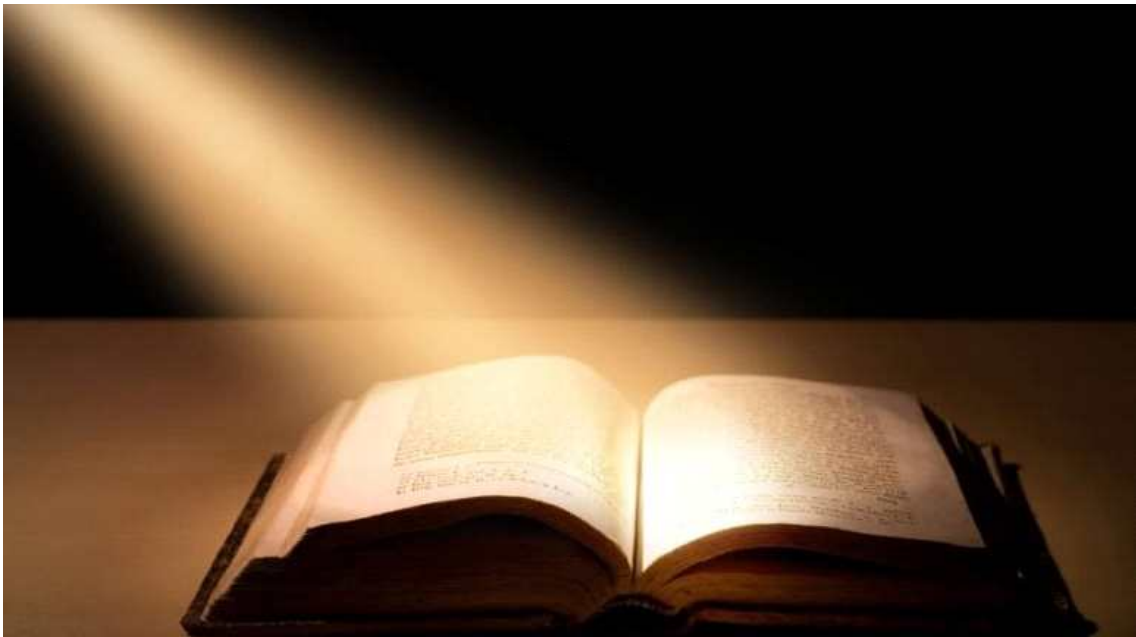


# 2021년 한국설교학회 & 한국예배학회 공동학술대회

주제: “뉴노멀 시대의 예배와 설교”



- \* 일시: 2021년 5월 1일(토) 10:00-13:00
- \* 장소: 설교자 하우스(경기도 수원 광교) / Zoom 온라인

\* 온라인 Zoom 주소

<https://us02web.zoom.us/j/9309414738?pwd=cHhyWmloTzRwNzIeZW9LdFZ4VWtmQT09>

아이디: 930 941 4738 / 암호: 1234

# 공 동 학 술 대 회 일 정 표

■ 2021년 5월 1일(토) 오전 10:00 ~ 오후 13:00

시간	순서	담당	소속	제목
10:00	개회사, 기도	최진봉 박사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한국예배학회 회장 한국설교학회 부회장	
10:00 ~ 10:10	성경봉독 설교, 축도	서동원 목사	은혜감리교회 담임목사 한국설교학회 회장 목원대학교 겸임교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다음세대 리더로 쓰실까요?” (단 6:1~28)
10:10 ~ 10:25	기조발언1, 2	주승중 박사	주안장로교회 위임목사 전 한국예배학회 회장	“뉴노멀 시대의 예배”
10:25 ~ 10:40		정창균 박사	전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전 한국설교학회 회장	“뉴노멀 시대의 설교”
10:40 ~ 11:00	<b>휴식 및 사진촬영</b>			
11:00 ~ 11:20	논문발표1	조지훈 박사	한세대학교 겸임교수 한국설교학회 서기	“뉴노멀 시대의 설교학적 교리 이해”
11:20 ~ 11:40		박종환 박사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전 한국예배학회 회장	“디지털 의례: 노마드 공간과 몸의 담론”
11:40 ~ 11:55	질의응답	류원렬 박사	평택대학교 피어선신학대학 원 교수 한국설교학회 부회장	
11:55 ~ 12:05	<b>휴식</b>			
12:05 ~ 12:25	논문발표2	주종훈 박사	총신대학교 교수 한국예배학회 회원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구축: 새로운 일상에서의 예배 실천을 위한 신학적 목회적 고찰”
12:25 ~ 12:45		이승진 박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한국설교학회 선임부회장	“뉴노멀 시대에 적절한 설교 사역에 관한 연구”
12:45 ~ 13:00	질의응답	나형석 박사	협성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전 한국예배학회 회장	

\* 온라인 Zoom 주소

<https://us02web.zoom.us/j/9309414738?pwd=cHhyWmloTzRwNzIeZW9LdFZ4VWtmQT09>  
아이디: 930 941 4738 / 암호: 1234

2021년 한국설교학회 & 한국예배학회 공동학술대회

주제: “뉴노멀 시대의 예배와 설교”

■ 개회사-기도

최진봉 박사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한국예배학회 회장, 한국설교학회 부회장)

■ 성경봉독-설교-축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다음세대 리더로 쓰실까요?” (단 6:1~28) ..... 1

서동원 목사

(은혜감리교회 담임목사, 한국설교학회 회장, 목원대학교 겸임교수)

■ 기초발언 1: “뉴노멀 시대의 예배” ..... 2

주승중 박사

(주안장로교회 위임목사, 전 한국예배학회 회장)

■ 기초발언 2: “뉴노멀 시대의 설교” ..... 3

정창균 박사

(전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전 한국설교학회 회장)

■ 논문발표1:

▶ 발제 1: “뉴노멀 시대의 설교학적 교리 이해” ..... 12

조지훈 박사

(한세대학교 겸임교수, 한국설교학회 서기)

▶ 발제 2: “디지털 의례: 노마드 공간과 몸의 담론” ..... 31

박종환 박사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전 한국예배학회 회장)

▶ 질의응답(좌장1): ..... 47

류원렬 박사

(평택대학교 피어선신학대학원 교수, 한국설교학회 부회장)

■ 논문발표2:

▶ 발제자1: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구축:  
새로운 일상에서의 예배 실천을 위한 신학적 목회적 고찰” ..... 48

주종훈 박사

(총신대학교 교수, 한국예배학회 회원)

▶ 발제자2: “뉴노멀 시대에 적실한 설교 사역에 관한 연구” ..... 65

이승진 박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한국설교학회 선임부회장)

▶ 질의응답(좌장2): ..... 80

나형석 박사

(협성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전 한국예배학회 회장)

##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다음세대 리더로 쓰실까요?” (단 6:1~28)

서동원 목사 (은혜감리교회 담임목사, 한국설교학회 회장)

### 서 론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이 준비한 리더가 있었던 것을 아십니까?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자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졌고, 모든 사람들이 동독을 탈출 할 때 반대로 서독에서 동독으로 핏덩이 자녀를 안고 넘어간 개신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지나 서독과 동독이 통일이 된 후 남북을 어우르는 사람으로 메르켈이는 사림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총리가 바로 개신교 목사님이 안고 갔던 핏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통일 이전에 리더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다음세대 리더로 쓰실까요?**”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 본 론

첫째로, **차세대 리더는 어떤 지성을 겸비해야 할까요?(단 6:3)**

**단 6:3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다리오 왕은 자기의 뜻대로 고관 백이십 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고, 다니엘이 그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단 1:3-5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히브리어, 바벨로니아어,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배워 자기 분야에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말하기를 “**세상의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소수의 사람들의 신념과 용기에 의해 만들어 진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확장은 비전과 지성을 겸비한 창조적 소수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는 차세대 리더는 탁월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쓰십니다.

둘째로, **차세대 리더는 어떤 윤리성을 겸비해야 할까요?(단 6:4)**

**단 6:4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탁월한 지성을 겸비하였을 뿐 아니라, 흠잡을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 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지식 교육은 탁월하게 시키지만, 윤리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교육은 시키지 못합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모든 리더들을 보면, 지성은 탁월하나 윤리성은 엉망이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차세대 리더는 다니엘처럼 그릇됨과 허물이 없이 완벽한 윤리성의 사람입니다.**

셋째로, **차세대 리더는 어떤 영성을 겸비해야 할까요?(단 6:10)**

**단 6:10 말씀을 보면**, 차세대 리더는 지성과 윤리성을 겸비할 뿐 아니라, 어려움을 헤쳐 나아갈 능력을 겸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니엘은 하루 세 번씩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는 차세대 리더는 난제를 풀어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영성의 사람입니다.

### 결 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다음세대 리더로 쓰실까요?** 첫째로,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고, 둘째로, 흠잡을 곳이 없는 윤리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리더가 되어야 하고, 셋째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영성의 리더를 들어 쓰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차세대 리더는 **지성, 윤리성(도덕성), 영성**을 겸비한 사람입니다.





## ■ 기조발언 2

### “뉴-노멀(New-Normal) 시대의 설교”

정창균 박사

(전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전 한국설교학회 회장)

#### 1. 닥쳐온 뉴-노멀(New-Normal) 시대

#####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 팬데믹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화하면서 전 세계가 동시에, 동일한 문제로, 동일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 현상에 대한 표현도 다양하다. 어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폭발적 감염 현상에 주목하여 **팬데믹 시대**라 부른다. 접촉(contact)이 단절된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언택트(Untact) 시대**라 부르기도 하고, 혹은 **초연결 시대**라 부르기도 한다. **넥스트 노멀(Next Normal) 시대**라고 부르는 이도 있다. 어떤 학자는 **신인류 시대**라는 말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도래할 미래 시대의 혁명적 변화를 지칭하기도 한다. 일부 학자들은 이번 사태로 문명사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단언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초래한 핵심 문제는 세 가지 관점에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의 일상생활에 초래한 삶의 방식을 현상학적인 관점에서 규명하는 것과 둘째, 그러한 현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 자신에게 야기하는 본질적 문제를 규명하는 것 셋째,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현실이 우리의 예배 혹은 설교에 제시하는 현상학적 요구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야기하는 본질 문제에 어떤 내용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강구하는 것이 이 시대 교회와 목회자가 걸머져야 할 책임이다.

##### 1) 비정상적인 현상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개인은 물론 사회, 국가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현상을 초래하였다. 그동안 정상적, 일상적, 전형적, 관행적이던 것들이 모두 파괴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금지되어서 전혀 작동하지 않는 **비정상(Ab-Normal) 상태**가 매일의 현실이 되고 있다.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악수 정도가 아니라 서로 껴안고 기뻐하는 것이 정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절대 금지이다. 마스크로 얼굴의 반 이상을 가리고 멀리 떨어져야 한다. 그것은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너와 나 그리고 이 사회의 생명을 지키는 생존 문제가 되었다. 그리운 사람은 수시로 식사에 초대하여 밥을 같이 먹으며 정다운 대화를 나누는 것은 도리요 기쁨이요 살아가는 보람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접하는 자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다. 초대하는 것은 그의 생명이 위협받는 현장으로 불러내는 무분별처럼 여겨진다. 불과 일 년 전만 하여도 한여름에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모두가 이상한 사람 보듯 쳐다보았다. 그러나 지금은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으면 모두가 그 사람을 제 정신이 아닌 사람 보듯 쏘아보는 눈초리로 쳐다본다. 요양원에서 어머니가 운명하고 있는데, 달려온 아들은 들어가 엄마를 부를 수도 없고 홀로 죽어가는 엄마를 창밖에서 우두커니 들여다보고만 있어야 한다. 일천 명이 모여 예배드리던 예배당에는 선착순 신청자 200명만 덩그러니 앉아야 한다. 6명씩 12명이 앉던 의자 두 줄에는 단 세 명만 앉을 수 있다. 그것이 주일 예배당의 당연한 일상이 되고 있다. 우리에게는 매우 낯설고 비정상적인 현상들이다.

## 2) 비정상적 일상화 - 뉴-노멀(New-Normal) 시대

이러한 비정상이 잠시만 참고 버티면 다시 이전의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데 더 큰 무서움이 있다. 비정상이 종착점을 확인할 수 없이 지속되고 있다. 시한을 확정할 수 없이 비정상적 현상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당국자들도, 과학자들도, 의료인 단체도, 언제 이 현상이 종결될지, 언제 백신이 만들어질지, 만들어지는 백신의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얼마동안이나 유효할지, 그 어느 것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다. 특히 조심해야 하고 철저하게 방역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할 수 있는 말 전부일 뿐이다. 미국 감염병 학회의 전염병 관련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앤서니 파우치는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이 2020년 말쯤 개발된다고 하여도 자유로운 일상의 활동은 2021년 말이나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막연한 짐작을 할 뿐이다.

그 어간에 낯설고 불편하던 비정상이 점점 익숙한 일상이 되면서, 비정상이 이제는 정상(Normal)이 되고 있다. 닥쳐온 **비정상(Ab-Normal)**이 점점 **새로운 정상(New-Normal)**이 되어버렸다. 나는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 지금부터 시작되는 시대를 **뉴-노멀(New-Normal) 시대**라고 지칭한 것이다. 이어지는 시대를 어떻게 지칭하든지 그 내용과 본질은 같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몰고 온 현재의 현상은 모든 방면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는 인식이다. 잠시 버티고 참아내면 지금까지 살아온 익숙한 시대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는 거의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지금부터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 많은 학자는 이번 사태로 문명사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장담한다. 어떤 학자는 **신인류 시대**라는 말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도래할 미래 시대의 혁명적 변화를 지칭하기도 한다.

## 3) 팬데믹의 후유증 - 멘탈데믹(Mental-Demic)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비정상적인 현상들은 필연적으로 사회 심리적 병리 현상들을 초래한다. 팬데믹이 가져온 외상증후군인 썸이다. 절망감, 좌절감, 무력감, 고립감, 유기감, 상실감, 불안감, 두려움, 자포자기, 자기중심성, 외로움, 우울증, 이유를 모를 분통, 통제할 수 없는 분노 등등이다. 이것은 다름 아닌 심리적 공황상태이다. 코로나 블루(blue)라는 말로 집약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점점 더 깊어지고 보편화되어 전반적인 삶의 풍토가 되면 이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사실 사회심리 혹은 경제나 경영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이미 정신을 뜻하는 멘탈(mental)과 감염병의 광범위한 확산을 의미하는 팬데믹(pandemic)을 조합하여 **멘탈데믹(mentaldemic)**이라는 신조어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닥쳐올 사회적 심리 현상을 예측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멘탈데믹 현상은 잠시만 참고 버티면 사라져 다시 이전의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코로나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큰 무서움이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머지않아 퇴치될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이 사회에 몰고 온 심리적 병리 현상은 계속 살아남아 우리의 생활 전반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 사회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풍토가 되고, 문화가 될 것이다. 사실, 앞에서 열거한 다양한 심리적 병리 현상은 언제나 어느 사회에나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러한 현상이 개인의 문제나 불우한 몇몇 사람들의 직업적인 문제였다. 혹은 어느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문제이며, 그 책임은 각 개인의 문제로 다루어졌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서 잠잠해지고 일상은 다시 평상의 삶으로 되돌아가곤 하



였다. 사회 전반에 걸친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현상은 아니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조성되는 뉴-노멀 시대의 멘탈데믹 현상은 그 문제들이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한 사회의 삶의 방식이 될 것이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과 사회적 두려움이 있다. 그것은 마치 이 사회의 풍토병처럼 자리를 잡을 염려도 있다. 이것은 앞으로 코로나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이 사회의 바이러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

#### 4) 직면하는 문제의 본질 - 비인간화

팬데믹으로 불리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동원된 모든 지침이나 처신의 핵심은 한 마디로 **거리두기**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을 최대한 끊고 사는 것이다. 거리두기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 모든 방역지침을 충실하게 지키다 보면 우리는 결국 비인간화된 여건 속에 던져진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떨어져 있어야 하고, 만나지 않아야 하고, 혼자 있어야 하고, 식탁에서 대화하지 않아야 하고, 서로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아야 하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지 않아야 하고, 수업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모니터를 통하여 진행해야 하고, 여섯 살 꼬마는 어린이집에서 친구에게 감염당할 위험 없이 안전하게 혼자 놀기 위하여 함께 놀 인형을 필수적으로 지참하고 등원해야 한다. 인간이 인간 없이 살아야 한다. 현실의 삶이 사람 사는 것 같지 않다는 경험적 감성적 확인이다. 생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한 강력한 방역지침이 급기야 초래한 심리적, 정신적 공황 상태인 멘탈데믹의 본질도 사실은 “사람 같지 않음”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음”의 확인과 감정이다. 멘탈데믹 상황을 살아내는 동안 우리가 경험하는 핵심 정서도 결국 비인간화의 문제인 셈이다.

뉴-노멀 시대의 목회자는 현장에서 직면해야 하는 대상인 교인들과 그들이 처한 사회적 상황의 근본적이고 공통적인 문제가 바로 비인간화되어버린 상태로부터 겪는 공황 상태요 고통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멘탈데믹의 사회 심리적 병리 현상에 대한 대응책의 개발도 어떻게 하면 인간화를 성취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런 점에 주목한다면 앞으로 목회나 설교의 중요한 흐름은 공감과 공흥이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미래사회의 인간은 공감형 인간이어야 하며, 미래의 시대는 공감형 지도자를 절대적으로 요구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소외되고 비인간화 된 사회 풍토 속에서 살아야 하는 교인들에게 목회자는 무엇보다도 공감형 목회자이어야 한다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리고 교인들 사이에도 서로 공감과 공흥의 삶이 보편화되어 서로서로 사는 보람과 의미와 소망이 되어줌으로써 비인간화의 현상을 극복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목회 현장에서 교인들을 대할 때 무엇보다도 공감형 목회자가 되는 일로부터 목회 사역이 시작되어야 한다. 목회자는 말씀 목회 전문가임과 동시에 공감형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말씀의 사람임과 동시에 공감의 사람이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보다도 본인이 먼저 인간적이어야 하고, 인간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 공감은 공흥로 이어진다. 공감은 동일화의 감정이라면 공흥은 자기를 희생하여 상대방의 존재와 삶을 채워주는 나눔이다. 뉴 노멀 시대의 목회자는 자신이 공감과 공흥의 사람이어야 할 뿐 아니라, 목회의 방침과 교회의 분위기를 그렇게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서로서로 공감과 공흥의 사람으로 살도록 이끄는 전문가이어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넘어 교회와 교회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는 공교회로서 교회 이해가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 2. 뉴-노멀(New-Normal) 시대의 목회

### 뉴-노멀 시대가 교회와 목회에 던지는 궁극적 요구

뉴-노멀 시대가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내놓는 핵심적인 요구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본질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체적인 실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는 이제 말씀의 시대 곧 설교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방향을 바꾸고 판을 새로 짜시겠다는 시대적 징조를 알아차리고 하나님이 짜시는 새로운 판에 맞게 모든 면에서 혁신을 이루라는 요구이다. 과거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에 대한 대비와 적응이 필연적인 시대가 열리고 있다. “어게인(Again)”이 아니라, “리셋(Reset)”이다.

### 1) 뉴-노멀 시대의 소명

#### (1) 뉴-노멀 시대의 생존을 위한 IMS 3종 백신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유발된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각각 세 종류의 능력을 갖추어야만 한다. 뉴-노멀 시대의 생존 백신인 셈이다.

#### (a) Immunity(면역력)

바이러스의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적 방역과 함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의 면역력(Immunity)이다.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한 사람은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옆 사람은 음성 판정을 받는다. 어느 지역이 모두 안전하거나 모두 위험한 것이 아니다. 각 개인의 면역력이 관건이다. 그러므로 팬데믹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각 개인이 스스로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 이것은 각 개인의 생물학적 능력이다. 면역력이 없으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동하지 말고 한 곳에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정상적인 생활에 치명적인 장애를 겪게 된다. 고용량 비타민 치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비타민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것도 개인의 면역력 증강에 관한 관심에서 일어난 결과이다.

#### (b) Mentality(정신력)

코로나 사태가 초래한 전사회적, 전국민적 심리적 공황 상태인 멘탈데믹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신력이다. 멘탈데믹의 뉴-노멀 시대에는 면역력을 갖추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다고 하여 삶의 안전과 평안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이 만들어지고 바이러스를 퇴치한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다른 차원에서 오히려 더 불안하고 위험한 삶의 상황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멘탈데믹의 상황에서는 어떤 심리적 병리 현상에서도 그 영향에 사로잡혀 넘어지지 않을 정신력(Mentality)을 갖추어야 한다. 팬데믹에서는 바이러스 방역과 바이러스 백신이 필요했다면, 멘탈데믹에서는 심리방역과 정신력 백신이 필요하다. 사실 경제 산업 상업 심리 등 사회의 각 분야에서 이미 이 문제를 인식하고 다양한 방식의 대비책을 내놓고 있다. 명상앱이나 정신건강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이 활발하게 개발뿐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주는 자연의 소리나 음악 등을 조합하여 제공하는 소위 사운드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모두 정신 심리적 공황상태에서 벗어나거나, 그 상태를 잊거나, 빠져들지 않기 위한 심리적 장치들이라고 할 수 있다.

### (c) Spirituality(영력)

그러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면역력으로 이기고, 멘탈데믹을 정신력으로 극복하였다 하여 인간으로서 삶의 문제가 다 극복되는 것은 아니다. 건강한 체력과 불굴의 정신력만 갖추면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생물학적 생명이 보존되고, 정신적 평안이 확보되면 아무런 고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사는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누릴 수 있고, 미래와 영원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인간다움을 넘어 영적인 차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영력(Spirituality)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영적인 존재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가치관과 소망을 소유해야 한다. 사도 바울이 괴로움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죽음을 놓고도 오히려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에 근거한 자기 인식에서 온 영적 능력이었다. 영력은 달리 말하면 제대로 된 신앙에서 얻는 능력이다. 이것은 신앙인, 교회와 목회자의 전문분야이다. 여기에 교회와 신앙이 감당하고 기여할 역할의 틈새가 있다.

멘탈데믹 상황에서 영력을 기르는 우선적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친근감을 확인하고 경험하고 의존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수행될 수 있다. 이것은 예수님의 방법이기도 하다. 예수님이 고별 설교에서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마디는 결국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과의 동행을 믿고 확인하고 붙잡으라는 것이었다. 고별설교 마지막 마디에 예수님 자신의 경우를 토로하면서 보여주신 것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확인하고 누리면서 자신이 당한 버려짐과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였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요 14:1). 그 믿음의 핵심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믿고 확인하고 붙잡으라는 뜻을 확인시켜주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2-3). 그리고 고별 설교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음을 스스로 보여주셨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2-33).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개발은 과학자와 의료인들의 책임이지만, 사회적 병리 현상(팬데믹)의 백신으로서 영력의 개발은 우리 신학자와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의 몫이 더 크다. 신학자와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이 멘탈데믹이 구체적 사건으로 실현되기 전에 이 문제를 다루는 방안을 모색해내지 않으면 이 사회는 무섭고 매정하고 철저하게 비인간화된 병든 세상으로 변해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 (2) 설교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한국교회는 이제 설교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한국교회는 이미 이중적으로 말씀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부흥기가 지나고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는 사실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그것이다. 교회가 부흥기를 지나 쇠퇴기에 이르면 성도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욕구를 발산하게 된다. 한국교회는 이미 그 상황에 들어와 있다. 뿐만 아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교회 안에 만든 새로운 판짜기의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을 말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요구이다. 지난 세월 동안 효과적이고 특화되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실질적 기능을 수행해온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거의 무력화 되고 오직 예배 하나만 살아남은 것 같은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이나 모임이 무력화 되어버린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마스크를 쓰고 주일 강단 아래로 성도들이 모이고 있다. 평소에 드린 예배와는 생소하고 어색하기만 한데도 주일 그 시간이면 가족이 모니터 주위에 둘러앉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많은 신자들이 인터넷 설교를 찾아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의 설교를 기웃거리며 방황하고 있다. 이유는 한 가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다. 각양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기능적 프로그램이나 실용적 행사 대신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놓으라는 요구 앞에 목회자들이 서 있다. 이제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달라는 요구이다. 뉴노멀 시대의 설교를 위한 청중 이해의 요체는 “저들은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라는 전제이다. 이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설교자는 성도들에게 거부당하게 될 것이다. 아래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온라인 예배(설교)를 고도의 기술력 과시와 세련미 넘치는 디자인에 치중하지 말고 내용을 어떻게 충실한 말씀으로 채울 것인가에 몰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3. 뉴-노멀 시대의 목회와 설교

목회를 수행하는 결정적인 방편이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뉴-노멀 시대의 목회는 **말씀목회**이다. 그러므로 뉴-노멀 시대의 목회자는 **말씀목회 전문가**가 되어야만 한다.

1) 언택트로 특징 지어지는 뉴 노멀시대의 살길은 하나님과 온택트에 있다. 뉴 노멀시대는 언택트 세상을 초래하였지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과 온택트를 촉발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이제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한다. 그 말은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온택트이다. 이런 점에서 뉴-노멀 시대의 목회는 이제 주특기 목회가 아니라 말씀 목회의 시대다. 뉴노멀시대의 목회자는 무엇보다도 말씀 목회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2) 뉴-노멀 시대의 목회자는 말씀 사역이라는 한 가지 방면을 전문적이고 집중력 있게 수행해야 한다. 말씀을 어떻게 상황에 따라, 대상에 따라, 여건에 따라 최적의 맞춤 설교로 수행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수행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몰입해야 한다. 지금까지 목회자의 중요한 기능은 효과적이고 흡인력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회 안에서 운영하는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획력, 프로그램 운용 능력, 다재다능한 재능, 팔방미인 등이 능력 있는 목회자상(像) 이었다. 그러나 뉴 노멀 시대의 목회자는 한 가지 일, 곧 말씀 사역(설교사역)에서 교인들에게 특별한 인정과 신뢰를 받는 전문가여야 한다. 제대로 된 신자를 길러내기 위한 효과적인 말씀 사역의 틈새를 발굴해 내는 일에 몰입해야 한다.

3) 강단에서 행하거나 그룹에서 가르치는 자기 자신의 설교만이 아니라, 말씀의 일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목회방침과 말씀이 최우선인 교회 분위기 조성<sup>1)</sup>과 교회 체질을 개발해야 한다. 실례하나를 들어보고자 한다. 작은 규모의 세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경시대회 성경읽기가 흑시참고가 될 듯하여 이곳에 공개한다. 이 프로그램은 성도들이 성경 전체를 읽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가 장로님 한 분의 지원을 받아 행하고 있다. 11개월 동안 신약성경 전체를 읽도록 월별로 범위가 정해진 일정표에 따라 성경을 읽고 월말에 성경경시대회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먼저 교인들을 설득하여 교회의 성경경시대회 참가 신청을 받아 그룹을 형성한다. 경시대회 문제는 주로 성경구절 괄호 넣기 방식으로 출제하여 최대한 여러 번 주어진 성경을 읽도록 유도한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관심 있는 사람은 주어진 범위를 10-20회 이상 읽게 된다. 그리고 담임 목사는 해당 월에 주어진 성경책을 본문 삼아 4회에 걸쳐 주일 오후 예배 등에 전 교인에게 설교를 하여 그 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참가자를 격려하고, 교회 전체에 성경읽기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경시대회 결과에 따라 상금 등 시상을 하여 격려한다. 신약 읽기가 끝나면 25개월에 걸친 구약 읽기 경시대회 일정이 짜여져 있어서 성경 읽기 경시대회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

담임목사가 인도하는 성경사경회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우선 그동안 진행해 왔던 특별기도회나 특별집회 등 다양한 이벤트성 행사들을 성경사경회로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저명한 강사를 초청하여 사경회를 진행하지 않고 담임목회자가 직접 인도한다. 성도들은 외부에서 온 소님 강사에게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고, 담임 목사는 강사 접대와 교인 동원에 전념하는 것은 좋지 않다. 교인들이 은혜를 받도록 한 강사는 집회 끝나고 돌아가 버리고, 목회는 여전히 담임목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효과적이지도 않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설교의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담임목사가 성경사경회까지 인도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담임목사들이 그룹을 지어 한 책을 정하여 함께 연구하며 설교준비를 한 다음 각 교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각각 적합한 시기를 정하여 사경회를 열 수도 있다. 담임목사가 직접 인도한다는 점에서 교인들 사이에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다. 사실, 설교자하우스에서 성경사경회를 직접 인도하고자 하는 담임목회자들을 위하여 성경사경회를 함께 준비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기도 하다.

#### 4. 뉴-노멀 시대의 온라인 설교

##### 1) 피할 수 없는 현실

온라인 예배는 예배 여건에 있어서 뉴 노멀로 정착하고 있다. 수많은 교회들에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예배의 한 방식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온라인 예배는 정당한가 아닌가,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론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현실 상황에 적실하게 효과적으로 잘 드릴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되고 있다. 이 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기회와 창의적 변신의 틈새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내놓은 온라인 예배라는 해결책이 유발하는 또 다른 문제는 그 문제의 해결책을 다시 찾아나서는 것으로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 2) 온라인 설교의 방식에 대한 제안

대면 예배의 현장 설교와 비대면 예배의 온라인 설교는 같은 예배라는 본질적인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대상이나 환경이나 상황 등에서 전혀 다른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도 안된다. 앞으로는 목회자들의 호불호와 상관없이 온라인 예배는 예배의 독자적인 한 형태로 정착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온라인 설교를 수행하는 목회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1) 온라인 설교를 고도의 기술 구현과 세련되고 멋있는 디자인 구성에 치중함으로써 예배나 설교 영상의 작품성을 성취하려는 시도는 지혜롭지 못하다. 대형 회사의 영상 제작 전문가들의 불만을 전해 들은 적이 있다. 영상의 형식이나 방식이 아니라 내용에 힘써달라는 것이었다. 현장 설교든 온라인 설교든 설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내용, 곧 말씀을 어떻게 펼쳐낼 것인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교인들은 멋진 영상 작품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2) 온라인 설교에서 설교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설교 시간이다. 온라인 설교는 현장 설교보다 시간을 훨씬 더 짧게 해야 한다. 온라인 예배에서는 설교에 싫증을 느낀 청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떠나지 않을 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의식해야 한다. 실제로 온라인 설교 접속자들의 평균 접속유지 시간이 10분 이내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다. 상황과 설교자의 역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온라인 설교는 20분 정도가 좋겠다는 것이 경험과 관찰에서 온 필자의 개인적인 판단이다.

(3) 온라인 설교는 그 본질이 영상설교이므로 회중 접근방식이 달라야 한다. 온라인 설교에서는 시종일관 메신저 중심의 화면 구성으로 진행되는 것이 덜 효과적일 수 있다. 온라인 설교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모니터 화면이 전부이므로 당연히 미디어 중심일 수밖에 없다. 메신저(설교자) 화면, 텍스트 화면, 이미지 화면을 효과 있게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 설교가 현장 설교와는 별도로 기획되고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 3) 온라인 설교의 내용/주제에 대한 제안

(1) 앞에서 뉴 노멀시대에는 교인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싶은 욕구가 발산하면서 말씀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설교는 그 내용과 주제가 본문 말씀에 집착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동안 한국교회 설교는 본문 이탈 현상이 강했다는 비판을 감안한다면 뉴 노멀 시대의 설교야말로 본문 말씀에 집착하는 설교이어야 한다.

(2)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모든 현상의 본질은 비인간화, 곧 인간이 인간다움을 느낄 수 없고, 누릴 수 없다는 문제이며, 동시에 멘탈데믹이라 불리는 심리적 공황 상태를 경험하며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온라인 설교에서도 이 문제에 대응하는 내용과 주제를 지속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과 친밀감과 동행을 확인하고 경험하고 의존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설교, 공감과 긍휼을 누리고 실천하도록 이끄는 설교,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정체성과 구원, 믿음, 소망, 영광, 능력 등등의 성경적 본질을 밝혀주는 본질 설교 등은 이 시대 설교의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온라인 설교 예배자들은 이동이 자유롭고 심하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설교를 찾아올 수 있도록 잘 기획된 시리즈 설교는 지속적인 설교를 지속적으로 듣게 하는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 나가는 말

한국교회는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사실이 한국교회는 망하거나 끝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국교회는 드디어 본질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절호의 기회를 부여받고 있다.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신자가 신자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절호의 기회에 직면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의 근거와 기준은 말씀이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고 한국교회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계신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가장 강력한 기회는 목회자의 설교이다. 이 점에서 이제 설교자들은 어느 시대의 목회자 못지않게 놀라운 기회와 두려운 책임을 동시에 걸머지고 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짜놓으시는 새로운 판에 걸맞게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여 멋진 변화의 터전을 마련할 기회를 맞고 있고, 이 기회를 붙잡을 결정적인 위치에 우리 설교자들이 서 있다.

## ■ 논문발표1

### ▶ 발제 1:

#### “뉴노멀 시대의 설교학적 교리 이해”

조지훈 박사

(한세대학교 겸임교수, 한국설교학회 서기)

### I. 들어가는 말

2020년 초 전 세계에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해 우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 속에 살고 있다. 바이러스가 초래한 가장 큰 변화는 비대면의 일상화이다.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와 같은 모습은 이런 일상화의 단면들이다. 이에 더해 예배 인원과 대면 예배의 축소, 온라인 예배와 설교, 교회 내 활동의 축소 등은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맞이한 일상화의 모습들이다. 뉴노멀(new-normal) 시대가 온 것이다.

알리스터 맥그래스(Alister McGrath)는 신학의 임무 중 하나를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것이라고 정의했다.<sup>1)</sup> 신학은 새롭게 변화된 현실에 대해 통찰하고 그 통찰을 근거로 새로운 대안들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뉴노멀 시대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신학적 통찰이다. 코로나-19가 갖는 신학적 의미는 무엇이며, 변화된 현실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신학적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신학의 임무일 것이다. 이런 신학적 통찰은 설교학 분야에서 더욱 요구된다. 설교는 신학의 발현이며 청중의 삶으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설교학 분야에서도 다양한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 논문들을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자의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설교에 대해 논하면서 정인교는 3가지 설교학적 대안을 제시한다.<sup>2)</sup> 첫째, 개별화와 연대라는 측면에서 설교자 개개인이 설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동시에 교단 차원의 연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인교는 설교자의 개개인이 영성개발, 말씀 묵상, 독서 등을 통해 설교 경쟁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둘째, 온라인 설교의 대상 확대이다. 온라인 예배의 대상에 신자뿐만 아니라 비신자까지 포함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민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교자는 감염병으로 인해 사람들이 갖게 되는 불안감과 공포 등을 신학적으로 고찰해야 하고 이를 근거로 설교의 주제를 특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야기 설교, 특수 설교 등을 통해 다양한 설교 형태와 전달체계의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오현철은 뉴노멀 시대에 설교자가 어떻게 미디어를 지혜롭게 사용해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찰한다.<sup>3)</sup> 오현철의 연구에서 주목할 것은 뉴노멀 시대를 맞아 예배와 설교에 대한 신학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안한 점이다. 그는 뉴노멀 시대의 예배는 장소 중심의 예배에서 인격이신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공동체의 예배가 아니라 개인이 드리는 예배로, 대면

1) Alister McGrath,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 6<sup>th</sup> ed. (Oxford: Wiley Blackwell, 2017), 85.

2) 정인교, “POST-COVID 시대의 설교”, 『신학과 실천』 vol. 71 (2020): 154-170.

3) 오현철, “뉴노멀 시대 설교의 변화”, 『복음과 실천신학』 vol. 57 (2020): 117-144.



예배에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비대면, 소수, 개인과의 소통이 중요해진 뉴노멀 시대에 설교자들은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작은 일부터 실천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소규모 교회 간의 연합과 연대를 추구하는 설교 활동을 해야 하며, 신앙과 목회의 토대가 믿음인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현철의 주장의 핵심은 뉴노멀 시대에 설교자들은 새로운 무엇이 아니라 이미 기독교 내에 존재하던,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것들을 다시 점검하고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다.<sup>4)</sup>

박현신은 코로나-19 이후 급속도로 진행되리라 예상되는 인공지능 혁명 (Artificial Intelligence Revolution, AIR)에 대한 교회의 대응 방안에 대해 고찰한다.<sup>5)</sup> AIR에 대한 의미와 그 전망에 대해 고찰한 후 그는 설교자들이 AI에 대해 신학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한다. 그는 변화된 환경에 응전하기 위해 설교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기독교 교리와 신학에 대한 재고라고 주장한다. 그는 “AIR이 가져올 사회 전반에 걸친 이슈들에 성경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설교의 전방위적 적용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하며 “특히 설교자들은 성경적 주해에 기초한 교리적 적용(doctrinal application)을 AI 이슈들에 적실하게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다.<sup>6)</sup> 박현식 역시 새로운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 마련을 위해 기독교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sup>7)</sup>

이성민 역시 AI 시대의 예배와 설교의 문제를 고찰한다.<sup>8)</sup> 그는 “인공지능은 각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현 추세라면 인간의 삶에 더 깊숙이 들어와 실질적인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sup>9)</sup>라고 예상하면서도 “방대한 경험의 축적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인공지능은 땅에서는 완전한 것으로 추앙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피조물’의 영역에 속하여 있다.”<sup>10)</sup>라고 AI의 한계를 분명히 한다. 그리고 AI 시대에 교회의 예배와 설교가 나아가 갈 방향으로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교회는 예배와 설교의 본질적인 목적, 곧 “예배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신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고 “설교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공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라는 목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둘째, 교회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닌 문화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적절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교회는 적극적인 방식을 통해 성도들을 섬기고 양육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복음에 대한 확신과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어야 하고 “한 영혼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기도와 섬김”이 필요하다.<sup>11)</sup> 또한, 이성민은 설교자들이 AI의 도움을 받아 신학 정보를 검색하고, 주석을 보고, 신학 공부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와 말씀의 보혜사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듣고 정리”하는 능력이 설교자들에게 요구된다고 강조한다.<sup>12)</sup>

조광현은 “과연 영상이 설교를 전달하는 데 무결한 매체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다.<sup>13)</sup>

4) *Ibid.*, 140.

5) 박현신, “인공지능 혁명(AIR)에 대한 교회의 대응에 관한 연구: 설교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신학」, vol. 57 (2020): 82-116.

6) *Ibid.*, 104.

7) *Ibid.*, 108.

8) 이성민, “인공지능 시대의 예배와 설교”, 「신학과 세계」 vol. 99 (2020. 12): 251-283.

9) *Ibid.*, 256.

10) *Ibid.*, 264.

11) *Ibid.*, 273-274.

12) *Ibid.*, 277.

13) 조광현, “코로나 시대, 영상 설교에 대한 설교학적 고찰”, 「복음과 실천신학」 vol. 57 (2020):

그는 한국교회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영상설교의 실태를 살펴본 뒤 설교학적 관점에서 영상설교가 가진 한계를 지적한다. 특히 영상설교를 통해 청중이 적극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수동적인 관중으로 전락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설교에 있어서 의사소통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을 수도 있다는 귀한 설교학적 통찰을 제공한다.<sup>14)</sup> 조광현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논문을 마친다. 첫째, 설교자는 영상설교가 지닌 한계를 교인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하며, 둘째, 설교뿐만 아니라 예배 전체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교인들이 예배 전체의 맥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며, 셋째, 예배 자세와 환경에 대한 지침을 교인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설교에 대한 그들의 집중도를 높이도록 하며, 넷째, 녹화된 영상을 지양하고 실시간 영상설교를 추구하며, 다섯째, 교인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설교를 행해야 하며, 여섯째, 성경봉독과 같은 순서를 교인들에게 말김으로써 영상설교에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일곱째, 영상설교의 내용을 가정 예배 혹은 소그룹 모임에서 활용하도록 해서 교인들의 일상의 삶과 주일의 괴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sup>15)</sup>

손동식 역시 코로나-19 시대에 효과적인 온라인 설교 방안을 제시한다.<sup>16)</sup> 그의 제안 역시 위에서 살펴본 조광현의 제안과 많은 부분 일치한다. 첫째, 그는 영상설교는 현장예배와 달리 설교의 서론에 해당하는 찬송과 성경봉독, 기도 등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예배의 역동적인 장면이나 예배의 분위기를 잘 반영하는 화면 혹은 적절한 배경음악을 삽입함으로써 회중이 설교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제안한다. 둘째, 온라인 예배의 설교 서론은 현장예배 때보다 더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기존 신자뿐만 아니라 비신자들도 설교의 청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귀납적 설교를 하고, 청중들과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권위적인 접근보다는 권위 없는 자처럼, 공감적인 접근을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좋으며, 대화적이고 소통하는 설교를 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sup>17)</sup> 그리고 평이하고 쉬운 언어를 구사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한마디로 “코로나 시대 영상 설교자는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회중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야 “복음은 비로소 모든 이들을 위한 복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sup>18)</sup>

이상으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설교의 문제를 고찰한 논문들을 살펴보았다. 각 연구자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설교학적으로 다양한 설교 방법론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귀납적 설교, 이야기 설교, 특수 설교 등을 활용함으로써 설교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다양한 영상 사용과 PPT의 활용을 통해 설교의 내용 역시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제안은 설교자들이 귀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눈여겨본 부분은 각 논문의 연구자들이 새로운 상황을 성찰하고 그에 대한 설교학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여전히 ‘오래된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것, 바로 복음이며, 믿음이며, 성경이며, 성령이다. 즉 앞서 살펴본 논문의 연구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초래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도 여전히 가장 기독교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변화된 현실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181-209.

14) *Ibid.*, 200-201.

15) *Ibid.*, 202-204.

16) 손동식, “코로나 19 시대와 효과적인 온라인 설교에 관한 연구”, 『대학과 선교』 vol. 45 (2020): 33-60.

17) *Ibid.*, 49.

18) *Ibid.*, 56-57.

본 연구자 역시 그들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본 논문 역시 코로나-19시대에 설교자들이 재고해야 할 것이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교리라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교리는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과 대안을 제공하는 단초가 되며 기독교적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기독교 교리를 단순히 '교회의 가르침'만으로 정의하지 않고 보다 다양한 의미로 정의할 것이다. 그렇게 교리를 정의할 때, 교리는 설교를 풍성하게 하고 교회를 더욱 굳건히 세우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 교리는 첫째, 해석의 전제, 둘째, 성경 해석의 틀, 셋째, 청중 해석의 틀, 넷째, 사건(이야기)에 대한 명제, 다섯째, 설교의 건강성을 점검하는 체크리스트, 여섯째, 기독교 정체성 형성을 돕는 도구, 일곱째, 설교의 목적을 알려주는 표지, 여덟째, 상징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다.

## II. 신앙의 유산으로서의 교리

하비 콕스(Harvey Cox)와 같은 학자는 신앙에 의해 촉발된 초대교회의 예수운동이 교리와 엘리트 사제들(priestly elite)에 의해 변질되었다고 주장한다.<sup>19)</sup> 그는 기독교의 역사는 교리의 역사가 아니라 “교리에 대해 의문을 갖고, 교리를 수정하고, 교리를 폐기했던 신실한 사람들의 역사”라고 말한다.<sup>20)</sup> 교리로 인하여 초대교회의 다양성이 상실되었으며 교리는 이후 등장하는 근본주의의 초석을 놓았다는 것이 콕스의 생각이다.<sup>21)</sup> 그에게 교리는 기독교의 시작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 시대적 산물일 뿐이다.<sup>22)</sup> 콕스와 같이 교리가 실재를 가리키는 진리가 아니라 특정 시대의 산물이라는 주장은 언제나 존재해왔다.<sup>23)</sup>

교리가 특정 시대의 산물인 것은 사실이다. 교리는 종교적 헌신, 이단과의 논쟁, 정치적 상황, 철학과 과학의 도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리가 특정 시대의 산물이라는 사실이 교회에서 교리가 갖는 의미와 역할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들여보면 첫째, 교리를 비롯한 모든 신학적 성찰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고 있다.<sup>24)</sup> 교리는 누군가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신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에 근거한다. 교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고백이며 인간의 반응이다.<sup>25)</sup> 둘째, 교리는 한 개인의 창작물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통한 결과물이며 계속해서 전수(handed down)되어온 것이다.<sup>26)</sup> 그런 의미에서 “교리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지혜와 피, 땀, 눈물의 결정체”이며 “역사를 통해 증명된 고백의 모음이다.”<sup>27)</sup>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

19) Harvey Cox, *The Future of Faith*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2009), 55. 콕스는 기독교 역사를 세 시기, 곧 '신앙의 시대'(the Age of Faith), '믿음의 시대'(the Age of Belief), '성령의 시대'(the Age of Spirit)로 나눈다. 그는 '신앙'과 '믿음'을 동의어로 보기보다는 신앙은 존재론적이며,

20) *Ibid.*, 4.

21) *Ibid.*, 74-75. 알리스터 맥스래스도 교리가 통합(unity)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에라스무스를 그 예로 들고 있다. Alister E. McGrath, *The Genesis of Doctrine: A Study in the Foundation of Doctrinal Criticism* (Oxford: 1990), 48-49.

22) Harvey Cox, *The Future of Faith*, 75.

23) 한재동, “‘교리설교’의 수사적 의미와 과제”, 『신학과실천』 vol. 49 (2016): 53.

24) Jan Hendrik Walgrave, *Unfolding Revelation: The Nature of Doctrinal Development*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2), 38.

25) Karl Barth, *The Preaching of the Gospel*, trans. by B. E. Hooke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3), 30.

26) 안덕원, “교리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활천』 vol. 730.9 (2014. 9): 34.

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전해진다는 점에서 기독교 교리는 여전히 가치 있고 소중한 신앙의 유산이다.

### Ⅲ. ‘교리를 설교하는 것’과 ‘교리설교를 행하는 것’의 차이

교리에 대한 설교학적 고찰에 앞서 ‘교리를 설교하는 것’과 ‘교리설교를 행하는 것’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가지 활동을 구분함으로써 설교학적으로 교리를 보다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연구자가 제안하듯이 교회에서 교리는 반드시 설교 되어야 한다.<sup>28)</sup> 그러나 ‘교리를 설교하는 것’과 ‘교리설교를 행하는 것’은 다르다. ‘교리를 설교하는 것’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반면 ‘교리설교를 행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설교에서 교리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존 맥클루우(John S. McClure)가 말하는 것과 같이 교회 교리를 현대적인 상황 속에서 ‘가르치거나 설명하는 설교’가 교리설교이다.<sup>29)</sup> 교리가 설교의 내용(contents)이 되는 것이 교리설교인 것이다.

그러나 많은 학자가 교리설교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윌리엄 윌리몬은 교리설교가 갖는 함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첫째, 교리설교는 신앙을 지적(知的)인 것으로 만들고 이성화, 교리화함으로써 복음을 일련의 지적인 명제도 변질시킬 위험이 있다. 둘째, 설교자가 교리의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에 집중함으로써 복음을 무시할 수 있고, 셋째, 설교를 성도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강의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sup>30)</sup>

최근 교리설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오히려 교회에서 교리가 예전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반증일 것이다. 교회에서 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내용, 즉 교리를 잘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승구는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성도들의 우민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우려한다.<sup>31)</sup> 교회에서 교리가 홀대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설교자들이 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설교자들은 교리를 교회의 가르침 정도로 생각한다. 교리를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이라고 정의하고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은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설교를 통해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 모든 설교마다 교리를 가르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모든 설교가 교리를 가르치는 설교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설교자는 교리를 가르치는 설교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교리에 대한 가르침이 선택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설교와 교리의 분리는 설교를 통해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재동의 고민 역시 교리와 설교의 분리라는 문제로부터 시작된다.<sup>32)</sup> 교리설교의 수사적 의미를 고찰하는 논문에서 그는 ‘설교’라는 한자어 ‘說教’가 “교리를 가르친다.”라는 의미이기

27) *Ibid.*

28) 교리설교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 안덕원, “교리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32-36; 김창훈, “교리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과 신학」 vol. 67 (2013): 75-98; 김윤규, “목회적 설교 유형과 설교 실연 연구 I: 교리적 설교, 본문(주석)설교, 강해설교 실연 및 분석과 평가”, 「신학연구」 vol. 42 (2001): 397-429; 정승원, “교리적 주제를 시리즈로 설교하기”, 「헤르메네이아 투데이」 vol. 44 (2008): 117-140; 김병훈, “교리 설교와 상담의 관계성 이해를 위한 설교: 너희는 두려워 말라, 마 10:24-33”, 「헤르메네이아 투데이」 vol. 43 (2008): 163-180; 정찬균, “위기상황의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 현실과 교리 설교의 회복”, 「신학정론」 vol. 32.2 (2014): 346-365.

29) John McClure, *Preaching Words: 144 Key Terms in Homiletic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7), 24.

30) 윌리엄 H. 윌리몬, 『통합적 설교』, 이형의 역 (서울: 교문사, 1982), 103.

31) 이승구, “현대 교회와 교리 설교의 회복”, 「헤르메네이아 투데이」 vol. 41 (2007): 16.

32) 한재동, “‘교리설교’의 수사적 의미와 과제”, 35-66.

에 ‘교리설교’라는 말은 같은 의미를 두 번 반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sup>33)</sup> 교리와 설교가 동의어라면 ‘교리설교’는 ‘역전 앞’과 같이 동의어의 반복인 것이다. 또한, 한재동은 ‘교리설교’를 설교의 한 유형으로 정의하게 될 때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교리와 설교는 불가분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교리설교’가 설교의 한 유형으로 자리매김할 경우 설교자나 청중의 기호에 따라 교리설교라는 설교유형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34)</sup> 교리설교의 존재로 인해 오히려 교리에 대한 교육과 관심이 외면당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앞서 살펴본 이승구의 주장과 비슷하다.

이와 더불어 ‘교리설교’로 인해 설교에서 교리의 역할이 불분명해졌다는 사실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설교가 단순히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교리는 설교에 내용(content)만 제공하는 것인가? 교리는 설교를 위해 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한재동은 ‘교리설교’라는 용어를 설교의 한 유형이 아니라 메타설교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교리설교’는 교리와 설교를 분리하려는 시대를 향해 양자의 본래적 관계를 다시 주장하는 저항의 표시”이며 이것이 “어색한 중복어이지만 이 어색한 중복어가 오늘의 비정상적 현실을 들춰내는 수사적 고발”이라는 것이다.<sup>35)</sup> 이렇듯 한재동은 교리설교를 다른 관점에서 정의할 것을 제안한다.

본 논문 역시 한재동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교리를 단순히 교회의 가르침이라고만 정의할 것이 아니라 교리를 좀 더 폭넓게 정의함으로써 모든 설교에 교리가 보다 광범위하게 관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IV. 교리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설교학적 이해의 필요성

제임스 차일스 주니어(James M. Childs Jr.)는 교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교리란 조직신학이나 교의신학의 전통적인 주제들을 아우르는 모든 가르침(the body of teaching)이다. 이 가르침에는 말씀의 교리, 신문, 삼위일체론, 창조론, 인간론, 죄론, 기독교론, 구원론, 성령론, 성화론, 교회론, 목회에 관한 교리, 성례에 관한 교리 등이 포함된다. 기도나 윤리를 개별적인 주제로 포함하는 사람도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주제는 에큐메니컬 신경,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다나시우스 신경 등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주제들은 교리문답서나 교백 문서에서 상세히 설명되고 있다.<sup>36)</sup>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교리의 정의 역시 차일스 주니어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리에 대한 정의는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좀 더 확대된 교리의 정의는 무엇일까? 첫째, 교리는 여러 세대를 걸쳐 교회가 하나님께 들은 것을 분명하게 진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sup>37)</sup> 둘째, 모든 교리의 뿌리에는 교인의 공통 경험이 있다. “설교

33) 켈리(J. N. D. Kelly) 역시 “1세기 말 이후로 교리가 의미하는 것은 교회(the Catholic Church)의 가르침”이었다고 말한다. J. N. D. Kelly, *Early Christian Doctrines*, 4<sup>th</sup> ed. (London: Adam & Charles Black, 1968), 29.

34) 한재동, “‘교리설교’의 수사적 의미와 과제”, 45.

35) *Ibid.*, 48.

36) James M. Childs Jr., “Doctrines and Biblical Texts,” in *The New Interpreter’s Handbook of Preaching*, ed. Paul Scott Wilson and et al.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8), 449.

37) Justo L. González, *A Concise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 (Edinburgh: Alban Books, 2006 and Nashville: Abingdon, 2005), 7.

자들이 해야 할 책임은 교리를 형성케 했던 경험을 이해하는 방법들을 찾고, 교인들이 그 경험을 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되살리는 일을 돕는 일이다.”<sup>38)</sup> 셋째, 교리란 “복음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의 산물(product)이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에 대해 교회가 이해하고 반응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며, 복음을 정의하고 방어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sup>39)</sup> 넷째, 설교자들이 성도들에게 제공해야 할 교리의 원천은 “성경이 일관되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한 증언과, 그 증언에 대한 2천년의 교회의 일관된 반응으로서의 신앙 고백들, 그리고 그 고백들 속에서 형성된 신앙 전통(tradition)”이다.<sup>40)</sup> 다섯째, 신학의 임무 중 하나는 기독교 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며, 기독교 교리는 성도의 정체성과 삶의 태도를 결정짓는 데 도움을 준다.<sup>41)</sup> 이처럼 오늘날 교리에 대한 이해는 확장되고 확대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근거해 설교에 있어서 교리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V. 설교에 있어서 교리의 역할

### 1. 해석의 전제(presupposition)

설교라는 행위는 그 자체가 하나의 해석이다.<sup>42)</sup> 설교자는 설교를 위해 성경 본문을 해석하고 청중들의 삶을 해석한 뒤 그 해석의 결과를 설교로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런 설교자의 해석작업은 전제 없이는 불가능하다. 신학적인 전제 없이 해석작업을 행하는 설교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43)</sup> 해석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가진 해석의 전제들을 가지고 해석작업에 임한다.<sup>44)</sup> 볼트만의 신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데이비드 퍼거슨은 해석을 위한 전이해(전제)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석은 주제보다 앞서서 전이해의 기초 위에서만 시작할 수 있다. 본문은 어떤 전이해의 빛 안에서 해석되어야 한다.”<sup>45)</sup>

전제란 우리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것”(take for granted)이다.<sup>46)</sup> 또한, ‘참되다고 인정하고 확증한 지식’이기도 하다. 전제 없이 우리는 어떤 것도 평가할 수 없고 그것에 대한 참과 거짓을 입증할 수도 없다.<sup>47)</sup> 그런 의미에서 전제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이해의 지평(the horizon of understanding)이며<sup>48)</sup> 해석의 틀이다. ‘교리’는

38) 윌리엄 칼 3세, 『감동을 주는 교리 설교』, 김세광 역 (서울: 새세대 2011), 47.

39) Jeremy R. Treat, “Gospel and Doctrine in the Life of the Church,” *Scottish Bulletin of Evangelical Theology* 32.2 (Autumn 2014): 180.

40) 이승진, “교회에 복음의 생명을 선포하는 교리 설교”, 『생명과 말씀』 vol. 2 (2010): 182.

41) Mark Ellingsen, *Doctrine and Word: Theology in the Pulpit* (Atlanta, GA: John Knox Press, 1983), 1.

42) Paul Scott Wilson, *The Practice of Preaching*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5), 126.

43) James M. Childs Jr., “Doctrines and Biblical Texts,” 449.

44) 해석학의 역사를 보면, 실라이에르마히는 해석을 일종의 기술로 이해했다. 올바른 해석을 위해 해석이 규칙이 필요한 것 역시 해석을 기술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기술로서의 해석을 통해 텍스트보다는 저자에 대해 더 알기를 원했다. 어떤 경우 저자보다 더 저자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면 볼트만은 해석학적 전제가 없는 해석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즉, 객관적인 해석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볼트만의 평생의 과업은 신학적 선입견을 배제하는 것이었다. 실라이에르마히나 볼트만과 달리 하이데거는 해석학적 전제가 배제된 해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해석적인 전제를 인정하고 그 위에서 해석 작업을 행하라는 것이 하이데거의 주장이었다. 강성열 · 오덕호 · 정기철, 『설교자를 위한 성서해석학 입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344.

45) 데이비드 퍼거슨, 『볼트만』, 전성용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100.

46) C. M. Gómez Rincón, “Presupposing, Believing, Having Faith,” *Sophia* (2019): 4.

47) *Ibid.*

48) *Ibid.*, 6.

설교자의 신학적 사고가 가능하게 하는 신학적 전제라고 할 수 있다. 교리는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과 방법을 제시해 주며, 그 시각과 방법은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기 때문이다.<sup>49)</sup> 설교자는 성경 본문을 읽고 해석할 때 교리의 창을 통해서 행하며 청중들의 삶을 해석할 때도 그렇게 행한다.

그러나 교리가 신학적 이해를 위한 전제가 된다는 것은 전제가 되는 교리가 영원불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교리가 성경보다 우선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신학적 전제가 되는 교리는 성경에 근거하며 성경에 의해 수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50)</sup> 신학적 전제로서 교리는 계속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 인간의 이성으로 교리의 핵심이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며, 둘째, 교리가 가진 역사성 때문이다. 교리가 역사성을 가진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 교리는 계속해서 발전되어 왔고 변화되어왔다는 의미이다. 이 말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인간 경험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왔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성경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깊어지고 확장되어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 경험과 성경 이해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이해 역시 확장되고 넓어졌다. 그 경험과 이해에 뿌리내리고 있는 교리가 역사 속에서 확장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교리는 확정되고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성경 이해에 의해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것이다.<sup>51)</sup>

그러나 교리의 핵심이 되시는 하나님이 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잔 헨드릭 월그레이브(Jan Hendrik Walgrave)가 제시하는 도그마(dogma)와 도그마의 공식(dogmatic formulas)의 차이는 이런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sup>52)</sup> 교리로서의 도그마는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 받아들여야 하는 고정된(fixed) 믿음의 내용이다. 도그마는 교회가 받아들이고 인정한 명제(propositions)이다. 그러나 도그마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도그마의 공식들은 시대에 따라 다양하다. 즉 도그마는 변경될 수 없지만(irrevocability), 도그마를 설명하는 도그마의 공식들은 언제나 교정될 수 있고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도그마의 명제들이 가리키는 것은 신적인 신비이며 인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신비에 대한 인간 이해는 시대와 세대를 통해, 성경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통해 계속해서 확장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서의 교리(도그마의 공식)는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하고 발전해야 한다. 하나님이 변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언제나 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의 하나님 이해도 변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해서, 불변하시는 하나님은 늘 변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자신의 진리를 계시해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기 때문이다.

## 2. 성경 해석의 틀

앞 단락에서 본 연구자는 교리가 설교자의 신학적인 해석의 전제가 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교리가 설교자의 해석을 위한 전제가 된다는 말은 교리가 설교자의 성경 해석과 청중의 삶 해석을 위한 틀을 제공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성경은 교회의 토대이다. 성경은 명령을 내리고 소명을 일으킨다. 예수님을 통해 의롭게 된 사람은 언제나 성경을 이해하고 설명하길 원한다.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살아내려는 의

49) 니니안 스마트, 『종교와 세계관』, 김윤성 역 (서울: 이학사, 2000), 140.

50) 데이비드 퍼거슨, 『볼트만』, 100.

51) Paul Scott Wilson, *Imagination of the Heart: New Understandings in Preaching* (Nashville, TN: 1988), 162.

52) Jan Hendrik Walgrave, *Unfolding Revelation*, 38-39.

지를 가진다.<sup>53)</sup> 설교는 그와 같은 교회와 기독교인의 활동 중 하나이다. 그러기에 설교는 성경 해석으로부터 시작하며 성경 해석으로 돌아간다. 한마디로 설교는 성경 해석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sup>54)</sup> 설교자가 성경 해석에 충실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설교자가 성경 해석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설교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이다. 즉 성경이 설교에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시드니 그레이다누스는 성경이 설교를 위한 유일한 원천이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역사 가운데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들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제공”하기 때문이며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들에 대한 규범적인 선포이며 이에 대한 그분이 요구하시는 반응을 제시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sup>55)</sup> 성경은 “미래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지닌 말씀인 것”이다.<sup>56)</sup> 이런 의미에서 건강한 설교를 위해 성경은 올바르게 해석되어야만 한다.<sup>57)</sup>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리는 성경을 올바르게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길라잡이 역할을 해왔다. 초대교회에는 기독교 신경과 교리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의 규칙’(Rule of Faith)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 규칙은 사도적인 것으로 간주되었고 “성경의 내용이나 해석에 대한 논쟁이 일어날 때 호소할 수 있는 표준”이었다.<sup>58)</sup> 즉 신앙의 규칙을 비롯한 교회의 다양한 고백과 신경들이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부터 성경의 권위를 지키는 역할”을 해주었다는 것이다.<sup>59)</sup> 이승진 교수는 성경 해석의 틀로서 교리가 갖는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물론 교리가 성경보다 더 우위를 차지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통상적인 해석체계로서의 교리에 대한 이해가 없이 성경을 해석하면 해석자의 신학적인 편견이나 개인적인 관심사에 의해서 성경 메시지가 파편화되거나 공동체가 한 몸으로서의 교회로부터 이탈될 수 있다. 따라서 설교현장에서 성경과 교리는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감당해야 하며 ‘교리는 성경의 내러티브가 올바르게 해석되는 해석의 틀(the interpretive framework)을 제공’해야 한다.<sup>60)</sup>

알리스터 맥그래스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리가 성경 해석을 평가하던 시금석이였다는 사실을 아리우스와 아다나시우스의 신학 논쟁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그는 아리우스와 아다나시우스의 논쟁은 예수의 본성에 대한 논쟁이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한 해석의 틀이 교리적으로 적절했는가에 대한 평가였다고 주장한다.<sup>61)</sup> 325년

53) 칼 바르트, 『칼 바르트의 설교학』, 정인교 역 (서울: 한들, 1999), 85-86.

54) *Ibid.*

55) 시드니 그레이다누스, 『성경 해석과 성경적 설교』, 김영철 역 (서울: 여수론, 2012), 40.

56) *Ibid.*, 40.

57) 그렇다면 교회 현장에서 성경은 신실하게 해석되고 있는가? 설교자들의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전창희는 “설교자들이 성서해석에 관련된 직접적이고 적절한 과정을 밟고 있는가”라고 질문한다. 그는 설교자가 성경 해석에 신실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설교학적으로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한다. 첫째, 설교학이 설교자들에게 신실한 본문 해석을 위한 건강한 도구들을 제시하고 있는가, 둘째, 신실한 성경 해석을 위한 해석의 도구들이 신학교 교육이나 목회 현장에서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가. 그는 지금까지 설교학이 설교 방법론 제시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해석학적 도구들을 제시하는 데에는 관심을 기울였다고 지적한다. 즉 설교학의 입장에서 성경 해석에 대한 방법론 제시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교의 아이디어가 성서 본문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성서 해석학에 대한 설교자들의 관심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전창희, “설교학과 성서해석학,” 『신학과 실천』 vol. 36 (2013): 193-195.

58) 프란시스 영, 『초대 기독교 신조 형성사』, 이후정 · 홍삼열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94), 25.

59) Gustaf Aulén, *The Faith of the Christian Church*, ed. Eric H. Wahlstrom (Philadelphia, PA: Fortress Press, 1960), 74.

60) 이승진, “교회에 복음의 생명을 선포하는 교리 설교,” 182.

61) Alister E. McGrath, *The Genesis of Doctrine*, 58.



니케아공의회에서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결정되었다. 기독교 역사 속엿서 교리는 “무책임하고 잘못된 성경 해석을 감시”했던 것이다.<sup>62)</sup>

그러나 교리가 성경 해석을 위한 틀을 제공한다는 사실이 교리를 포함한 교회 전통이 성경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아니다. 교회 전통은 성경보다 우선할 수 없다. 전통의 권위는 언제나 성경의 권위 아래 놓이기 때문이다. 교리는 성경 이야기를 해석하는 개념적인 틀이지만 임의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성경과 성경이 제시하는 이야기에 근거하고 있다. 교리가 성경에 근거한다는 것은 성경 속에 교리의 맹아들이 발견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성경은 단순한 이야기의 모음집이 아니라 이 이야기에 대한 해석들 역시 담겨있기 때문이다. 왕대일은 “토라는 예언서에서, 예언서는 성문서에서 지속적으로 재해석”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63)</sup> 즉 토라의 이야기가 예언서와 성문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재해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왕대일의 주장은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재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린도교회의 문제들에 답하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서의 예수 이야기를 재해석하고 있다(고전 11장의 성만찬에 관한 문제). 이런 의미에서 교리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전부터 성경 안에는 교리적인 내용들이 담겨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교리는 신약성경 안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유사교리적인(quasi-doctrinal) 암시, 표시, 상징들의 확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64)</sup>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이야기가 먼저이고 교리가 다음이다.”<sup>65)</sup>

### 3. 청중 해석의 틀

전통적인 설교학에서 청중은 성경에서 발견해낸 진리를 설교자로부터 전달받는 수동적인 수취인(receiver)일 뿐이었다. 이런 청중 이해는 전통적인 설교학자들이 설교를 “설교 메시지나 진리를 회중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이다.<sup>66)</sup> 전통적인 설교학을 대표하는 학자 중 한 사람인 제임스 콕스(James Cox)는 “설교의 목적은 설교자의 정신과 마음속에 있는 것을 청중의 정신과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는” 것이며, 그러기에 “설교란 일방통행이요, 일방적인 의사 전달”이라고 말한다.<sup>67)</sup>

그러나 새로운 설교학에서 청중은 설교의 과정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참여자(participant)이며 설교라는 여행의 동반자(co-traveler)이다.<sup>68)</sup> 설교가 설교자와 청중이 함께하는 여행이라는 의미는 설교자가 청중의 한 사람으로 성경으로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전제한다. 토마스 롱(Thomas G. Long)은 이 점을 강조한다. 설교자는 “회중을 대표하여 매주 성경으로 보냄을 받는 자”이며<sup>69)</sup> “신실한 공동체를 대표하여,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을 대표하여 성경으로 가는 것이다.”<sup>70)</sup> 그곳에서 설교자는 자신이 섬기는 공동체를 향한, 나아가 세상을

62) Gustaf Aulén, *The Faith of the Christian Church*, 74.

63) 왕대일, “성서해석사에서 배우는 설교의 과제”, 『신학과 세계』 vol. 84 (2015. 12): 15.

64) Alister E. McGrath, *The Genesis of Doctrine*, 59.

65) *Ibid.*

66) 루시 앳킨즈 로즈,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 설교』, 이승진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0), 43.

67) 제임스 콕스, 『설교학』, 원광연 역 (경기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9), 65.

68) Fred B. Craddock, *As One without Authority, Revised and with New Sermons* (St. Louis, MO: Chalice Press, 2001), 109; John S. McClure, *Preaching Words*, 94; David J. Lose, “Wither, Hence, New Homiletics?” *The Annual Meeting for the Academy of Homiletics* (Dec. 1-4, 2000), 255-259.

69) 토마스 G. 롱, 『증언하는 설교』, 이우제 · 황의무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76.

70) *Ibid.*, 77-78.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자신이 들은 것을 청중들이 들을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설교해야 한다. 설교자에게 성경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청중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교리는 설교자의 성경 해석을 위한 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설교자의 청중 이해를 위한 해석의 틀 역시 제공한다. 즉 교리가 일상의 경험을 해석해내고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71)</sup> 교리가 청중들의 삶을 해석하는 틀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교리는 청중들의 공통 경험으로부터 기인했기 때문이다. 윌리엄 칼 3세는 그와 같은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모든 교리의 근저에는 교인의 공통 경험이 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이름, 즉 교리로 형성되는데, 예를 들면 ‘죄’, ‘성화’, ‘중생’ 등이 바로 그것이다. 교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사람 또는 한 신앙 공동체, 또는 종교개혁이나 초대교회와 같은 한 시대의 감정적 도취로 형성되는 것도 아니다. 교리는 오랜 세월을 거쳐 형성되어 온 것이다. 설교자들이 해야 할 책임은 교리를 형성케 했던 경험을 이해하는 방법들을 찾고, 교인들이 그 경험을 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되살리는 일을 돕는 일이다.”<sup>72)</sup>

이처럼 교리가 성경 해석과 청중 해석의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설교자들은 자신이 가진 교리에 대해서도 늘 점검할 필요가 있다.<sup>73)</sup> 조직신학에 대한 독서와 학습을 통해 자신의 교리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교리는 성경 신학의 발전과 사람들의 삶의 자리의 변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sup>74)</sup> 따라서 설교자는 성경 신학의 발전, 특히 성경 해석 방법론의 발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주목하고 학습할 필요가 있다.

#### 4. 사건(이야기)에 대한 명제

기독교 교리가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과정을 설명해준다는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한재동은 교리가 “구체적 사건-이야기에 주의를 환기” 시킨다고 말한다.<sup>75)</sup> 즉 기독교 교리가 기본적으로 구체적 사건-이야기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 사건-이야기를 지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교리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야기)을 명제화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교리를 이야기와의 연결 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sup>76)</sup>

교리를 이야기로 읽어내는 것, 다시 말해 교리를 사건에 대한 명제로 읽어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있다. 성경은 보편적인 진리를 말하기보다는 매우 구체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한다. 즉 구약과 신약은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곧 인간 역사 속에서 활동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sup>77)</sup> 그러나 이와 같은 성경의 이야기는 다양한 요구에 의해 명제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세례교육은 이야기의 명제화를 가속화한 요인 중 하나였다. 프란시스 영에 따르면 3세기부터 교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신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런 신조들은 4세기에 들어서면서 예비 세례자들을 위한 교육 자

71) Mark Ellingsen, *Doctrine and Word*, viii.

72) 윌리엄 칼 3세, 『감동을 주는 교리 설교』, 47.

73) Paul Scott Wilson, *The Practice of Preaching: Revised Edition*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7), 232-233.

74) James M. Childs Jr., “Doctrines and Biblical Texts,” 449.

75) 한재동, “‘교리설교’의 수사적 의미와 과제”, 43.

76) Paul Scott Wilson, *Imagination of the Heart*, 143-187.

77) 시드니 그레이다누스, 『성경 해석과 성경적 설교』, 59.

료로 사용되었다.<sup>78)</sup> 설교자들은 신조의 내용을 강론했고 이 내용을 교육받은 예비 세례자들은 “신조를 외워서 세례받기 전에 그것을 암송해야 했다.”<sup>79)</sup> 신조가 세례자 교육을 위해 유용했던 것은 그것이 복음과 성경의 요약이었기 때문이었다.<sup>80)</sup> 새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들려주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며 새신자들이 그것을 모두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역시 불가능했을 것이다. 예루살렘의 시릴은 그와 같은 사실을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읽을 수는 없다 … 따라서 우리는 믿음에 관한 전체의 교리를 단 몇 줄로 요약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암기해서 잘 간직되어져야 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인간적인 집성이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모은 가장 중요한 요점들이기 때문이다.”<sup>81)</sup> 이렇듯 교리는 교회의 필요에 의해 발전하기 시작했고 이후 이단들과의 논쟁 속에서 더욱 세분화되고 발전되었다.<sup>82)</sup>

따라서 성경과 복음의 요약으로서 교리는 명제화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다. 명제로 구성된 교리는 성경 이야기와 맞닿아있기 때문이다. 교리는 ‘명제’와 ‘이야기’라는 두 날개를 가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교리 이해에서 ‘이야기’라는 날개는 사라져 버리고 ‘명제’라는 날개만 남은 것 같다. 초대교회에서 교리와 이야기 모두 중요한 것으로 간주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sup>83)</sup> 오늘날 교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 ‘이야기’라는 날개를 잃어버린 교리 교육은 이제 ‘명제’라는 날개만을 설명하는 것으로 전락해버렸다.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라져 버린 자리에 하나님에 대한 명제를 설명하는 논리와 논증만 남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야기를 잃어버린 교리는 불완전하다. 알리스터 맥그래스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야기를 잃어버린 교리로 인해서 기독교 신학이 불행한 결과를 맺게 됐다고 결론짓는다.<sup>84)</sup> 그는 교리가 그 뿌리가 되는 이야기와 분리되어 그 자체로 자율성을 갖게 될 때, 이야기는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경고한다.<sup>85)</sup>

교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문과 같다. 교리를 통해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만난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현재의 삶의 자리를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는다. 그 이야기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 개인의 역사적 상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sup>86)</sup> 그 이야기 속에서 교회 공동체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며,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성령님을 만난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명제화된 교리가 아니라 교리가 지시하는 이야기 속의 성삼위 하나님이신 것이다.

##### 5. 설교의 건강성을 점검하는 체크리스트(Checklist)

성경의 요약으로서 교리는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런 특징은 교리가 설교의 건강성을 점검하는 역할을 가능하게 한다. 초대교회로부터 교리 또는 신앙의 고백들은 건강한 설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왔다.<sup>87)</sup>

78) 프란시스 영, 『초대 기독교 신조 형성사』, 14-15.

79) *Ibid.*, 16.

80) *Ibid.*, 17.

81) *Ibid.*

82) *Ibid.*, 24-33.

83) Paul Scott Wilson, *Imagination of the Heart*, 154.

84) Alister E. McGrath, *The Genesis of Doctrine*, 64.

85) *Ibid.*

86) *Ibid.*, 53.

87) 프란시스 영, 『초대 기독교 신조 형성사』, 24-25.

마크 엘링센(Mark Ellingsen)은 교리가 건강한 설교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checklist) 역할을 할 있다고 제안한다. 즉 교리가 기독교의 선포가 성경적인지, 기독교 전통과 조화를 이루는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간의 언어인지를 점검해주는 비평적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교회의 복음 선포를 돕고, 그 선포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88)</sup> 특별히 교리는 석의 작업을 통해 나온 결과를 점검하는 데 효과적이다. 엘링센은 설교자가 행한 석의의 결과를 교리를 통해 점검했을 때 세 가지 잠재적인 유익이 있다고 말한다.<sup>89)</sup> 첫째, 교리를 통해 석의 결과를 점검함으로써 설교자는 석의 작업을 통해 얻은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 석의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내용을 발견할 수도 있다. 둘째, 석의의 결과를 교리를 통해 점검함으로써 설교자는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교리적인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설교자가 신명기 28장 1-6절을 설교 본문으로 정하고 석의 작업을 통해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가정해보자. 이 결론은 신명기 본문을 잘 해석한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설교의 내용이다.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개념은 구원에 대해 하나님이 가지시는 우선권과 행위 이전에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에 대한 교리와 어긋난다. 교리를 통해 석의 작업을 점검함으로써 이와 같은 석의 과정에서의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다.

셋째, 교리를 통해 자신의 설교 활동 전체를 평가해보으로써 설교자는 자신의 설교가 어떤 교리에만 치중해있는지는 않은지를 알 수 있다. 청중들은 다양한 교리에 대해 듣고 양육될 필요가 있다. 그런 양육의 가장 좋은 수단 중 하나가 설교다. 설교자가 자신이 행한 설교 목록에 대해 교리적으로 점검하지 않는다면 교리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설교자는 교리를 통해 정기적으로 자신의 설교를 점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교리를 설교를 통해 다루어 성도들을 양육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독교 교리는 “오늘날 교회가 선포하는 것이 성경이나 기독교 전통과 조화하는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간의 언어인지, 그리고 그것은 단지 최근의 영적인 조류이거나 사회 윤리적 열정에 지나친 것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일종의 비평적 역할을 감당”해준다.<sup>90)</sup>

## 6. 기독교 정체성 형성

공적 영역에서의 기독교의 역할에 대해 논하는 글에서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기독교 공동체는 주변의 문화들(culture) 및 하위문화들(subcultures)과의 ‘차이’를 잘 지켜 가야만 현대사회에서 살아남고 앞으로 번성할 수 있다. 원칙은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기독교 공동체가 계속 존재하기를 원한다면 주변에 있는 문화와 다르기 원해야지 기독교가 주위 문화와 뒤섞이기를 바라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기독교 공동체들은 능동적으로 ‘경계선을 유지’하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관리’해야 한다. 경계선이 없으면 공동체는 소멸한다. 문제는 경계의

88) 마크 엘링센(Mark Ellingsen), “교리”, 윌리엄 윌리몬 · 리차드 리스처 편집, 『설교학 사전』, 이승진 역 (서울: CLC, 2003), 49.

89) *Ibid.*, 50.

90) *Ibid.*, 49.

유무가 아니라 그 경계가 어떤 성격을 띠는가 -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투과성(透過性)을 가져야 하는가 - 이며 또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가다.

볼프는 기독교가 세상 문화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세상 문화에 동화되기보다는 기독교적인 색채를 더 잘 간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세상과의 명확한 경계선을 유지하고 자기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볼프는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하는 데 더욱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폭력에 대한 논의에서도 볼프는 폭력에 대한 치유책은 “기독교 신앙에 덜 충실한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정의된 의미에서의 기독교 신앙에 더 충실해지는 데 있다.”라고 주장한다.<sup>91)</sup> 그는 기독교의 경계선을 유지하고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교리’라고 못 박아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논지를 기독교 교리 - 특히 창조, 구속, 삼위일체 등 - 에 근거해 전개한다.<sup>92)</sup> 그런 의미에서 볼프가 말하는 기독교를 더욱 기독교 되게 하고, 세상 문화와의 차별성을 갖게 하고, 기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교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즉 교리는 기독교 공동체의 경계를 설정하고 기독교적 정체성을 유지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알리스터 맥그래스는 그와 같은 교리의 기능을 ‘사회적 경계 짓기’(social demarcation)라고 명명한다.<sup>93)</sup>

기독교 정체성 형성 기능으로서의 교리가 중요한 이유는 교리를 통해 성도들은 기독교의 핵심 활동인 예배, 양육, 선교, 봉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sup>94)</sup> 자신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이 속한 삶의 영역 -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 에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95)</sup> 세속적인 믿음은 계속해서 신앙을 통해 형성된 세계관을 현혹한다. 이에 저항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가진 세계관을 성경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sup>96)</sup> 교리는 이와 같은 검증 작업을 도와준다.

또한, 기독교 정체성이 분명히 확립되어 있을 때라야 복음 전파 역시 충실하게 행해질 수 있다. 알리스터 맥그래스는 기독교 정체성이 모호해질 때 복음 전파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교리가 갖는 사회적 경계 짓기의 기능은 21세기 교회에도 여전히 요구된다. 교회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켜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다양한 매스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교회와 사회의 경계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고 이를 통해 교회와 기독교의 정체성이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와 사회의 경계를 분명히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 물론 사회에 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저버리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아가 구별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전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복음 전파의 사명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 되고 말 것이다.<sup>97)</sup>

91) 미로슬라브 볼프, 『광장에 선 기독교』, 김명윤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4), 70.

92) 유일신 사상이 폭력을 초래한다는 주장에 대해 볼프는 삼위일체 교리를 근거로 반박한다. “특히 기독교는 슈워츠가 비판하는 유형과 같은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정체성에 의해 촉발되는 폭력에 대해서는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다. 유일신 사상은 삼위일체적이기 때문이다.” 볼프, 『광장에 선 기독교』, 73-74.

93) Alister E. McGrath, *The Genesis of Doctrine*, 49-50.

94) 윌리엄 칼 3세, 『감동을 주는 교리 설교』, 12.

95) 밀라드 에릭슨 · 제임스 헤플린, 『건강한 교회를 위한 교리 설교』, 이승진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43.

96) 윌리엄 로마노프스키, 『맥주, 타이타닉, 그리스도인』, 정현혁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4), 65.

한편, 교리가 갖는 기독교 정체성 형성 기능과 관련해 케빈 밴후저(Kevin J. Vanhoozer)의 교리 이해가 중요하다. 그의 교리 이해는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 “실행”(performance)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전에 기독교인들은 먼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행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길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것을 삶 속에서 행하는 것이다.<sup>98)</sup> 이 과정에서 교리는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렇게 읽고 이해한 내용을 세상 속에서 행하는데 안내자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교리는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이 속한 세상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공동체(cruciform shape of community)를 창조하는 데 도움을 준다.<sup>99)</sup> 또한, 교리는 “일상의 삶 속에 찾아오는 다양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준다.”<sup>100)</sup> 올바른 기독교인의 삶을 위한 방향(direction)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런 활동을 통해 기독교인들은 세상 속에서 더욱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획득하게 된다.

### 7. 설교의 목적을 알려주는 표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기독교회는 역사적 예수와 그가 선포한 복음을 교회의 설교와 교육의 핵심으로 생각해왔다.<sup>101)</sup> 그런 의미에서 설교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했던 바르트는 우리가 설교할 때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며, 설교를 통한 그리스도의 드러나심은 하나님의 행위라고 이해했다.<sup>102)</sup> 데이빗 버트릭(David Buttrick)은 설교란 부활하신 예수님이 위임하신 것이며 이 설교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말씀하신다고 생각했다.<sup>103)</sup> 즉 설교는 그리스도의 드러남이며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설교자가 설교의 전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핵심이다.

성경에 뿌리를 둔 교리의 중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다. 교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도신경이나 니케아신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고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교리는 설교자에게 계속해서 설교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설교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표지판 역할을 할 수 있다.

설교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오늘날 많은 설교학자의 관심 중 하나이다.<sup>104)</sup> 그들은 ‘복음을 설교하는 것’과 ‘성경 본문을 설교하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충실한 성경을 석의했다고 해서 그 석의 내용이 곧바로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는 것

97) Alister E. McGrath, *The Genesis of Doctrine*, 49-50.

98) Kevin Vanhoozer, *The Drama of Doctrine: A Canonical-Linguistic Approach to Christian Theology*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5), 2.

99) *Ibid.*, 456.

100) *Ibid.*, 2.

101) David Dunn-Wilson, *A Mirror for the Church: Preaching in the First Five Centuries* (Grand Rapids, MI: Eerdmans, 2005), 22.

102) Karl Barth, *The Preaching of the Gospel*, 14.

103) David Buttrick, *Homiletic: Moves and Structure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7), 450.

104) Paul Scott Wilson, “Preach the Text or Preach the Gospel?” *Toronto School of Theology Homiletics Seminar* 1.1 (2007, Winter): 1-10; Edward Farley, “Preaching the Bible and Preaching the Gospel,” *Theology Today* 51.1 (1994): 90-103; David Buttrick, *A Captive Voice: The Liberation of Preaching*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4, 5-32.

은 아니다. 설교자는 자기만의 복음 이해는 물론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정의하고 그 정의에 입각해 설교를 행해야 한다.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첫째, 성경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설교의 주인공이 되셔야 한다는 것, 둘째, 복음의 기쁜 소식이기에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 역시 기쁜 소식이며 청중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 셋째, 복음이 인간의 죄인 됨을 드러내고 그들을 향한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기에 설교 역시 그렇게 인간의 죄인 됨을 드러내는 율법과 구원을 위한 은혜가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sup>105)</sup> 성삼위 하나님 중심의 교리는 이와 같은 복음 중심 설교를 위한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다.

## 8. 상징의 기능

신학의 대상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반면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학의 표현 수단은 유한한 인간의 언어이다. 그러기에 인간 언어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언제나 상징적이다. 상징으로서 인간 언어를 통해 종교적 실재가 표현되는 것이다.<sup>106)</sup> 이뿐만 아니라 “상징은 초월적 실재를 우리들의 인식 가까이로 끌어들이 준다.”<sup>107)</sup>

교회의 고백으로써 교리는 상징적인 기능을 갖는다.<sup>108)</sup> 이것은 교리의 뿌리가 되는 성경의 언어들에 상징적이며 계시적이기 때문이다.<sup>109)</sup> 또한 하나님은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의 전체 내용이며 하나님에 대한 교회의 고백은 잠정적이며 상징적이기 때문이다.<sup>110)</sup>

교리가 상징적인 특징을 갖는다는 것은 설교학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던져준다. 첫째, 신학적인 진술로서의 설교 언어는 언제나 무한하신 하나님과 긴장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다. 설교 언어는 무한한 하나님에 대해 다룬다. 무한한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의 언어 사이의 긴장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긴장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설교자에게 다음의 사실을 기억할 것을 요구한다. 자신의 설교 언어가 하나님에 대해 완벽하게 담아낼 수 없다는 사실과 그러기에 자신의 언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둘째,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 논하는 설교 언어는 필연적으로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교리의 뿌리가 되는 성경은 다양한 상징들을 사용해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의 상징들은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유용한 것들인 반면 현대인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성경의 상징들은 오늘에 맞게 새롭게 창조되거나 복구되어야 한다.<sup>111)</sup> 그런 의미에서 신학자로서 설교자는 “성서적 언어들에 오늘날의 상황에서 기능할 수 있는 언어가 될 수 있도록 해석”해야 하며 “성서의 언어들에 오늘의 역사적 상황에 비추어 해석하여 역사의 해방을 위해 기능할 수 있는 적합한 상징과 사상을 복원”해야 한다.<sup>112)</sup>

105) 조지훈, “‘복음을 설교하는 것’에 대한 설교학적 함의”, 『신학과 실천』 vol. 68 (2020): 147-168.

106) Gustaf Aulén, *The Faith of the Christian Church*, 80.

107) 권진관, “역사와 상징: 역사 참여적 신학을 위한 한 방법론 고찰”, 『장신논단』 vol. 40 (2011): 196.

108) Gustaf Aulén, *The Faith of the Christian Church*, 80-81.

109) 권진관, “역사와 상징”, 198.

110) Gustaf Aulén, *The Faith of the Christian Church*, 80.

111) 권진관, “역사와 상징”, 199.

112) *Ibid.*, 196.

## VI. 결론

코로나-19로 인해 초래된 뉴노멀 시대에 대한 설교학적 성찰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많은 설교학자는 설교자들이 새로운 무엇이 아니라 원래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것의 의미와 가치를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가 아니라 잃어버린 원래의 것에 대한 회복”이라는 것이다.<sup>113)</sup> 이런 설교학적 흐름에 발맞추어 본 논문은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교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리를 잘 활용함으로써 뉴노멀 시대에도 복음을 효과적으로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본 것이다. 이를 통해 신앙의 유산인 기독교 교리를 교회의 가르침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해석의 전제, 성경과 청중 해석의 틀, 사건(이야기)에 대한 명제, 설교 체크리스트, 기독교 정체성 형성 도구, 설교의 목적을 알리는 표지와 상징 등으로 이해할 때 보다 풍성한 설교학적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뉴노멀 시대에도 우리 설교자들은-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 상관없이-계속해서 설교를 행해야 한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된 행위 중 하나인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게 하실 것이고,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실 것이며,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가실 것이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설교자들에게 교리는 성경과 성도들의 삶을 읽어내고, 그들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나게 하며, 건강한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공동체를 만드는데 적절한 도구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강성열 · 오덕호 · 정기철. 『설교자를 위한 성서해석학 입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권진관. “역사와 상징: 역사 참여적 신학을 위한 한 방법론 고찰”. 『장신논단』 vol. 40 (2011): 187-208.
- 그레이다누스, 시드니. 『성경 해석과 성경적 설교』. 김영철 역. 서울: 여수론, 2012.
- 김병훈. “교리 설교와 상담의 관계성 이해를 위한 설교: 너희는 두려워 말라, 마 10:24-33”. 『헤르메네이아 투데이』 vol. 43 (2008): 163-180.
- 김윤규. “목회적 설교 유형과 설교 실연 연구 I: 교리적 설교, 본문(주석)설교, 강해설교 실연 및 분석과 평가”. 『신학연구』 vol. 42 (2001): 397-429.
- 김창훈. “교리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과 신학』 vol. 67 (2013): 75-98.
- 로마노프스키, 윌리엄. 『맥주, 타이타닉, 그리스도인』. 정현혁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4.
- 로즈, 루시 앳킨즈.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 설교』. 이승진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0.
- 룽, 토마스 G. 『증언하는 설교』. 이우제 · 황의무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 바르트, 칼. 『칼 바르트의 설교학』. 정인교 역. 서울: 한들, 1999.
- 박현신. “인공지능 혁명(AIR)에 대한 교회의 대응에 관한 연구: 설교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신학』, vol. 57 (2020): 82-116.
- 볼프, 미로슬라브. 『광장에 선 기독교』. 김명윤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4.
- 손동식. “코로나 19 시대와 효과적인 온라인 설교에 관한 연구”. 『대학과 선교』 vol. 45 (2020): 33-60.

113) 오현철, “뉴노멀 시대 설교의 변화”, 140.



- 스마트, 니니안. 『종교와 세계관』. 김윤성 역. 서울: 이학사, 2000.
- 안덕원. “교리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활천』 vol. 730.9 (2014. 9): 32-36.
- 영, 프란시스. 『초대 기독교 신조 형성사』. 이후정 · 홍삼열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94.
- 왕대일. “성서해석사에서 배우는 설교의 과제”. 『신학과 세계』 vol. 84 (2015. 12): 7-42.
- 오현철. “뉴노멀 시대 설교의 변화”. 『복음과 실천신학』 vol. 57 (2020): 117-144.
- 에릭슨, 밀라드 · 헤플린, 제임스. 『건강한 교회를 위한 교리 설교』. 이승진 역.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2005.
- 엘링젠, 마크. “교리”. 윌리엄 윌리몬 · 리차드 리스처 편집. 『설교학 사전』. 이승진 역. 서울: CLC, 2003.
- 윌리몬, 윌리엄 H. 『통합적 설교』. 이형의 역. 서울: 교문사, 1982.
- 이성민. “인공지능 시대의 예배와 설교”. 『신학과 세계』 vol. 99 (2020. 12): 251-283.
- 이승구. “현대 교회와 교리 설교의 회복”. 『헤르메네이아 투데이』 vol. 41 (2007): 16-26.
- 이승진. “교회에 복음의 생명을 선포하는 교리 설교”. 『생명과 말씀』 vol. 2 (2010): 165-196.
- 전창희. “설교학과 성서해석학”. 『신학과 실천』 vol. 36 (2013): 189-214.
- 정승원. “교리적 주제를 시리즈로 설교하기”. 『헤르메네이아 투데이』 vol. 44 (2008): 117-140.
- 정인교. “POST-COVID 시대의 설교”. 『신학과 실천』 vol. 71 (2020): 147-174.
- 정찬균. “위기상황의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 현실과 교리 설교의 회복”. 『신학정론』 vol. 32.2 (2014): 346-365.
- 조광현. “코로나 시대, 영상 설교에 대한 설교학적 고찰”. 『복음과 실천신학』 vol. 57 (2020): 181-209.
- 조지훈. “‘복음을 설교하는 것’에 대한 설교학적 함의”. 『신학과 실천』 vol. 68 (2020): 147-168.
- 칼 3세, 윌리엄. 『감동을 주는 교리 설교』. 김세광 역. 서울: 새세대 2011.
- 콕스, 제임스. 『설교학』. 원광연 역. 경기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9.
- 퍼거슨, 데이비드. 『볼트만』. 전성용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 한재동. “‘교리설교’의 수사적 의미와 과제”. 『신학과실천』 vol. 49 (2016): 35-66.
- Aulén, Gustaf. *The Faith of the Christian Church*. ed. Eric H. Wahlstrom. Philadelphia, PA: Fortress Press, 1960.
- Barth, Karl. *The Preaching of the Gospel*. trans. by B. E. Hooke.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3.
- Buttrick, David. *Homiletic: Moves and Structure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7.
- Childs Jr., James M. “Doctrines and Biblical Texts.” in *The New Interpreter's Handbook of Preaching*. ed. Paul Scott Wilson and et al.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8.
- Cox, Harvey. *The Future of Faith*.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2009.
- Craddock, Fred B. *As One without Authority: Revised and with New Sermons*. St. Louis, MO: Chalice Press, 2001.

- Dunn-Wilson, David. *A Mirror for the Church: Preaching in the First Five Centuries*. Grand Rapids, MI: Eerdmans, 2005.
- Ellingsen, Mark. *Doctrine and Word: Theology in the Pulpit*. Atlanta, GA: John Knox Press, 1983.
- Farley, Edward. "Preaching the Bible and Preaching the Gospel." *Theology Today* 51.1 (1994): 90-103.
- González, Justo L. *A Concise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 Edinburgh: Alban Books, 2006 and Nashville: Abingdon, 2005.
- Kelly, J. N. D. *Early Christian Doctrines*. 4<sup>th</sup> ed. London: Adam & Charles Black, 1968.
- Lose, David J. "Wither, Hence, New Homiletics?" *The Annual Meeting fo the Academy of Homiletics*. Dec. 1-4, 2000: 255-266.
- McClure, John. *Preaching Words: 144 Key Terms in Homiletic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7.
- McGrath, Alister E. *The Genesis of Doctrine: A Study in the Foundation of Doctrinal Criticism*. Oxford: 1990.
- \_\_\_\_\_.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 6<sup>th</sup> ed. Oxford: Wiley Blackwell, 2017.
- Rincón, C. M. Gómez. "Presupposing, Believing, Having Faith." *Sophia* (2019): 1-19.
- Treat, Jeremy R. "Gospel and Doctrine in the Life of the Church." *Scottich Bulletin of Evangelical Theology* 32.2 (Autumn 2014): 180-194.
- Vanhoozer, Kevin. *The Drama of Doctrine: A Canonical-Linguistic Approach to Christian Theology*.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5.
- Walgrave, Jan Hendrik. *Unfolding Revelation: The Nature of Doctrinal Development*.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2.
- Wilson, Paul Scott. *Imagination of the Heart: New Understandings in Preaching*. Nashville, TN: 1988.
- \_\_\_\_\_. *The Practice of Preaching*.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5.
- \_\_\_\_\_. *The Practice of Preaching: Revised Edition*.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7.
- \_\_\_\_\_. "Preach the Text or Preach the Gospel?" *Toronto School of Theology Homiletics Seminar* 1.1 (2007, Winter): 1-10.
- \_\_\_\_\_. *A Captive Voice: The Liberation of Preaching*.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4.

▶ 발제 2:

“디지털 의례: 노마드 공간과 몸의 담론”<sup>1)</sup>

박종환 박사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전 한국예배학회 회장)

I. 들어가는 말: 모호한 세계, 모호한 미래

코로나로 얼룩진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21년은 조금 나아지겠거니 했지만 여전히 변화는 없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변형하며 발생하는 속도는 인간이 그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백신이 개발되고 각 나라가 백신확보에 열을 올리는 지금은 미래를 알 수 없고 세상이 어떻게 가야하는지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게 하는 상황이다. 거리두기를 하면서 타인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한 시대가 되었고 이러한 시간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전환의 시기,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긴장감에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목회자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끝나기를 막연히 기다리고 있지만 교인은 줄어가고 재정도 어려워진다.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결되고 이전의 예배의 형태가 회복되길 소망하지만 팬데믹 상황이 끝나도 교회가 예전의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는 기독교 예배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크게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교인들과 마음껏 기도를 드릴 수도 없고 찬송을 부를 수도 없다.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마스크는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 경고한다. 한국 개신교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변화 중 하나가 노래하지 못하고 소리를 높여 통성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현실이다. 음악은 특히 개신교 전통에서 예배 경험의 필수적인 부분이나 더 이상 찬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 묵상 기도에 익숙하지 않은 신도들은 더 이상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도 않는다.

불과 작년만 해도 필자를 포함한 예배학자들은 온라인 예배나 성찬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진 것이 사실이다. 예배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인간의 몸과 몸이 만나 교회를 이루는 행위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의례였다. 성도들은 교회당이라는 한 공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맛본다. 그리고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며 교제를 한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탕으로 유지해온 지난 이천년 동안 교회는 이러한 예배의 구조를 큰 틀을 견지해왔다.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노래하고 악수하고 함께 식사하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비말을 동반하기에 바이러스가 퍼지기 쉬운 환경을 조성할 수밖에 없다.

‘뉴노멀’이라는 용어가 유행하는 것처럼 예배를 포함한 교회의 생태가 급격히 변할 것이라

1) “온라인”이라는 용어대신 “디지털”이라는 용어를 제목에 사용한 이유는 “온라인”이 단순히 오프라인을 벗어난 도구적 측면을 강조하는 용어인 반면에 “디지털”은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급진적 변화를 암시하기 때문이고 “예배”대신 “의례”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예배를 보다 큰 범주인 종교의례학(Ritual Studies)의 방법론과 관점에서 다루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는 “온라인 예배”와 “디지털 의례”라는 용어를 서로 보완하고 교환 가능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는 것은 모두 짐작하지만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변할 것이고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길을 잃은 느낌이다. 비대면 시대가 장기화될수록 온라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전체교인의 일부만 대면예배에 참석한다면 역동적인 기도와 찬양을 장점으로 하는 한국 개신교의 예배의 미래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신학적 지침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신학이 미래학으로 대체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팬데믹이라는 외적 요인으로 인해 교회의 생태와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회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교회는 비대면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변화를 온몸으로 앞 다투어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대면의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주장하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필자는 온라인으로 경험하는 세계와 오프라인으로 경험하는 세계 경험의 차이에 대한 인문학적/신학적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온라인 경험은 신체적 경험을 동반하지 않기에 실재(reality)를 대체하는 임시적이고 비실재적 경험이라는 기존의 생각을 재고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필자는 온라인을 통한 시각적 인식론과 가상과 현실의 경계, 나아가 디지털 세계에서의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에 대해 다루어 보려한다. 개인의 몸과 공동체의 몸,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는 총체적인 몸의 담론에 대해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있어서 확실성/비확실성, 실재/이미지, 사실/이야기, 현실/가상, 과학/환상이라는 근대주의가 만들어낸 실재에 대한 이원론적 분리의 문제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 II. 본론

### 1. 노마드 공간과 모호한 세계

바이러스로 인해 인류가 고난가운데 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친숙하고 가까이 계시던 하나님마저 멀어진 느낌이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결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거나 파악할 수 없는 분이다. 그분은 세상과 역사 안에 계시지만 동시에 세상과 역사를 초월해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확실성에 근거하지 않고 모호하다는 것을 심각하게 알려준다. 모호한 세계는 안정을 깨뜨린다. 그리고 기존의 생각의 틀을 해체한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뽑아버린다. 어릴 때 배운 기독교는 확실성을 가르치는 종교였다. 믿으면 천국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종교만큼 확실한 건 없다. 구원이란 안정된 구역에 들어가기 위해, 신자들은 목사가 구획해둔 세이프 존안에 들어가야 했다.

그러나 성서에서 예수는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확실성에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다. 그분이 말씀하신 공간도 노천이나 갈릴리 해변, 들판이었다. 늘 길 위에서 말씀하신다. 그분자신이 노마드였다. 길은 모호한 공간이다. 이동하는 공간이고 움직이는 공간이다. 안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다. 소속이 애매한 공간이고 목적이 모호한 공간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길 위에서 예수를 만난다. 성서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기독교는 우리에게 세상이 말하는 안정을 주는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모호한 공간으로 내모신다. 그 공간에서 세상이 주는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세계의 모호함 속에 그들의 자녀를 던져 놓는다.

의례학자인 로널드 그라임스(Ronald Grimes)는 의례적 감수성과 세계관과 관련해서 근대와 탈근대를 비교한다. 근대주의의 세계관에 따르면 시간은 직선적이고 공간적 확장이 실제의 척도이며, 언어는 자의적인 협정이고, 사람은 자율적인 주체이고, 진리는 전제와 사실 간의 합의로 보았다. 그러나 탈근대주의의 특징으로 삶과 예술 사이의 간격을 폐기하는 것, 쓰기와 읽기에 관해 쓰기, 놀이와 흐름을 강조하는 것, 의례에 대한 취향의 증가, 범주들을 넘나드는 것, 친밀한 공동체에 대한 갈망, 인과론적 추론에 대한 비판, 사적이고 집단적인 경험에 대한 찬사 등을 언급한다. 의례와 관련하여 이러한 유형론이 지닌 의미를 논의하면서 근대적 의례에 나타난 설화에 대한 강조를 해체적 유희, 불확정성, 특유한 복장의 퍼포먼스,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아니라는 종합적인 전체론 등에 대한 탈근대적 강조와 대비하였다.<sup>2)</sup>

근대주의에 있어서 인간의 삶이란, 특정하면서도 제한된 사회적 위치에 속하는 단위들로 구획 지어졌고, 또 그렇게 조직되어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구조주의는 현상들을 사회 체제 속으로 조직해 넣는 기저에 깔린 법칙에 집착한다. 사회 현상을 언어학적 관점과 사회 구조, 법칙, 규칙, 그리고 체계의 관점에서 묘사하는 일에 집착한다. 구조주의자인 레비스트로스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은 빅터 터너조차도 의례의 주체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모호한 시간인 “리미널리티”를 주장한다.<sup>3)</sup> 터너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구조와 반구조에 의해 사회가 움직인다고 생각한다. 커뮤니티는 일시적인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구조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구조와 반구조의 관계는 법칙이 아니라 보다 변증법적 관계이다.<sup>4)</sup>

레나토 로살도(Renato Rosaldo)와 같은 해석적 인류학자에게서 보이는 감정의 복잡한 상태에 대한 묘사나 다이내믹이 터너에게선 잘 드러나지 않고 기계적인 도식에 따른 묘사가 주로 나타난다. 의례 참가자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지에 관심을 갖지 않고 강력한 이론이 현상을 지배하는 매우 큰 약점을 갖고 있다. 레나토 로살도는 과정분석의 방법을 발전시켜 사회극(social drama)이나 사례사 연구를 했던 빅터 터너가 사례를 제시하지만 구조적 원리로 환원시키는 빈약한 결론으로 간다고 비판한다. 이는 중층적 기술(thick description), 다큐멘터리 방법, 심층적 놀이(deep play)등을 강조하였던 클리포드 기어츠에 대한 비판의 맥락과

- 
- 2) Ronald Grimes, *Ritual Criticism*, 23-26. 캐서린 벨, 류성민 역, 「의례의 이해」(한신대학교출판부, 2013), 354-355에서 재인용.
- 3) “전이 단계(liminal entity)는 여기에도 저기에도 속하지 않는 어중간한 상태이다. 전이단계는 법과 전통, 관습과 예식에 의해 질서를 갖는 구조의 중간(between 또는 betwixt) 단계이다.” 이 중간 단계는 “사회와 문화적 변화를 의례화하는 사회에서 다양한 상징으로 표현된다.” 터너에게 상징은 의례에서 의미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상징은 다양한 경험의 영역에서 발생하는데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동시에 여러 개의 지시대상을 갖고 있다. 의례의 구조 안에서 상징은 문화에 뿌리를 둔 특정한 의미를 의례 참가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의미를 문화적 기억(cultural memory)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것은 터너가 아프리카 은템부족의 추장임 명식이나 이소마 의례를 분석할 때 분명히 나타난다. Victor Turner, *The Ritual Process: Structure and Anti-Structure* (New York: Aldine de Gruyter, 1995), 94-95.
- 4) 필자가 보기에 터너는 변증법적 과정으로 인간과 사회를 설명하려는 헤겔류의 근대주의적 과욕을 부리고 있다. 그에게 구조와 반구조의 구분이 매우 명확하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가? 리미널리티와 구조사이의 관계는 터너의 구분처럼 분명하게 드러나는가? 구조와 반구조는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의 의례가 사람에 따라서 구조와 반구조의 의미로 상반되게 해석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리미널리티의 목적은 구조를 강화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반구조의 가치를 구조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인가? 세상의 사회, 경제, 정치적 질서에 다소 모호한 하나님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구조를 강화시키는가 아니면 반구조화하는가? 리미널리티가 구조를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기제로 작용하지는 않는가? 구조와 반구조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는가? 구조안에 반구조의 가치가 스며들어있는 것은 아닌가? 요사이 기업들이 제품광고가 아닌 자사기업의 이미지 광고를 한다. 이익만 바라는 회사가 아닌 사회에 봉사하는 더 큰 가치를 말하는데 결국 이는 기업의 상품판매에 도움이 된다. 이는 반구조적인 가치가 구조를 정당화하거나 구조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도 있는 사례이다.

동일하다.<sup>5)</sup> 기어츠와 터너의 경우 문화적 제어기제에 대한 지나치게 강조하는데 이는 문화적 질서가 사라진 자리에 대한 혼돈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과도한 불안 때문이라고 로살도는 비판한다.

질서와 혼돈 사이의 이분법을 넘어서서 ‘비질서’(nonorder)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한다. 비질서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그들이 의도하지도, 예측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그들의 존재조건을 변화시키는지에 주목할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그들의 삶의 형태를 변화시키는지에 관심을 갖는 한, 사회분석은 즉흥성, 그럭저럭 해나가기, 우연적 사건들에 주목해야 한다.<sup>6)</sup>

로살도에 따르면 문화의 작동을 단지 제어기제의 작동으로 환원시켜버리게 되면, 열정이나 자연스러운 장난, 즉흥적 활동 등의 현상은 관찰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게 된다. 질서를 중심으로 사회현상을 바라보면, 관찰자는 다른 계획을 짜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배제해버리게 된다. 그래서 규범적 질서 외부에 놓인 것들은 모두 무차별적인 혼돈으로 환원되어버리는 것이다.

20세기 중반에 출현하기 시작한 포스트모던 문화는 세상의 일관성과 자연을 분석하는 이성적 능력에 대한 근대의 확신에 도전했다. 모더니티는 구조와 안정성을 선호한 반면, 포스트모더니티는 불확정성, 과정, 그리고 움직임을 선호했다. 20세기 후반부터 인문학은 구조와 안정성이 아니라 불확정성과 모호함에 대해 논의해왔다. 프랑스 사상가들인 질 들뢰즈(Gilles Deleuze), 펠릭스 가타리(Félix Guattari), 자크 데리다(Jacque Derrida)와 같은 철학자들 뿐 아니라 레나토 로살도(Renato Rosaldo)와 같은 인류학자, 그리고 호미 바바(Homi Bhabha)와 같은 문화이론가들이 비슷한 주장을 해왔다.

노마드는 유목민을 의미하는데 사전적 의미는 ‘거주지를 정하지 않고 음식, 물, 목초를 따라 가축을 몰고 다니며 하는 목축’을 말한다. 노마드는 이런 유목생활을 하면서 이동생활을 하는 무리를 말한다. 노마드들은 그 어떠한 지점도 그 어떠한 길도 어떠한 공간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단지 끊임없이 영토를 벗어나면서 탈영토화 시키면서 끊임없이 영토를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이주를 위해 정해진 목표지점없이 단지 이동의 방향만을 갖는 공간내에서 노마드들은 우연적으로 배치되어 있을 뿐이다.<sup>7)</sup>

유목의 특징은 삶의 공간을 쉽게 해체하고 이동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질 들뢰즈와 펠릭스 가타리는 잘 알려진 개념적 유목민을 주장하는 학자들이다. 유목민에 대한 그들의 아이디어는 1972년에 출간된 안티 오이디푸스(L' Anti-Oedipe)에서 처음으로 나타났고, 1980년에 출간된 천개의 고원(Mille Plateaux)에서 보다 구체화된 개념으로 자리잡는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역사적 유목민에 뿌리를 둔 개념으로서의 유목주의(nomadism)와 유목민에 대한 구체적 연구로서 유목론(nomadology)을 명확히 구분한다. 유목론 (nomadology)은 “과정, 이질성, 극소성, 한계까지의 여정, 지속적인 변이”라는 특징을 갖는다.<sup>8)</sup> 이는 사회 조직이 권력의 중심에 집중되는 대신 리좀 구조로 나타난다. 유목사회는 멸종되거나 국가에 의해 대체 될 수 없다. 국가

5) 레나토 로살도/권인숙 옮김, 「문화와 진리(Culture and Truth)」(서울: 아캐넷, 2000), 73.

6) 같은 책., 75.

7) 이란표, 체웬 에르댕, “노마드적 이동공간의 현대적 적용가능성 연구 - 몽골 이동주거 게르를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8권 3호(2010), 69-79 참조

8) Gilles Deleuze & Felix Guattari, *Thousand Plateaus (Athlone Contemporary European Thinker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7), 363.

와 유목사회라는 두 형태는 서로 연속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유목민이 역사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주장한다.<sup>9)</sup> 그들은 단지 지리만 있을 뿐이다.

유목민의 이러한 특징은 음악, 건축, 게임, 기술, 수학, 과학 등 현대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감지된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근대적 보편성을 거부하는 대신 “광활한 공간, 대초원, 사막 또는 바다와 같이 끝이 없는 평원과 같은 환경에서” 탈영토화하는 사고를 갖고 질문을 제기하는 학자들이다.<sup>10)</sup> 오늘날 디지털 기술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유목민적인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국가중심의 관료주의를 벗어나 자본주의와 소비자 중심의 경제구조 내에 존재하는 리좀(rhizome)구조를 갖는다. 리좀은 변이, 확장, 정복, 포획, 분기에 의해 작용한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나무를 닮은 문화와 잡초를 닮은 문화의 차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sup>11)</sup> 탈중심화되고 비계층적이며 수평적인 다양성 속에서, 어떤 요소도 다른 요소들과 연결될 수 있는 리좀은 이질적 요소들의 공존과 결합을 통한 무한한 창조적 가능성을 암시하는 개념이다.

전 세계를 혼돈과 유목민적 공간으로 몰아가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대부분의 실물경제는 가사상태로 접어들었다. 반면에 디지털서비스 산업은 그 가치와 수익이 늘어나면서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통제 불능의 수준이었던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재촉한다. 특히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로 인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가운데 실물 부문의 공급과 수요 부문의 붕괴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국이 천문학적인 재정과 통화정책을 수행하면서 세계경제가 불안해지고 있다. 지금의 세계는 혼돈과 비질서의 세계이다. 중심을 잃고 표류하는 유목민의 세계이다. 공동체를 묶어 주던 중심이 무너지면서 개인은 파편화되고 공동체의 삶이 희미해지고 국가나 개인은 무너진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 각자의 이익을 외치는 아우성만 남은 듯하다. 비대면의 시대, 디지털로의 전환과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 2. 디지털 의례에 대한 논쟁들

현재 전 세계 교회는 대부분 디지털 세계로 진입하고 있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호주, 유럽, 아프리카, 미주 지역에서 교회는 문을 닫았지만 여전히 온라인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예배나 미사가 진행되고 있다. 예배에서의 온라인 매체의 사용에 대해 필자를 포함한 예배학자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져왔다. 신학이라는 학문의 특성과 그중에서도 예배학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진보하는 기술에 대해 의심의 눈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온라인 예배에 대하여 신학적이면서 동시에 실제적으로도 거부하는 입장이 주였다. 디지털 의례에 비판적인 입장은 기독교 의례는 디지털매체로 대체할 수 없는 교회의 고유한 관행이라는 것이다. 바이러스는 고통스러운 상실을 야기하지만, 성도들의 몸을 동반해 실제적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배의 행위는 말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성찬을 먹고 마시는 일종의 행위의 연속이다. 거리두기를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행위와 움직임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경우 계속 긴장을 끈을 놓기 어렵고 마스크와 사회의 지탄을 받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9) 같은 책.

10) 같은 책, 383.

11) 들뢰즈와 가타리는 16세기에서 20세기까지 세상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지배해 온 이미지가 “나무”였다고 주장한다. 굳건한 뿌리 위에 위계질서로 조직된 체계로서의 나무 안에서 각 부분은 유기적 전체를 이루어 하나의 나무를 이룬다. 이러한 “나무” 이미지로 사람들과 문화, 그리고 그 관계들을 이해해왔던 것이다. 네이션 D. 미첼/안선희 옮김, 「예배, 신비를 만나다」 (서울: 바이북스, 2014), 34-36 참조.

로 많은 유럽과 북미의 전통적인 교회들은 아예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예배나 미사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예배와 미사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일시적 실천이라는 주장이 있다. 현재의 유행병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체하는 것을 정당화한다는 입장이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상황이 호전되면 다시 오프라인 예배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온라인 예배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권과 국가의 교인들을 위해서 특정하게 유효한 방식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교회는 온라인 예배가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교회는 교회라는 특정장소에 물리적으로 참석하는 것만이 예배의 공동체성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 모임과 온라인 예배, 온라인 성찬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고 있다. 몸으로의 직접적인 참여만이 온전한 참여가 아니고 온라인 예배에서도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들은 바이러스로 인해 집에 머무르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사실 예배를 라이브로 중계하는 일은 비교적 쉽게 가능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의 쌍방향 소통은 어려운 과제이다. 디지털 예배를 시작한 교회들은 예배 참여자들이 상호 소통하는 방법과 교제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디지털 종교학자인 팀 허칭스(Tim Hutchings)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의 웹 사이트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일부 교회는 대화형 3D와 서비스를 실험하기 시작했고 일부 학자들은 인터넷 시대에 종교가 근본적으로 새로운 형태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sup>12)</sup> 2000년대에 온라인에서 두 가지 주요 형태의 교회가 등장했다. 첫 번째 형태는 새로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한 가상 3D 세계이다.<sup>13)</sup> 두 번째로 더 일반적인 모델은 교회가 음악 및 설교를 포함한 예배의 전통적인 요소를 온라인으로 방송하는 것이다. 새들백(Saddleback), 라이프 처치 (Life Church), 노스 포인트(North Point) 등과 같은 복음주의 메가 처치들은 온라인 방송과 더불어 주간 소그룹모임에서 대화형 커뮤니케이션을 추가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이슬람권과 같이 기독교를 금지하는 국가에 대한 선교사역으로, 온라인 교회는 쌍방향의 라디오 방송 사역을 이미 오래전에 시작하였다.

온라인 예배가 갖는 공동체의 변화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면 온라인 소통이 갖는 장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예를 들면, 온라인 공간에서는 목사와 평신도 사이의 위계질서가 쌍방향적이고 평등한 관계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바울이 꿈꾸었던 교회인 유대인이나 이방인, 자유자나 노예,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가 차별 없이 동등한 입장에서 같은 사이즈의 사이버 공간을 차지하고 동등하게 의사를 표현하거나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가 개인주의적 종교를 강화하고 공동체성을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온라인 예배는 인지적 몰입으로 이루어지고 신체적 감각이 존재하지 어렵다는 주장이다. 몸이 참여하지 않고 인지적으로만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예배에 대한 비판이다. 기독교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오감을 통한 신체적 경험인데 온라인 예배에서는 신체적 체험이 스크린을 시청하는 것으로 대체되고 다각적인 체험자체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예배에서 육체성의 상실로 인한 공동체성의 결여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12) Tim M. Hutchings, "Emotion, Ritual and Rules of Feeling in the Study of Digital Religion." In: Alpha Possanai-Inesedy and Alan Nixon, eds., *The Digital Social: Religion and Belief* (De Gruyter, 2019), 110-128

13) 이것은 2016년에 시작된 DJ Soto의 VR 교회 또는 Roblox, Minecraft 및 기타 가상 세계의 교회들이다.



성찬까지도 시행할지 고민하고 있다. 말씀과 성찬은 예배의 절정이다. 현재 온라인 예배는 설교중심의 말씀의 예전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온라인예배를 활발히 시도하는 교회들이 주로 말씀중심의 사역을 하는 복음주의권이나 침례교 또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기 때문이다.

공동 예배에서 성찬은 하나님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의해 기념되는 행위이다. 성찬의 실천은 예배의 모든 행위에 대한 언어 및 신체적 참여를 통해 수행된다. 성도들은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다. 그들은 주님의 식탁 주위에 모일 때 창조와 구속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한다. 그곳에서 그들은 창조와 구속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기 위해 제정하신 성찬예식에 참여하며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들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 평화와 정의, 잔치에서 미리 맛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분을 기대한다. 성찬은 성령의 사역이며, 말씀과 성찬, 회개, 기도와 찬양의 형태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사회적으로 형성하며 강화하고 새롭게 한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함께,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해 산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성찬은 기독교 예배의 중심이지만 온라인 성찬식 또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다른 장소에 있는 회중에게 중재된 성찬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sup>14)</sup>

성찬을 목회의 중요한 영역으로 생각하는 전통적 교회들은 종종 온라인에서 Zoom 기반 성찬식을 수행하는 데 어색함에 대해 이야기 한다. 사실 다양한 신학적 견해와 성찬을 수행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는 다양한 전통이 온라인으로 성찬을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영미권에서 온라인 성찬에 대한 논의는 찬반이 팽팽하다. 루터교 목사인 디아나 톰슨(Deanna Thompson) 교수는 자신의 저서 「고통받는 그리스도의 가상의 몸(Virtual Body of the Suffering Christ)」에서 온라인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현존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오프라인 성찬과 동일한 효과적인 은혜의 수단으로 온라인 성찬을 말한다.<sup>15)</sup> 반면에, 가톨릭 교회나 영국 국교회는 인터넷이나 화상 회의와 같은 통신 수단을 사용해 물리적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성찬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영미권의 기독교 소셜미디어에서 온라인 성찬에 관한 논쟁은 성찬 실천에 대한 질문으로서 예배의 신학과 역사에서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가정에서 사용하기 쉬운 화상 회의 프로그램을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러한 기술에 대한 친숙함으로 인해 온라인 성찬은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성찬의 실천과 신학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요구이다. 인터넷에는 온라인 성찬을 주장하거나 반대하는 기사가 있지만 대부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상황이었다. 코로나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견해를 바꾸거나 이전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4)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미국의 감리교회와 장로교회, 호주 연합 교회가 온라인 성찬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최근의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지역 봉쇄로 인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 특정 상황으로 인한 변화는 영구적인 변화가 아닌 잠정적인 것이다. 영국 교회와 가톨릭교회는 성직자에게 온라인 성찬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한 전통에서는 성찬 대신 금식이나 애도하는 시간으로 또는 기도서를 읽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

15) Deanna A. Thompson, *The Virtual Body of Christ in a Suffering World* (Abingdon Press, 2016), 53.

### 3. 디지털 의례 - 몸의 체현과 혼종적 지각

최근의 온라인 매체의 발전으로 가상 공간에서 홀로그램이나 아바타를 통해 몸의 감각이 사이버 상에서 가능해진다. 체험적 신앙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온라인에서 나타난다. 아바타들의 가상 모임과 사이버 감각을 통한 가상 공간의 예배, 사이버 성찬이 가능하다. 가상 공간에 몸이 참여하고 감각할 수 있는 장치들을 통해 몸의 활동과 몸의 지각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예배가 가상공간에서 공동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근에 코로나상황에서 홀로그램 컨서트가 열렸고 VR 기술의 발전으로 홀로그램을 통해 죽은 자와의 만남까지도 가상현실에서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은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들의 종교 의례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앞으로는 아바타들을 모여 온라인으로 새벽기도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부흥집회를 할 날이 멀지 않을 수도 있다.

문제는 온라인상의 경험이 시각적 자극에 의존한 인간의 온전한 육체적 경험이 아니라 인지적인 자극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예배신학자들이 온라인 예배를 온전한 예배로 받아들이지 못한 저변에는 바로 이러한 인식론의 문제가 저변에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물리적 공간에서 말씀을 듣고 노래를 하고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물리적 행위가 아닌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시청각에 의존한 기독교 의례를 온전하다고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실재/비실재, 물리적 공간/가상공간, 시각적 인식/통합적 인식의 이원론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에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시각적 감각과 전인적인 몸의 경험의 상관관계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온라인 공간에서 시각을 통해 들어오는 이미지가 촉각적 경험을 동반한 구체화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오프라인의 시각적/청각적 경험을 통한 지각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되고 심지어는 오프라인의 물리적/육체적 경험보다 훨씬 강력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다. 이는 경험의 주체로 하여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육체적/비육체적, 물리적/비물리적 경계를 허물게 된다. 온라인과 디지털 환경이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의 발전으로 인하여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는 텔레프레즌스(tele-presence)가 가능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sup>16)</sup> 활자-라디오-티비-인터넷이라는 매체의 발전은 이러한 주체의 경험을 특정장소에 제한시키지 않고 있다.

인간이 대상을 인식한다고 할 때 시각의 정보가 들어온다. 나의 신체는 이러한 다양한 시각정보를 통합된 이미지로 만든다. 나의 신체는 이미지를 이해하는 기반으로 '살아있는 몸'이다. 이 살아있는 몸은 인식하는 통합적인 주체로서 지각의 방식에서 혼종적(hybrid)이다.<sup>17)</sup> 이미지를 지각하는데 시각은 시각성이 촉각성의 속성으로 변환되어 그 이미지를 신체적으로 체현한다. 시각은 촉각에 의한 감성적, 정서적인 인터페이스(interface)를 유발한다. 그런 의미에서 촉각 기반의 신체와 디지털 이미지의 조화와 연계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물리적 접촉이 아닌 시각에 의해서도 촉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상현실의 신체가 실재로 내 곁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현존을 느낄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sup>18)</sup> 즉 물리적 자극

16) 가상현실은 디지털 이미지에 의해 마치 현실과도 같이 3차원적으로 구현된 사이버공간을 의미하며 시뮬레이션(simulation), 상호작용(interactivity), 인공성(artificiality), 몰입(immersion), 원격현전(telepresence)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은아, “베르그손, 메를로 폰티의 지각이론과 가상적 실재” 『미학』 제 7집(2014), 139. 참조

17) 이소영, “신체적 사유, 지각하는 이미지-신체를 통해 육화된 디지털 시공간 분석”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Media & Arts』 Vol.14, No.3, (2016), 43.

18) 이소영은 이 논문에서 렌티큘러(Lenticular)와 슬릿스캔(slit-scan)을 통해 시각적 효과가 어떻게 몸적, 정서적 차원으로 연계되는지, 더 나아가 육화된 디지털 시공간의 위상에 대해 말한다. 렌티큘러는 두 눈이 미세하게 다른 영상을 보고 이들을 합성하여 입체감이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슬릿 스캔

인 촉각과 물리적 감촉이 없는 시각 사이의 구분의 경계가 모호하며 시각적 접촉이 촉각으로 연계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각, 정서, 촉각의 신체적인 통합적 체험을 통해 감각 너머에 있는 세계와 연결된다. 이 신체적 체험은 주관적이며 시각, 정서, 촉각이 뒤섞인 혼종성을 갖는다.<sup>19)</sup>

디지털 미디어는 그 자체의 의미를 넘어서 사유의 세계로 이끄는 조건이 된다. 만지는 주체로서의 나(몸)와 만져지는 대상(디지털 이미지)사이의 촉각의 감각은 가상의 디지털 이미지를 통해 구체화 한다. 가상현실의 신체가 지금 이 순간 실제로 내 곁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현존을 느낄 수 있듯이, 디지털 이미지는 텔레-터치의 촉각적 경험을 통해 가상을 구체화로 구현해 준다.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는 감자주체인 몸과 조우한다. 디지털 매체 시대의 중심에 여전히 인간의 신체가 존재한다.<sup>20)</sup> 사이버 공간이라는 공간의 확산 그리고 원격현존(tele-presence)이라는 존재방식과 소통방식이 탈신체화나 신체의 소멸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현재 가상현실에서 몸을 떠난 탈신체를 추구하지만, 몸을 떠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상공간에서 가상의 몸이 감각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의 몸의 감각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눈을 통해 지각된 정보는 두뇌에 의해 시각경험으로 재해석된다는 사실로부터 눈과 두뇌가 상보적인 관계를 맺으며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뇌와 지각기관과 인식대상인 세계는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게 된다. 세계를 인식할 때 몸은 대상을 일대일 대응 방식이 아닌, 항상 전체로서 받아들이고, 이 몸에 의해 세계를 인식한다. 이것은 내 몸 자체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총체적인 것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세계나 상황을 포착하는 몸이 세계와 연결되어있고 몸을 통해 지각은 확장한다. 메를로 폰티에게 있어 몸은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것의 통일성, 상호감각적인 통일성을 가능케 하는 경험 가능성의 근거이며 몸이 감각자극들을 능동적으로 조직하는 것을 알려준다. 그리고 이러한 능동적 조직은 불변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변화하는 것으로 파악된다.<sup>21)</sup> 이 몸을 기반으로 몸과 세계 내의 사물들은 구조를 교환하며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디지털 세계의 경험은 몸을 배제하는 탈육체화된 경험이 아니라 몰입을 위해 수용자의 몸을 필요로 한다. 디지털 가상현실에 참여하는 몸은 도구적 몸에 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상현실의 가능성에 참여하고 몸을 통해 가상성이 현실화된다. 여기서 몸을 통한 참여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가상현실에서의 체험은 몸과 분리되는 경험이 아닌 몸이 동반되는 경험이다. 인지과정이 몸과 세계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때 가상세계와 몸의 관계를 통한 인지도 마찬가지로 있다. 몰입과 참여를 위해서는 몸과 가상세계의 상호작용이 절대적이다.

#### 4. 가상과 현실, 그 경계의 모호함

코로나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각 분야에서 디지털 세계로의 변화가 가속되고 있고 이는 가히 디지털 혁명이라 불릴만하다. 세상은 애매하고 모호한 상황들로 가득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은 혼란스러워 한다. 온라인의 경험은 비실재이고 물리적 공간의 경험만이 실재라고 주장하기에는 디지털 세계의 경험이 너무 빨리 우리의 삶에 침투하고 있다. 디지

---

은 일반 카메라로 촬영이 불가능한 원형 물체의 전체 표면을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글., 52.

19) 같은 글.

20) 같은 글., 44.

21) 메를로 폰티/ 류익근 옮김, 「지각의 현상학」(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2), 166-167 참조.

털 세계로 인해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실재와 비실재의 구분은 모호해지고 물리적 공간과 가상공간사이의 경계는 혼돈과 비질서의 영역으로 새로운 세계를 향한 창조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가상현실이라는 용어는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가상과 현실이라는 모순된 개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sup>22)</sup> 그러나 이 두 개념이 모순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가상을 실재의 부재로서 바라보기 때문이다. 가상현실이 단지 실재의 부재나 허구가 아닌 실재의 다른/새로운 측면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가장 고도화된 형태로서 가상현실에서 체험은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가로질러 더욱 역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가상공간에서 참여자는 수동적 수용자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자로 변화된다. 이 체험의 이질성과 역동성은 참여자에게 전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시공간을 제시해준다.<sup>23)</sup> 임마누엘 칸트에 따르면 인간이 사물과 사태를 경험하는 범주가 시공간이다. 시공간은 인간의 물리적 경험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다. 그런데 이 시공간성이 제한적이지 않고 유동적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경험이 펼쳐지고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디지털 체험은 물리적 실재의 모방이라기보다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실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디지털 체험의 가상성(virtuality)은 실재와 반대되는 의미의 모방이나 허구가 아니라 또 하나의 실재로서의 잠재성이다. 디지털 가상현실을 철학적으로 고찰하고자 했던 피에르 레비에 따르면 가상(virtual)은 현실(actual)과 대립되는 개념이며 실재(reality)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가상은 문제의 복합체이며 현실화를 추구하는 경향성이나 힘이다. 가상은 일정한 맥락과 상관관계 속에서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며, 가상화된다고 할 때 이는 현실감의 상실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정체성 변화를 의미한다.<sup>24)</sup> 레비에 의하면 디지털적 가상은 현실적이지는 않으나 비실재가 아닌 어떤 상태이며, 지각주체에 의해 현실화될 수 있는 실재이자 이 실재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가상현실을 이루는 디지털 이미지는 많은 정보를 내재하고 있지만 그 자체로는 완결된 의미를 갖지 못한다. 가상현실의 참여자가 감각을 수용하는 과정과 방식을 통해 비로소 의미를 산출하는 것이다. 즉 그 속에는 언제나 지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가 가상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 가상성은 감각 수용자를 통해 언제든지 다른 방식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sup>25)</sup>

디지털 이미지의 비물질적, 가상적 성질은 이 이미지들로 구성된 디지털, 혹은 가상현실 시공간의 특성으로 이어진다. 이 시공간은 물리적 세계경험에서의 의미와 달리 수용자가 개입하기 전까지는 단지 많은 정보의 흐름으로서의 가상적인 시공간성을 지닐 뿐이다. 디지털 공간은 추가나 삭제, 변형할 수 있는 정보들이 가득한 공간으로서 물리적 공간과 달리 공간의 펼쳐짐, 즉 물리적 연장성이 거의 없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공간은 넓이, 높이, 깊이를 가지지 않고 거리가 부재하기에 사실상 물리적으로는 정확한 위치나 장소를 가지지 않는다. 물리적 공간에서 사물과 사람은 타 대상의 점유를 배제함으로써 배타적 자기동일성을 유지한다면 이것은 동일성과 타자성이 동시에 존재할 가능성을 지닌 혼종적이고 경계가 없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sup>26)</sup>

22) 마이클 하임/여명숙 옮김, 「가상현실의 철학적 의미」, (서울:책세상, 1997), 180.

23) 이은아, “가상현실과 수용자 몸의 관계에 기반한 지각적, 정념적 시공간성 연구,” 「美學」 제81권 2호 (2015), 88.

24) 피에르 레비에, 디지털 시대의 가상현실, 전재연 옮김, 궁리, 2002, 19-23 참조. 이은아, “가상현실과 수용자 몸의 관계에 기반한 지각적, 정념적 시공간성 연구,” 93에서 재인용.

25) 같은 글, 95.

26) 이종관, 「사이버 문화와 예술의 유혹-사이버 공간, 영화, 미술, 건축에 대한 현상학적 사색」 (서울:문

여기에는 또한 일상적인 시간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이 공간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디지털적 시간성이 공간성과 마찬가지로 일상적/물리적 질서의 시간성과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일상적 시간과 달리 디지털적 시간은 압축, 연장, 역전, 단절, 도약이 가능하다. 이것은 정보적 시간성이며 여기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방향의 비가역적 시간의 질서는 존재하지 않고, 시간적 연속성도 존재하지 않는다.<sup>27)</sup>

이 시간성은 서로 다른 계열의 이질적 시간들의 중첩을 가능케 하며 반복되고 재규정되어 방향을 예측할 수 없는 비선형적 시간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디지털 세계의 가상적인 시간성은 그 무시간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건성과 등치된다. 그것은 가상공간에서의 참여자에 의해 생성되고 도출되는 시간이며 개별적이고 반복될 수 없는 수용자의 시간과 얽혀지고 잡종화될 가능성으로서의 시간이다.<sup>28)</sup> 디지털 시공간의 이러한 가상적인 특징들은 참여자가 개입됨으로써 비로소 현실화된다. 엄밀한 의미에서 디지털적 시공간이란 참여자와는 상관없이 객관화된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가 개입되어 지각함으로써 나타나는 체험적 시공간이라 할 수 있다.

가상현실의 참여자는 단순한 관람자가 아니라 시각, 청각, 촉각 등 총체적 지각을 활용하여 이 상황에 극도로 몰입하며 디지털 이미지들과 상호작용하는 체험자로서 이러한 시공간 구성에 다른 어떤 매체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상현실에서의 가상성은 현실적인 것이 아니지만 현실적 체험의 결과를 산출하는 실재와 비실재의 중간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참여자 지각과의 상호관련성 속에서 실질적인 체험을 구성하고, 다양한 의미를 산출할 수 있는 것이다. 가상현실의 가상성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세계와 접촉하는 인식능력인 모든 지각적 영역은 디지털 매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다.<sup>29)</sup>

가상현실 속의 디지털 이미지 역시 하나의 기술적인 요소이자 동시에 세계로서 체험 과정을 통해 인간의 몸과 통합되고, 그 몸을 통해 다시 주어진 세계를 해석하는 순환적인 과정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영화를 관람하는 관람자가 스크린을 바라보며 관람자의 몸과 또 다른 영상 속에 빠져든 몸을 보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지각이 마치 세계 속의 타인과 교류하듯 지각자와 지각대상사이에 역동적인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30)</sup> 이러한 가상현실의 경우 다양한 지각들의 통합적인 작용이 일어나고 매우 강렬한 체험을 야기하므로 몸은 지각적 작용과 함께 강한 정념을 발생시킨다. 일상적인 현실이나 기존의 영화 등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정념의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sup>31)</sup>

이렇듯 가상현실에서 체험자의 몸과 연합하는 디지털 이미지는 현실과 가상, 본질과 현상, 원본과 모사 등의 경계를 가로지르고 실재의 확장을 이루어 간다. 이는 획일적 지각방식을 해체하는 가상성의 원천이 된다. 본질적으로 동일성과 통합성을 전제하는 기존의 근대적 인지론은 가상현실의 새로운 지각방식들에 의한 해체되고 확장되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문예출판사, 2003), 21. 참조. 이은아, “가상현실과 수용자 몸의 관계에 기반한 지각적, 정념적 시공간성 연구,” 94에서 재인용.

27) 이은아, “가상현실과 수용자 몸의 관계에 기반한 지각적, 정념적 시공간성 연구,” 97-100.

28) 이러한 시간개념은 에드문드 훗설의 현상학적 시간 개념과 유사하다. 사건 자체보다 사건에 대한 기억을 통해 자아와 기억이 시간속에서 A-A1-A2-A3 로 변화해가는 기억의 현상학을 이야기한다. 앙리 베르그송과 에드문드 훗설의 이러한 체험적 시간 개념은 다음 논문에서 다루어 보겠다.

29) 이은아, “베르그송, 메를로-퐁티의 지각이론과 가상적 실재,” 『美學』 제79집 (2014), 153.

30) 같은 글.

31) 같은 글, 156.

## 5. 디지털 공간의 참여와 공동체

가톨릭교회는 1962년부터 1965년까지 행해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거룩한 예배 현장 (*Sacrosanctum Concilium*)을 발표한다. 예배 현장에서 성도들의 온전하고 적극적이고 의식적인 참여(full, active, conscious participation)를 주장한다. 개혁신교회도 20세기 들어 회중의 참여에 관심을 가져왔고 예배학의 중요 주제가 되었다. 사실 여기서 예배에의 참여(engagement 또는 participation)는 물리적인 참여를 통한 지각의 경험을 의미했다. 디지털 의례에 대한 의심과 비판은 가상세계의 참여도 참여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가상세계에서의 참여도 진정한 참여인가라는 문제는 가상세계 경험의 실재성과 현존감에 달려있다. 가상현실을 통한 현존감은 기기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그 현장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느끼는 인지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현존감이 증가하면 콘텐츠나 정보에 대한 기억과 참여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참여 즉 인게이지먼트(Engagement)는 몰입, 집중, 관여, 흥미 등 다양한 개념을 포함하는 정서적 경험이다. 미디어에 노출된 회중이 이러한 디지털 의례에 얼마나 몰입하고 집중하는가의 정도이다. 미래의 교회는 회중들에게 주관적 감정과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가상현실을 이용한 디지털 의례에 있어서 현존감이 있는 콘텐츠 제작이 필요하다.

종교계안에서도 가상현실이 차세대 디지털 플랫폼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10대들에게는 디지털 플랫폼이 일상화되어있고 메타버스(Metaverse)나 제페토(Zepeto) 같은 용어들이 낯설지 않다. 메타버스는 가상이나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나 우주(universe)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 세계를 뜻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적 측면에서 현실과 비현실 모두 공존할 수 있는 가상세계라는 의미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sup>32)</sup> 수많은 사람과 콘텐츠가 가상세계에 모이고 그 안에서 현실 세계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메타버스는 단순한 3차원 가상공간이 아니라, 가상공간과 현실이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공간이다. 말하자면 현실과 가상세계의 교차점이 3d 기술로 구현된 또 하나의 세계이다. 어떤 학자는 메타버스를 “기존의 현실 공간이었던 현실계(도구로서의 가상공간)와 현실의 것을 가상세계로 흡수한 것이었던 이상계(현실의 모사공간), 그리고 현실과 다른 상상력에 의한 대안의 가상현실인 환상계(인간의 환상과 욕망이 표출되는 공간)가 융합된 공간”이라 정의했다.<sup>33)</sup>

메타버스는 네 가지 유형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로서 현실공간에 2D 또는 3D로 표현되는 가상의 물체를 겹쳐 보이게 하면서 상호작용하는 환경을 의미한다. 라이프로그깅(Lifelogging)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을 텍스트, 영상, 사운드 등으로 캡처하고 그 내용을 서버에 저장하여 이를 정리하고,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게 한다. 구글 어스(Google Earth)와 같이 실제 세계를 가능한 한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반영하되 정보적으로 확장된 가상세계를 말하는 거울세계(Mirror Worlds)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실과 유사하거나 혹은 완전히 다른 대안적 세계를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한 가상세계(Virtual Worlds)이다. 가상 세계에서 사용자들은 아바타를 통해 현실세계의 경제적, 사회적 인 활동과 유사한 활동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sup>34)</sup>

32) 메타버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2021년 4월 21일 접속.  
<https://ko.wikipedia.org/wiki>

33) 권오현, 「메타버스 내 게임형 가상세계와 생활형 가상세계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디자인대학원, 2011), 12, 재인용.

34) 메타버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2021년 4월 21일 접속.  
<https://ko.wikipedia.org/wiki>

이러한 공간개념과 인지적 체험, 아바타와 같은 또 다른 자아, 경제와 문화의 소비공간, 공동체 개념 등의 이해가 현격하게 다른 새로운 세대에게 종교는 어떤 의미이고 교회는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기성세대에게 있어서 이러한 변화는 아직 체감되지 못한다. Z세대에게는 일상이 된 메타버스나 제페토와 같은 공간이나 단어조차도 생경하게 들릴 수 있다. 성인들에게 그 공간은 어린 자녀들의 놀이나 게임 공간 정도로 이해하지만 수년전에 개봉된 레디플레이원이라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를 보면 가상세계와 증강현실이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감이 올 것이다.

미래의 교회는 TV와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 형식이 아니라 가상현실 세계에서 사역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메타버스의 세계는 현존감을 통해 현장감과 생생함이 디지털 의례를 생동감 있게 경험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리적 세계와 가상세계는 이미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환경에서 새로운 문화와 경제 사회를 이루고 있고 미래의 세계에서 둘 사이의 엄격한 구분은 불가능해 질 것이다.

### Ⅲ. 나가는 말: 제3의 공간으로서 가상현실

디지털 세계가 다가옴으로 겪는 기성세대의 혼돈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미 물리적 공간과 가상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에 현격한 세대차가 있다. 부모의 눈에 게임에 열중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에 익숙한 Z세대에게 가상공간은 윗세대보다 더 큰 실제성(Reality)을 갖는다. 그들은 가상공간에서 더 자유롭고 더 많은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사실이 그러하다. 실제로 메타버스의 세계 안에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경제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실물경제를 뺀 수준의 가상공간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유명 가수나 아이돌 그룹은 그곳에서 팬미팅이나 콘서트를 연다. 음원을 그곳에서 발매하고 소득을 얻는다. 홀로그램이나 아바타와 같은 존재를 통해 자신의 분신에 인격성을 부여하고 감각적 체험을 하는 것은 그들의 일상이 되었다.

이렇듯 빠르게 변화하는 알 수 없는 미래의 세상 속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아마도 그 복잡함 (complexity)과 혼돈(chaos) 자체에 억지로 이름을 붙이거나 하나로 규범화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종교는 더 이상 능동적 규범을 생산하는 사회적 체계가 아니다. 오히려 디지털 공간에서 예배는 초월자의 부재와 임재, 거룩과 세속, 물리적 세계와 가상세계의 두 분리된 세계를 통합하는 감각을 훈련하는 공간이다. 이 리미널한 세상의 불명확성 (ambiguity)속에서 참여자들은 불안이나 두려움과 같은 감정과 동시에 기쁨과 희망 같은 긍정적 감정을 갖게 될 것이다. 이 감정은 두개의 분리된 세계, 거룩하고 세속적인 세계, 그리고 물리적 세계와 가상세계를 통합하는 채널이 되어 갈 것이다. 디지털 매체는 그러한 애매한 세계관을 담기에 적절한 그릇이자 그 자체가 모호한 삶의 표현이다. 디지털 매체에서 예배는 고통받고 탄식하는 새로운 세대의 이야기와 언어가 풀어내지 못하는 인지 너머의 세계를 그릴 수 있을 것이다.

문화이론가인 호미바바라는 인도 봄베이에서 태어나 하버드에서 가르치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이론가이다. 그의 학문의 여정은 줄곧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관련이 있다. 호미바바 자신은 가난한 인도에서 태어나 미국의 지식인이 되면서 스스로를 잡종 (Hybridity)이라고 부른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탐구를 자신의 학문의 주제로 삼았던 그는 1세계와 3세계, 서구와 이슬람, 식민지와 피식민지와 같은 대결구도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대립이 아니라 서로 의존적으로 얽혀있고 세상은 단순하지 않고

엮혀있고 훨씬 복잡하다는 사실이다. 호미바바에 따르면 이원론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단순화 시킨다. 선과 악, 빛과 어둠, 1세계와 3세계, 서구와 이슬람. 우리는 세계가 이렇게 분명히 양분화 되어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다.

이는 온라인/오프라인, 실재/비실재, 물리적 공간/가상공간의 구별에도 해당된다. 서로가 복잡하게 엮혀있고 서로의 삶에 깊이 침투해 살아가는 현실의 세계를 이원론은 폭력적으로 양분화 시킨다. 추상적인 논리는 논리를 넘어서 세상을 갈라버리는 폭력으로 작용한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두려워하며 포비아(Phobia)에 갇혀 살아간다. 그러나 세상과 인간은 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체이다. 가상공간의 나와 물리적 공간의 나는 서로 교류하고 지각을 공유하고 있지만 어느 경험이 실재이고 어느 쪽의 경험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기 어렵진다.

확실성/비확실성, 실재/이미지, 사실/이야기, 현실/가상, 과학/환상의 경계의 해체는 혼돈을 야기한다. 그러나 미래를 위해 구조와 공동체 사이의 전이가 필요하다. 때로 이러한 전이 단계에서 혼돈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혼돈”이라는 단어는 세계의 내재적이고 피할 수 있는 결함을 개념화하는 데 사용된다.<sup>35)</sup> 새로운 요소는 세계관에 즉시 흡수 될 수 없다. 무질서에서 이 세계의 일부로 편입되려면 혼돈이라는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이 과도기적 단계가 성공적으로 해결되면 세계에 대한 이해가 바뀔 것이다.<sup>36)</sup>

혼돈은 심각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무시되고 사람들이 그것이 표면에 가져 오는 현실에 대처하기를 거부 할 때만 위험하다. 혼돈 속에서 건설적으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다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보다 의미 있고 포괄적인 조화를 위해 부조화가 문제를 열도록 허용해야 한다.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혼돈을 견뎌낸다.

이 시공간은 메트로-폰티가 경험으로서의 공간이라 여겼던 제3의 공간처럼 객관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장소나 인식에 의해 구성된 곳이 아닌 주체와 세계가 만나는 제3의 시공간이자 현실과 가상이 만나는 혼합현실 시공간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제3의 시공간 혹은 혼합현실 시공간을 구성하는 몸은 일반적인 몸이 아닌 기술로서 확장된 몸이다. 시공간은 지각적 시공간이되 일상적 지각이 창출하는 시공간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이 지각적 시공간은 애초에 가상성으로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이미지에 기반한 시공간이며, 확장의 한계를 규정할 수 없는 시공간이고, 그럼으로써 지각 능력을 확장할 가능성을 지닌 시공간이다.<sup>37)</sup>

미래의 예배는 물리적 공간 안에서 드러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상의 시공간에서 만나는 몸을 통한 공동체가 모든 종류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반응하는 예배를 포함해야 한다. 디지털 예배는 예전적 *Ordo*를 해체할 가능성을 배제하여 시각적 감각에 기초한 전인적 감각과 적극적 참여를 통해 초기 교회의 의례적 요소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고대의 예식을 디지털 플랫폼에 맞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창조해 내야 한다. 고대의 비주얼이나 기도단이나 성찬과 도유식, 아픈 자와 고통 받는 자를 위한 치유기도와 같은 초기교회의 전통도 디지털 매체 안에서 부활시켜야 한다.

디지털 예배는 자신들의 믿음을 표현하거나 성서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있어 창조적인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상공간에서의 미술, 음악, 시, 사진, 춤, 그리고 퍼포먼스 등

35) Stuart Chandler, “When the World Falls Apart: Methodology for Employing Chaos and Emptiness as Theological Constructs,” *Harvard Theological Review* 85(1992): 467-491. 480

36) 같은 글., 478

37) 이은아, “가상현실과 수용자 몸의 관계에 기반한 지각적, 정념적 시공간성 연구,” 101.



의 장르뿐만 아니라 가상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들을 포함한다. 혼돈과 어둠 속에서 부르는 희망의 노래, 온몸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춤,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 비주얼과 이미지, 인간의 추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언어와 상징들, 이 모든 인간의 움직임이 디지털 의례 안에서 표현되고 고백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예배는 소수의 안수 받은 전문가에 의한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회중들 스스로 서로 묻고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예배는 수동적인 관람이 아니라 보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여 예배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공동체성 약화에 대한 우려는 성령의 속성인 편재성으로 인해 해결될 수 있다. 진정한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신비적 차원이 열리고 전 세계 성도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보편교회를 이룬다. 자율적 주체로서 개인들이 온라인에서 서로 공감하고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공동체성은 물리적 집단성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교통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유로운 영, 성령은 어디에서 어디로 부는 지 알 수 없는 영이다. 예측할 수 없고 인간의 경험을 뛰어 넘어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영이다. 애매하고 모호한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잣대를 그어 세상을 이원화시키고 자신은 세이프 존에 머물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인간의 지독한 습성에서 자유롭게 하실 성령님을 기다린다.

*Veni Sante Spiritus!!*

## [참고 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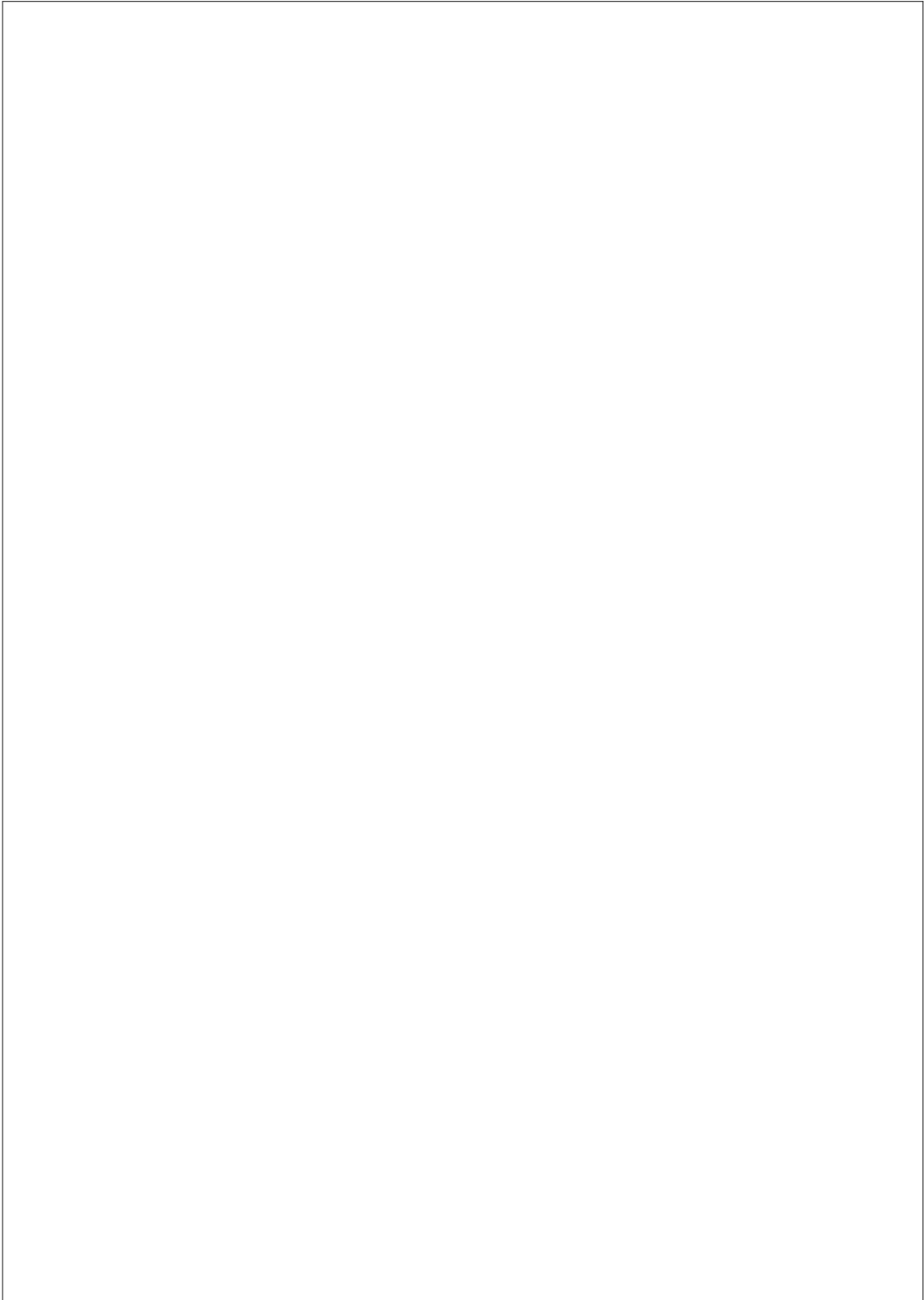
- 네이션 D. 미첼/ 안선희 옮김, 「예배, 신비를 만나다」. 바이북스, 2014.
- 레나토 로살도/ 권인숙 옮김, 「문화와 진리(Culture and Truth)」. 아카넷, 2000.
- 마이클 하임/ 여명숙 옮김, 「가상현실의 철학적 의미」. 책세상, 1997.
- 메를로 폰티/ 류의근 옮김, 「지각의 현상학」. 문학과 지성사, 2002.
- 이란표, 체웬 에르댕, “노마드적 이동공간의 현대적 적용가능성 연구 - 몽골 이동주거 게르를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8권 3호(2010).
- 이소영, “신체적 사유, 지각하는 이미지-신체를 통해 육화된 디지털 시공간 분석”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Media & Arts」 Vol.14, No.3, (2016).
- 이은아, “가상현실과 수용자 몸의 관계에 기반한 지각적, 정념적 시공간성 연구,” 「미학」 제 81권 2호 (2015).
- 이은아, “베르그손, 메를로 폰티의 지각이론과 가상적 실재” 「미학」 제 79집(2014).
- 이종관, 「사이버 문화와 예술의 유혹-사이버 공간, 영화, 미술, 건축에 대한 현상학적 사색」. 서울: 문예출판사, 2003.
- 캐서린 벨/ 류성민 역, 「의례의 이해」.한신대학교출판부, 2013.
- 피에르 레비/전재연 역, 「디지털 시대의 가상현실」. 궁리, 2002.
- Thompson, Deanna A. *The Virtual Body of Christ in a Suffering World*. Abingdon Press, 2016.
- Deleuze, Gilles. and Felix Guattari, *Thousand Plateaus* (Athlone Contemporary European Thinker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7.

- Chandler, Stuart. "When the World Falls Apart: Methodology for Employing Chaos and Emptiness as Theological Constructs," *Harvard Theological Review* 85(1992).
- Hutchings, Tim M. "Emotion, Ritual and Rules of Feeling in the Study of Digital Religion." In: Alpha Possanai-Inesedy and Alan Nixon, eds., *The Digital Social: Religion and Belief*. De Gruyter, 2019.
- Turner, Victor. *The Ritual Process: Structure and Anti-Structure*. New York: Aldine de Gruyter, 1995.

▶ 질의응답(좌장1):

**류원렬 박사**

(평택대학교 피어선신학대학원 교수, 한국설교학회 부회장)



## ■ 논문발표2

### ▶ 발제자1:

####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구축: 새로운 일상에서의 예배 실천을 위한 신학적 목회적 고찰”

주종훈 박사

(총신대학교 교수, 한국예배학회 회원)

### I. 서론

‘뉴노멀’이라 불리는 새로운 일상<sup>1)</sup>은 신앙과 삶의 형성 과정에 새로운 접근과 실천을 요구한다. 이것은 전통과 유산을 고수하거나 새로운 실험과 혁신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어느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모든 교회가 반드시 반응해야 하는 과제로 주어지고 있다. 기독교 예배는 교회의 이러한 대응과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 가운데 하나다. 아울러 예배의 구성과 방식을 새롭게 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갱신 운동<sup>2)</sup>과는 달리 외적 요인에 의해서 불가피한 변화와 새로운 실천을 요구받고 있다. 일정 인원이 함께 모이는 것에 제한을 받고 미디어 기술의 발전을 활용한 가상공간의 예배에 참여하는 경험<sup>3)</sup>은 가장 두드러진 변화와 실천 현상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가상공간의 예배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또는 ‘전통적 모임 방식의 예배를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라는 현상적 질문보다 훨씬 복잡한 질문과 과제를 이끌어 낸다. 곧 ‘새로운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받아들이는 실천의 구성과 방식에 예배의 본질을 어떻게 반영하고 구현할 것인가?’ ‘신앙의 정체성을 제시하는 예배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가?’ ‘특정한 공간에서의 모임이 없어도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가능한가?’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예배에서 구성요소의 변화와 실천의 새로운 강조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등 더욱 신학적이고 목회적 고찰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제기한다. 이 글은 전적인 변화와 반응을 요구하는 ‘뉴노멀’ 시대의 예배 실천에서 주어지는 현상과

1) 사회적 거리두기, 신체적 거리두기, 나라간 이동시 바이러스 면역 또는 여행 서류 외 추가된 증명의 요구, 재택 근무, 더욱 가속화된 로봇시대 등은 뉴노멀 시대에 경험하는 새로운 일상과 현실이다.

2) 1960년대 초반 이후 범교단적 차원에서 진행된 예배 갱신은 문화적 적실성 또는 전통의 회복이라는 의도적 접근에 의한 새로운 실천을 추구해왔다. 이것은 외부에서 주어진 강력한 요구보다는 갱신의 논리에 따른 각 교단과 전통에서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주도해온 측면이 더욱 강하다. 이런 면에서 이전의 예배 갱신은 다양하고 복잡하고 서로 다른 방식의 실천을 이끌어 냈지만, 오늘날 주어진 현실은 이러한 내부적 동기에 의한 다양한 실천의 가능성과 갱신이 제한되고 있다. Swee Hong Lim and Lester Ruth, *Lovin' On Jesus* (Nashville: Abingdon, 2017), 10-1 그리고 Bryan Spinks, *The Worship Mall* (New York: Church Publishing, 2011) 183-211 참조.

3) 물론 가상예배는 팬데믹으로 인해 새롭게 주어진 현상은 아니다. 이미 미디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2000년대 이후 예배 공동체들이 오프라인 예배와 함께 동시에 실천해 온 방식이었다. 이전에는 의도적으로 또는 실험적으로 시도한 것이라면 이제는 거의 모든 예배 공동체가 수용하는 하나의 실천으로 나타나고 있다. 팬데믹 이전의 온라인 예배에 대한 사례와 심도있는 분석에 대해서는 Heidi Campbell and Michael W. DeLasmutt, “Studying Technology and Ecclesiology in Online Multi-Site Worship”, *Journal of Contemporary Religion*, 2014, Vol. 29, No.2: 267-285 참고할 수 있다.

특징을 규명하고 그와 관련한 목회적 대응 과제를 신학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로, 뉴노멀 시대에 예배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그와 관련한 현상이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지 파악한다. 둘째로,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예배 실천이 담아내고 있는 목회적 과제들과 그와 관련한 신학적 주제들을 규명하고 고찰한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뉴노멀의 상황에서 예배의 본질과 의미를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목회적 원리와 방향을 제시한다.

## II. 뉴노멀 시대의 예배 변화

2019년을 기점으로 새롭게 주어진 삶의 변화는 예배의 전환과 새로운 실천도 촉발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Walter Brueggemann이 언급한대로 이전의 경험을 회복시키기 위한 기대와 갈망을 담아내는 실천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에서 불가피하게 조절해야 하는 변화를 요구한다.<sup>4)</sup> 끊임없이 갱신을 추구하던 교회들만 아니라 지역과 교단 그리고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독교 공동체가 새로운 예배 실천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예배의 본질과 의미에 근거한 신학의 반영으로서 변화와 갱신을 시도한 노력<sup>5)</sup>과는 달리 불가피하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새로운 실천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변화를 이끄는 요인이 외부에서 주어지더라도 기독교 예배가 신학을 반영하고 신앙을 형성하는 실천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sup>6)</sup> 일상의 새로운 전환과 변화를 추구한 뉴노멀은 예배의 실천과 관련해서 시간의 흐름과 순환적 주기를 강화시키고, 공간의 경험에 새로운 변화를 초래하며, 예배 구성요소들에 대한 참여 방식에도 예배자들의 참여 제한에 따라 새로운 강조점을 부각시켰다.

첫째, 뉴노멀 시대는 기독교 예배의 오랜 실천에서 주어진 시간의 반복적 순환 또는 리듬에 대한 참여 방식을 강화시키고 있다. 지난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독교 예배 실천의 가장 중요한 측면 가운데 하나는 7일 단위로 구성된 시간의 반복적 순환에 참여하는 것이다. ‘안식과 예배’ 그리고 ‘일상과 일’을 삶의 구조와 구성 방식으로 간주하고 이 둘 사이의 순환적 반복을 강조해 왔다.<sup>7)</sup> 하지만 뉴노멀 시대는 공간의 직접적인 이동에 제한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실천하는 예배 참여<sup>8)</sup>에 새로운 전환을 초래했다. 곧 함께 모이는 장소와 분리된 시간의 주기만을 더욱 강화된 방식으로 수용하며 예배에 참여하게 한다. 뉴노멀 시대에 안식과 예배를 위한 시간 구분과 삶의 리듬은 단지 유대교와 구분하기 위한 초대 교회의 시간 개념, 새로운 날의 시작 또는 완성으로서의 마지막 날과 같은 의미에 대한 논쟁

4) Walter Brueggemann, *Virus as a Summons to Faith: Biblical Reflections in a Time of Loss, Grief, and Uncertainty* (Eugene: Cascade Books: 2020), 60.

5) William Abraham, *Logic of Renewal* (Grand Rapids: Eerdmans, 2003), 93-110에 따르면 정교회의 Alexander Schmemmann이나 월로우크릭 교회 구도자집회의 신학적 기반을 제공한 Gilbert Bilezikian에 이르기까지 갱신과 변화는 신학의 반영 또는 연결과 직접 관련이 있다. 칼빈에게서 살펴볼 수 있는 종교개혁의 예배 갱신과 변화 역시 신학적 의도와 필요에 의해서 구현된 것이다. John Calvin, “the Necessity of Reforming the Church,” in *Calvin’s Tracks*. Vol. 1 (Eugene: Wipf and Stock Publishers, 2002), 151-153.

6) 이런 점에서 예배가 신앙 그리고 신학과의 관계 고찰(*lex orandi, lex credendi*)이라는 오래된 예배 신학의 주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구체적인 접근과 관계 형성의 새로운 유형과 과제들이 주어지면서 예배 신학의 고찰 주제가 더욱 복잡하게 발전하게 된다.

7) Matthew Kaemingk and Cory Willson, *Work and Worship: Reconnecting Our Labor and Liturg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20), 17-8. Jean Jacques von Allmen, *Worship: Its Theology and Prac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5), 55.

8) Nicholas Wolterstorff, “The Theological Significance of Going to Church and Leaving and The Architectural Expression of That Significance,” *Hearing the Call: Liturgy, Justice, Church, and World* (Grand Rapids: Eerdmans, 2011), 228.

과 다른 측면을 강조한다.<sup>9)</sup> 구체적인 장소에서 함께 모이는 것이 제한될 때 시간은 기독교 예배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기준이 된다. 예배를 위해 정해진 물리적 공간으로서 장소에 모이는 것에 대한 요구와 강조는 약화될 수 있지만,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목회적 권면과 초청은 상대적으로 강화된다. 비록 구체적인 이유는 다르지만 모임의 제한을 받았던 17세기 영국 자유교회의 상황과 경험에서도 예배와 관련한 시간의 강화를 살펴볼 수 있다. 국교회의 예배를 거부한 자유교회 전통의 신자들은 모임의 제한을 받았다.<sup>10)</sup> 하지만 장소에서의 모임 제한이 예배 자체를 중지하게 하거나 상실시키지는 않았다. 오히려 가정 또는 가능한 소규모의 모임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주일을 예배 실천의 주요 원리로 발전시켰다. 약 3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공동체가 한 장소에 모이는 공동예배의 제한을 받았을 때 강조된 현상은 예배의 시간을 엄격히 규정하고 준수시키는 것이었다.<sup>11)</sup> 비록 팬데믹이라는 상황에서 비롯된 모임의 제한이지만 오늘날 뉴노멀 시대에 주어진 상황도 17세기 영국 비국교도들의 공동예배 제한 경험과 유사하다. 곧 예배의 시간을 새롭게 강조한다. 주일의 반복적 순환을 거부하거나 파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용하며 예배의 실천을 위한 기준점을 제시한다. 이처럼 공동예배를 위한 모임의 제한에 따른 장소 이해와 수용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시간성을 새롭게 부각시킨다. 제한된 소수의 모임에 의한 예배이든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 방식의 예배이든 시간의 리듬을 따라 참여하는 예배의 규칙성은 뉴노멀 시대에 더욱 선명하게 주어지는 현상과 특징이다.

둘째, 뉴노멀 시대의 예배 실천에서 공간의 경험은 새로운 방식으로 주어진다.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 전체가 같은 장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실천이 자연스러운 경험에서 멀어지고 있다. 공동예배의 장소를 중심으로 구심점을 마련하고 세상 또는 일상의 영역으로 향해 가는 원심적 방향의 이동이라는 순환적 구조의 참여와 경험은 현실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 구약의 ‘성전’은 예배를 위한 모임의 장소를 의미하는 성경적 표현인데 이러한 언어 사용이 현실적으로 제약을 받는다. 곧 비록 시의 언어이지만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올라가자”(시편 122:1) 또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시편 84:1)와 같이 예배의 장소에서 직접 고백하는 표현들이 어색하거나 직접적인 연결성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sup>12)</sup> 이와 아울러 더욱 직접적이고 영향력 있게 주어지는 현상은 교회의 건물과 예배의 공간에 대한 이해와 수용 방식에 나타난 전환이다. 건물은 예배의 구성과 진행 그리고 참여의 방식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거룩한 영역을 구분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것은 예배 공간의 활용에서 중요한 과제다.<sup>13)</sup> 시각적 장치(visibility)와 음향 시설과 방식(audibility)도 공간과 관련한 예배 참여에서

9) 지금까지 예배와 관련한 안식일과 주일의 핵심 논의는 유대교와의 구분 그리고 주간의 첫날과 마지막 날로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신학적 의미를 구현하는데 주력해왔다. Benjamin Gordon-Taylor, “Time”, *The Study of Liturgy and Worship*, edited by Juliette Day and Benjamin Gordon-Taylor (Collegeville: Pueblo, 2013), 118.

10) ‘Act of Uniformity’(1662)에 의해 국교도의 예배를 거부하는 자들은 당시 5명 이상의 모임에 제한을 받았고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예배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Michael Watts, *The Dissenter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73.

11) 북미에 정착한 청교도들이 모든 교회력을 거부했으나, 주일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 확신을 갖고 실천을 통해 계승 발전시킨 것은 제한된 상황에서도 시간에 대한 수용과 실천에의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다.

12) Nicholas Wolterstorff는 이러한 고백이 지난 2000년 기독교 예배 역사에서 자연스러운 노래, 기도, 고백이었다는 것을 장소와 예배의 고찰에서 강조하며 언급한다. Wolterstorff, “The Theological Significance of Going to Church and Leaving and the Architectural Expression of That Significance,” 228-9.

13) Nigel Yates, *Liturgical Space* (New York: Routledge, 2016), 3-7.

중요한 요인들이다.<sup>14)</sup> 하지만 넓은 장소에 소규모의 제한된 사람들이 모여서 참여하는 예배 또는 기술 장비를 활용한 가상공간의 예배는 시각적 음향적 요인들을 이전과 다르게 수용하고 경험하게 한다. 특히 가상공간의 예배에서는 스크린에 비추어지는 것에 시각이 고정되고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음향에만 반응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가상공간의 예배 참여는 공간에 개입하는 방식도 이전과는 다른 경험으로 이끈다. 예배 공간을 향해 거치게 되는 주차장, 교회 출입문, 예배당과 구분된 공간의 이동, 예배당 안으로의 이동과 움직임 그리고 앉고 일어섬 등과 같은 공간과 직접 연결된 경험들이 사실상 축소되거나 사라지고 있다. 공간과 관련한 이러한 새로운 경험들은 예배에서 장소(place)보다는 예배의 직접적인 활동 또는 구체적인 실천에 집중하게 한다. 동시에 생활과 삶의 공간으로서 가정이 예배의 공간(space)으로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되는 현상을 이끈다. 가정은 디지털 장비와 기술의 직접적인 경험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 되고 있으며<sup>15)</sup> 예배자들은 삶의 공간과 공동예배의 공간을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수용한다.

셋째, 예배의 시간과 공간의 경험과 참여 방식에 새로운 변화를 초래한 뉴노멀은 예배의 구성요소에 대한 고찰과 참여 방식의 새로운 강조점을 부각시킨다. 이것은 예배 구성요소에 대한 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제한된 소수의 모임으로 진행되는 예배 또는 온라인 방식의 예배 모두 이전에 전통적으로 수용해온 구성요소와 관련한 차이가 선명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Dom Dix의 예배 구성 원리에 따라 하나의 고정된 규율에 근거한 예배 구성을 지지하든, Paul Bradshaw의 의심의 해석에 따라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발전한 예배 구성을 지지하든 예배의 구성요소로 말씀의 읽기와 선포, 기도와 음악, 성찬과 헌금 등을 포함하는 것은 여전히 지속된다.<sup>16)</sup> 다만 차이가 주어지는 것은 예배 구성요소들에 대한 실천과 그 참여 방식이다. 디지털 방식의 예배 구성과 진행에서는 말씀을 읽는 것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회중 전체가 참여하는 방식에 제한을 받는다. 사회자와 회중들의 교독은 가능하지만 다른 예배자들의 음성을 듣는데 제한이 주어진다. 설교 역시 회중들과의 상호 작용에 의한 반응과 참여보다는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 방식에 의존하게 된다. 성찬의 경우 함께 같은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직접적인 경험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이전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방식들을 고안하거나 일시적으로 제한하기도 한다.<sup>17)</sup> 음악의 경우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이끌어낸 예배 구성요소이다. 감정을 표현하거나 예배자 전체를 하나로 연합시키는 강력한 구성요소인 음악<sup>18)</sup>은 제한된 인원의 모임 또는 가상공간의 예배 방식에 의해서 이전의 기능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직면한다. 다른 예배자들의 음성을 들으며 함께 고백하고 표현하는 음악의 독특한 경험과 참여가 어

14) Christopher Irvine, "Space," in *The Study of Liturgy and Worship*, 110-112.

15) 이른바 스마트홈(smart home)이 모든 전자, 디지털 기술 장비와 관련한 소비에서 핵심으로 부각되었다. 개인과 가정의 삶을 지원하고 이끌어가는 디지털 장비의 수용과 발전은 예배공간의 변화된 경험을 더욱 가속시킨다. 전세계 스마트홈의 발전과 규모에 대한 엄청난 영향력에 대해서는 Shoshana Zuboff, *The Age of Surveillance Capitalism: The Fight For a Human Future at the New Frontier of Power* (London: Profile Books, 2019), 6 참조하면 도움이 된다.

16) Dom Dix, *The Shape of Liturgy* (New York: T&T Clark, 2005)와 Paul Bradshaw, *The Search for the Origins of Christian Worshi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에 따르면 예배의 구성의 형성 원리는 다르지만 예배 구성요소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곧 말씀, 기도, 성찬, 봉헌, 음악 등의 기독교 예배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립이나 논쟁이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구성요소들의 구성 방식과 발전에 대한 입장과 견해 차이를 지닌다.

17) 최근에 목회적 분별력과 융통성에 따른 온라인 성찬의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실천은 교단과 전통에 따라 입장이 다르고, 개교회의 리더십에 의해 결정하기 때문에 그 자체의 정당성을 논하는 것은 이 글의 논지에서 다루기 어려운 주제가 된다.

18) Calvin Stapert, *A New Song for an Old World: Musical Thought in the Early Church* (Grand Rapids: Eerdmans, 2007), 26.

렵게 되었다. 이러한 제한은 음악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삶을 형성하는 요소로 수용하고 있는 현대 예배자들에게 적지 않은 혼동을 안겨주고 있다.<sup>19)</sup> 이처럼 예배 구성요소의 새로운 추가나 생략이 아니라 지금까지 각 예배 공동체에서 친숙하게 구성하고 실천해온 방식들이 새로운 측면으로 부각되거나 약화되는 변화를 맞이하면서 그에 부합한 목회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기독교 예배는 각 예배 공동체의 구체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일반화된 정리와 평가는 적실성을 갖기 어렵다. 그럼에도 모두에게 예외 없이 새로운 변화와 반응을 초래하는 뉴노멀 시대의 예배는 위에서 정리한 세 가지 현상을 모두 드러낸다.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새로운 경험 그리고 예배 구성요소들에 대한 새로운 측면의 부각과 제한된 경험에 따른 변화는 그에 부합한 신학적 목회적 대응을 요구한다.

### Ⅲ. 뉴노멀 시대 예배의 변화에 대한 반응 방식과 대응 원리

뉴노멀 시대에 불가피하게 주어진 예배의 변화와 새로운 현상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갱신과 개혁의 결과로 주어진 것은 아니다. 이전의 예배 혁신 또는 갱신과는 달리 외부로부터 주어진 강력하고 피할 수 없는 요인들에 의한 변화 현상에 더 가깝다. 시간에 집중하는 안식과 예배의 실천을 강화하고, 장소 중심의 모임에 의한 예배 경험을 제한된 방식 또는 기술에 의한 가상공간의 참여로 전환하고, 말씀, 성찬, 기도, 음악 등의 구성요소를 유지하되 새로운 또는 제한된 방식의 참여를 하는 것으로 주어진 예배 현상은 신학적 입장, 목회적 관점, 그리고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르게 반응한다.

이러한 반응 방식 가운데 선명하게 나타나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 하나는 뉴노멀 상황에서 주어지는 불가피한 예배 실천을 한시적 현상으로 간주하고 이전의 전통적 방식으로의 회귀를 지향하는 것이다. 특히 성찬과 음악에서 주어지는 제한된 경험<sup>20)</sup>을 벗어나 예배자들이 함께 같은 장소에 모여 실천하는 것을 예배 회복의 가장 중요한 지향점으로 삼는다. 공동체가 같은 장소에 함께 모이는 것은 성찬을 포함한 초대교회 예배의 구성에서부터 중요한 요소이고 공동예배의 기초가 되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이다.<sup>21)</sup> 그런데 모이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한 가지 고려할 것은 모임 자체가 예배의 참된 경험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측면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이다. Nicholas Wolterstorff는 장소가 그 자체로 거룩하거나 모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고 공간 또는 장소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언급한다.<sup>22)</sup> 이런 점에서 모임 자체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필요성에 대한 강조를 하더라도 예배 실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19) 음악의 경험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 참여와 삶의 형성에 대한 강조는 현대예배의 중요한 현상과 특징이고 예배 실천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영역이다. David Taylor, *Glimpses of the New Creation: Worship and the Formative Power of the Arts* (Grand Rapids: Eerdmans, 2019), 88-94 그리고 Jeremy Begbie, *Redeeming Transcendence in the Arts: Bearing Witness to the Triune God* (Grand Rapids: Eerdmans, 2018), 20-2.

20) 직접 함께 먹고 마시는 경험과 같은 장소에서 함께 악기 연주와 음향효과를 사용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과 달리 온라인 방식으로 참여하는 성찬과 시청 방식을 통한 제한된 예배 음악의 경험을 뜻한다.

21) 사도행전 2:42의 공동체 예배 실천은 세례를 통한 입문 곧 공동체로서의 직접적인 참여를 전제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히브리서 10:25의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에 대한 경고는 모임 자체의 성경적 기초를 강조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Andrew McGowan, *Ancient Christian Worship*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6), 1-8 참고.

22) Wolterstorff, “The Theological Significance of Going to Church and Leaving and the Architectural Expression of That Significance,” 235-6.



어떻게 경험하는지 그리고 공간의 거룩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와 같은 신학적 고찰을 시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다른 하나의 입장은 뉴노멀 시대의 예배 현상을 새로운 가능성과 갱신의 기회로 받아들여 적극 수용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공동체 전체가 예배 장소에 함께 모일 수 없는 제한적 상황이지만 미디어 기술과 장비를 활용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공간을 연결한 예배의 활성화에 주력하는 것이다. 사실 온라인 예배는 최근 일 이년 전부터 갑작스럽게 그리고 새롭게 주어진 현상은 아니다. 이미 21세기가 시작할 무렵부터 오프라인에 기반을 둔 공동체가 온라인을 이용한 공동체 형성과 예배 실천을 시도하기 시작했다.<sup>23)</sup> 이미 10여 년 전부터 온라인 방식의 예배 또는 영상 송출 방식의 예배는 북미와 한국에서 실천해오던 방식이다.<sup>24)</sup> 이런 이유로 이전부터 온라인에 기반을 둔 예배를 오프라인과 동시에 실천해온 교회들은 모임 제한에 의한 예배의 전환에 큰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더욱 강화시킨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가 단순히 더 많은 예배자들 또는 교회 구성원들간의 연결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디지털 문화를 교회 사역에 수용한 예배 갱신의 대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교회가 예배와 관련해서 디지털 시대를 수용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현상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고<sup>25)</sup>, 모임의 제한 방침을 수용해야 하는 입장에서 예배 실천을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이고 유용적인 측면이다. 하지만 이러한 예배 실천은 오프라인의 경험을 단지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예배는 단지 신앙의 내용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신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실천이다. 곧 경험의 방식으로 실천이 신앙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sup>26)</sup> 또한 미디어 방식의 신앙 경험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서 삶의 구성과 참여 방식을 형성하는 강력한 생태적 역할을 제시한다<sup>27)</sup> 아울러 미디어는 주체적으로 인간의 삶을 형성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지배력을 지니기까지 한다.<sup>28)</sup> 이런 점에서 미디어 방식의 접촉과 참여가 어떻게 신앙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고찰을 요구한다. 곧 삶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예배 실천에서 미디어를 수용하는 것은 새로운 상황에서

23) 대표적인 예가 미국 Florida 주의 Northland Community Church이다. 1972년 세워진 독립교단의 교회인데, 1998년부터 교회 건물 중심의 사역과 예배를 넘어선 온라인 예배와 공동체 형성에 주력하고 있는 교회이다. 특히 2001년에 한 장소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공동체 개념을 확대해서 이른바 “distributed church”를 발전시켰고, 2006년부터는 웹캐스팅을 사용한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사역을 강화시켰다. <https://northlandchurch.church/worship/>(2021년 2월 17일 접속)에 따르면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활성화하고 있고, 온라인 예배자들을 위한 온라인 목회자들의 사역도 지속되고 있다.

24) 비록 미디어 기술에 대한 입장이 다르지만 가상공간의 예배 현상은 10여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Brian Fuller, “Practicing Worship Media Beyond Power Point”, *Understanding Evangelical Media: the Changing Face of Christian Communication*, edited by Quentin Schultze and Robert Woods, Jr. (Downers Grove; IVP, 2008), 98-110. 한국의 몇몇 교회들에서도 예배 영상 송출과 아울러, 서로 다른 지역의 예배 공동체가 같은 설교를 영상으로 시청하는 방식의 예배를 이미 진행해오고 있다.

25) Marcel Bernard, Johan Cilliers, and Cas Wepener, *Worship in the Network Culture* (Leuven: Peeters Bvba, 2014), 1-8.

26) 신앙 실천으로서의 예배가 신앙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측면은 이미 James Smith가 예배의 문화적 측면, 문화의 예배적 측면을 논하면서 강조했다. James Smith, *Desiring the Kingdom*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9), 17-36 참고.

27) 미디어는 인식의 내용을 단지 새로운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접하고 습득하는 방식을 새롭게 조정하고 참여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삶의 방식도 새롭게 형성시킨다. Neil Postman, *Amusing Ourselves to Death* (New York: Penguin Book, 1985), chapter 2. Media as Epistemology: 16-29.

28) John Dyer, *From The Garden to the City: The Redeeming and Corrupting Power of Technology* (Grand Rapids: Kregel, 2011), 175.

의 대안이기보다는 더욱 심도있는 신학적 고찰을 요구하는 대상으로 부각된다.<sup>29)</sup>

이상에서 간략히 살펴본 것처럼 뉴노멀 시대의 예배 실천 과정에서 주어진 과제를 수용하는 두 주된 방식에는 각각의 장점과 고려할 점을 지니고 있다. 공동체의 직접적인 모임에 기반을 둔 예배 실천을 지향하지만, 모이는 것 자체 또는 모임의 장소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새롭게 고찰해야 한다. 반면에 디지털 기술로 가능하게 된 온라인 예배의 수용과 활성화를 통해 모임의 제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지속할 수 있고 새로운 경험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미디어 기술과 장비가 단지 도구를 넘어서서 인식과 삶의 형성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바람직한 반응은 “이전의 전통 회복을 위한 돌이킴과 새로운 기술의 수용을 통한 혁신 가운데 어떤 입장을 택할 것인가?”보다 “새롭게 주어진 뉴노멀의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형성하고 지속하는 예배의 실천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예배의 실천은 기독교 신앙 형성과 직접 관련된 중요한 과정이다.<sup>30)</sup> 새로운 시대에 주어진 예배의 환경과 실천을 통한 신앙 형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와 방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화된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구축하고 구현하는 것이다. 곧 새로운 상황에서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반을 둔 신실한 삶을 지속시키는 것이다.

어느 하나의 선택을 넘어서서 신앙 형성과 관련한 질문과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지금 주어진 뉴노멀 상황이 단시간에 이전의 또는 새로운 상황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모임의 제한과 온라인 예배의 임시적 수용과 실천에 따르지 않고 다시 공동체 전체의 자율적 모임이 가능한 상황이 주어질 때 이전의 예배 실천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실제로 조성돈 교수의 상세한 분석과 진단에 따르면 뉴노멀을 초래한 코로나 종식 이후에 이전의 예배로 되돌아가기보다는 이미 지금 참여하는 온라인 예배를 지속하려는 입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sup>31)</sup> 이러한 입장은 온라인 예배의 수용과 실천을 적극 진행하는 미국의 상황도 마찬가지다.<sup>32)</sup> 아울러 Brueggemann이 명확히 제시한 것처럼 팬데믹 상황에 직면한 바람직한 신앙의 반응은 현재의 상황을 거부하거나 단지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선택의 사안이 아니라 “새롭게 주어진 상황에서 신실한(faithful) 실천을 이끌어내는 신실한(faithful) 확신을 지속하는 것”<sup>33)</sup>이다. N. T. Wright도 팬데믹으로 인한 뉴노멀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반응은 신자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곧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있는데, “성경이 제시하는 탄식과 정직한 불평을 통해서 주어진 삶의 현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시키는 것”이라고 권고한다.<sup>34)</sup> 이러한 신앙의 신실함을 지속시키는 과제는 기독교적 관점을

29) 이 글은 뉴노멀 시대의 예배 현상을 신학적 고찰에 근거해서 목회적으로 수용할 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예배에 대한 분석과 고찰은 계속해서 또 다른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30) Alexis Abernethy, ed. *Worship That Changes Lives* (Grand Rapids: Baker Books, 2008). 이 책의 여러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핵심 논지는 기독교 예배 실천이 신학, 예술, 삶 전체를 통합하고 구체적으로 신앙과 삶의 형성과 변혁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31) 조성돈, “Post Corona 19 한국교회의 갈 방향,” *포스트코로나시대의 한국교회의 생존*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세미나 자료집, 2020), 6.

32) 2020년 Barna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이 종료된 후에 디지털 예배를 지속하겠는가? 라는 질문에 56%가 절대적 긍정, 29%가 긍정의 답변을 제시했고, 8%가 확실하지 않다고 했다. 디지털 예배를 중지하거나 완전히 떠난다고 답변한 자들은 3%가 되지 않는다.

33) Brueggemann, *Virus as a Summons to Faith*, 58. Brueggemann의 논지는 팬데믹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지속할 것인가?’이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신실함을 지속하는 신앙과 삶의 방식을 강조한 것이다.

34) N. T. Wright, *God and Pandemic: A Christian Reflection on the Coronavirus and Its Aftermath* (Grand Rapids: Zondervan, 2020), 14.

반영한 미디어 연구와 활용에서도 강조된다. 기술의 위험을 경계해서 온라인 방식의 신앙 실천을 모두 거부하거나 단지 더 나은 새로운 실험과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는 이유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 수용의 상황에서 “어떻게 신실한 삶을 지속할 것인가?” 또는 “디지털 기술에 의한 미디어 방식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신실한 기독교 공동체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끌어 낼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추구할 것을 요구한다.<sup>35)</sup>

#### IV. 뉴노멀 시대 예배 실천을 위한 신학적 고찰과 목회적 제안

뉴노멀 시대에 주어진 예배 관련 질문은 단지 한 장소에서의 모임 회복 방안이나 미디어 기술의 적극적인 수용과 활용에 의한 새로운 스타일 제시를 넘어서는 것과 관련한다. 새로운 시대에 주어진 예배 실천에 대한 접근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신학적 고찰과 목회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물론 공동체 전체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한 장소에서의 모임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울러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한 목회적 수용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자체를 거부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뉴노멀의 상황은 예배의 새로운 현상과 전환을 이끌었다. 시간의 중심성에 기반을 둔 삶의 리듬(rhythm of life)에 따른 모임과 예배 실천, 장소(place)가 아닌 새로운 공간(space)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 경험과 참여 방식의 전환, 성경읽기와 설교 그리고 음악과 성찬에 이르는 예배 구성요소들의 전개와 진행 방식의 새로운 참여는 현실적으로 접하는 목회적 과제이고 신학적 고찰의 주제가 된다. 따라서 목회적 과제는 이러한 새로운 예배 경험의 상황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실천을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과 관련한다.

##### 1. 시간에 따른 삶의 리듬 구축과 강화

우선 삶의 리듬, 시간의 흐름과 반복에 따른 규칙성을 강화하는 것은 뉴노멀 시대 예배와 관련한 선명한 목회적 과제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한 장소에서의 모임 자체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제시하는 방식은 시간과 관련한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 가운데 하나는 ‘안식일’과 관련한다.<sup>36)</sup> 일정한 시간의 흐름을 반복과 규칙의 순환 리듬으로 수용하고 ‘안식’을 하나의 중요한 실천 방식으로 포함한다. Brueggemann이 상세하게 논의한 것처럼 안식은 단지 일을 멈추고 쉬는 도덕적 계명을 넘어서서 각자의 삶과 공동체 전체를 형성시키는 중요한 신앙 실천 방식이다.<sup>37)</sup> 성취와 업적을 지향하는 소비사회의 모습인 시간의 연속적 흐름에 갇히는 것을 단절시키고 새로운 주기를 부여함으로써 신앙의 정체성을 부여한다. 이것은 생산과 결과를 통한 만족과 행복의 추구를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구축이 삶의 참된 평안과 회복으로서의 정의를 이끌어내는 것임을 직접적으로 구현하는 실천이다.<sup>38)</sup> 장로교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Matthew

35) Dyer, *From The Garden to the City*, 176. Wim Dreyer, “Being Church in the Era of ‘Homo Digitalis’” *Verbum et Ecclesia* 40(1), 2019, 7.

36) Abraham Heschel, *The Sabbath*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05).

37) Walter Brueggemann, *Sabbath as Resistance: Saying No to the Culture of Now*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4), 2. 안식과 신앙 형성의 중요성에 대한 신학적 성경적 실천적 강조에 대해서는 Heschel, *The Sabbath*와 Marva Dawn, *Keeping the Sabbath Wholly* (Grand Rapids: Eerdmans, 1998)를 참조하면 된다.

38) Brueggemann, *Sabbath as Resistance*, 6.

Henry(1662-1714)의 경우는 이러한 삶의 순환적 흐름과 규칙성을 일상의 삶에까지 연결해서 기독교인의 정체성과 신앙 형성의 방식으로 제시한다. 곧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면서 기독교 신앙에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실천적 방식을 제안한다.<sup>39)</sup> 역사적으로 예배와 관련한 시간의 언급과 강조는 주로 교회력과 연결된다. 그런데 교회력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중심으로 구성된 시간이고 교회들은 주로 예배의 구성을 위한 주제와 내용에 초점을 두면서 활용해왔다.<sup>40)</sup> 물론 교회력의 사용이 예배자들의 신앙 형성에 그리스도 중심의 메시지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예배자들의 삶을 규정하거나 정체성을 부여하고 삶의 구체적인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자유 교회 전통에 있는 다수의 교단들과 교회들에서 여전히 교회력을 예배와 신앙 형성의 중요한 기준이나 자료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안식과 하루의 일과를 중심으로 구성된 시간의 리듬을 따라 예배자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삶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모임의 제한으로 인해 새롭게 부각된 시간의 강조는 목회적 현실에서 예배와 관련한 시간성에 다시 집중하게 한다. 시간을 하나의 구성 단위로 간주해서 성경에서 강조하고 역사적으로 발전해 온 안식과 일의 구분에 따른 반복적 순환의 규칙성을 삶에 익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것은 단지 안식일을 고정하고 안식의 실천으로서 예배하는 것을 율법적으로 강조하는 것과는 다르다. 안식과 구분되는 일상을 상호 연결하고 동시에 명확한 주기로 연속적 반복의 순환 과정으로 진행되는 리듬(rhythm)을 통해 삶을 형성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시간의 구분과 규칙적 반복에 의한 순환적 리듬을 따르는 것은 단지 안식일을 강조하고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삶의 모든 과정을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실천이자 훈련 방식이다.<sup>41)</sup> 이러한 훈련은 일정한 리듬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 가는 일종의 습관(habit)을 삶에서 이끌어낸다. 삶의 형성이 단회적 사건이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삶의 전 생애를 통해서 변화되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된 프로그램이나 일시적인 훈련으로 그러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연속적 삶의 과정에서 일정한 리듬과 규칙을 갖고 집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창조세계와 이웃을 돌아보는 구분된 방식을 삶의 고정된 습관으로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sup>42)</sup> 특히 소비와 생산의 가치에 따라 사회 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바라보고 집중하고 새롭게 형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구분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삶을 고찰하는 의도된 훈련이 반드시 요구된다.<sup>43)</sup>

이런 점에서 예배는 시간의 구분과 리듬의 형성을 통해 삶을 형성하는 안식의 가장 중요한 실천 방식이다.<sup>44)</sup> 목회자들에게는 성도들이 공간의 이동과 구별된 움직임의 방식에서 시간의

39) Matthew Henry, “Dictions for Daily Communion With God” in *the Complete Works of Matthew Henry*, Vol.1.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7).

40) Gordon-Taylor, “Time,” 120.

41) Alistair Sterne, *Rhythms for Spiritual Practices for Who God Made You to Be* (Downers Grove: IVP, 2020), 4.

42) Brueggemann, *Virus as a Summons to Faith*, 26. Brueggemann은 이러한 습관을 제자도의 핵심 개념이자 실천으로 간주한다.

43) Walter Brueggemann, *Materiality as Resistanc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20), 64. 또한 Kaemingk and Willson, *Work and Worship*, 37-45 그리고 Patrick Miller, “The Human Sabbath: A Study in Deuteronomic Theology,”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Bulletin* 6 (1985): 81-97 참조.

리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안식과 일의 반복적 순환과 규칙적 리듬을 익히게 하며, 일관된 구성으로 진행되는 예배에 참여하는 삶의 방식을 떠나지 않고 지속하도록 책임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온라인 예배를 실천할 때 기술에 의존해서 잘 편집된 방식의 예배를 송출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의도적 안내와 인도가 훨씬 중요하다.<sup>45)</sup> 기술에 집중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자원과 장비 그리고 인력이 부족한 상황의 목회적 현실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sup>46)</sup> 뉴노멀 시대의 혼란과 불안정의 상황에 있는 예배자들에게 삶의 현실에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의 초청에 참여하고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강화할 수 있는 의도적 훈련을 시간의 리듬을 따라 지속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2.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위한 공간 이해와 수용

예배와 관련해서 뉴노멀 시대에 경험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큰 변화는 장소와 관련한다. 예배자들이 함께 같은 장소(place)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제한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디지털 기술에 의한 온라인 예배가 수용되면서 가상공간(virtual space)을 경험하고 있다. 이것은 물리적 공간이 가상의 공간으로 전환되었고, 예배의 구성과 실천 그리고 참여 방식에는 공간을 제외한 다른 변화가 없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예배의 핵심인 하나님의 임재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한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성전인 구체적인 장소와 연결되어 있다.<sup>47)</sup> 하지만 보다 중요한 과제는 구체적인 장소로서 성전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공간이 되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sup>48)</sup> 하나님의 임재는 장소 또는 건물 자체가 자동적으로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경배로서의 예배 활동과 연결되어 있다. 단순히 건물로 구성된 예배 장소에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의 반복적 참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가상공간이라는 새로운 예배 장소의 경험도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하거나 이끌어 내지 않는다. 이와 아울러 실제의 건물과 장소와 다른 가상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부적합한 공간으로 쉽게 단정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디지털 예배에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직접 나타나는 경험이다.<sup>49)</sup> 가상공간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그 공간에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sup>50)</sup>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리적 공간

44) Dawn, *Keeping the Sabbath Wholly*, 43. Rich Villodas는 이와 관련해서 흠어진 삶을 재구성하는 것(reframe distraction)이라고 명명한다. Rich Villodas, *The Deeply Formed Life* (Colorado Springs: WaterBrook, 2020), 26-8.

45) 최근 온라인 예배와 관련해서 마치 드라마나 영화의 영상 편집 기술에 근거해서 제작하는 것이 더 좋은 예배인 것처럼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예배는 편집된 영상의 완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배자들의 직접적인 인격적 상호 관계 속에 의한 대화의 방식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46) Villodas, *The Deeply Formed Life*, 24-5. 기독교 예배 실천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집중된 그리고 단순화된 가치에 끊임없이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47) R.W.L. Moberly, "Sacramentality and the Old Testament," edited by Hans Boersma and Matthew Levering, *The Oxford Handbook of Sacramental The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20.

48) Wolterstorff, "The Theological Significance of Going to Church and Leaving and The Architectural Expression of That Significance," 230.

49) Karyn Wiseman, "A Virtual Space for Grace: Are There Boundaries for Worship in a Digital Age?" *Liturgy* 30:2 (2015), 57-8.

50) Claudio Carvalhaes, "And the Word Became Connection: Liturgical Theologies in the Real/Virtual World," *Liturgy* 30:2 (2015), 30.

이든 가상공간이든 공간 자체보다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구체적인 일, 행위가 하나님의 임재 경험에 더욱 직접적으로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예배 공간은 단지 예배 실천을 위한 배경이나 환경을 넘어선 역할을 한다. 마치 가정이 단지 가족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배경으로서의 장소일 뿐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삶의 가치와 습관을 형성시키는 창조적 공간이 되는 것과 같다.<sup>51)</sup> 가정의 역할을 적합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위한 장소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부합한 예배를 위해서 그 필요에 따른 장소가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물리적 공간의 예배 장소는 예배를 목적으로 구성된 공간이기 때문에 예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비교적 선명하게 의도적으로 이끌 수 있다. 반면 가상공간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 의도적으로 구성된 공간이 아니라 그 공간의 구성과 활용 그리고 참여 방식이 그것을 설정한 기술 제공자에 의해서 결정된다.<sup>52)</sup> 이런 점에서 가상공간은 가치 중립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이끌지 않기 때문에 더욱 구체적인 목회적 고찰과 수용을 요구한다.

목회적 측면에서 주어진 사역의 과제는 단지 장소 자체를 확보하거나 기술을 통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노력을 요구한다. 우선 교회 건물과 장소가 예배를 위해 유일하게 보증된 공간이 아니라는 현실적 도전을 직접 받아들여야 한다.<sup>53)</sup> 예배를 위해 예배자들이 함께 연결되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의 새로운 확대가 현실적으로 새롭게 주어지고 있다. 초대교회의 지하 동굴과 가정이 예배의 공간이었고, 최근에는 창고, 가게, 학교 강당 등 다양한 장소들이 예배의 공간으로 직접 수용 활용되고 있다.<sup>54)</sup> 이와 함께, 뉴노멀 시대의 소그룹 형태와 디지털 기술에 의한 가상공간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초청과 임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몇몇 가정 단위의 소그룹, 각 가정, 인터넷 등을 통해 서로 연결된 모임이 예배의 공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가상공간을 중심으로 특징화되는 이러한 연결성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건물과 구체적인 장소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주의를 부각시키거나 특정한 예배자들을 소외 또는 간과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직접적인 대면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예배 또는 디지털 방식의 공동예배는 공동체를 간과하는 개인의 참여 방식으로 이해하기 쉽고 또 여전히 미디어 기술에 익숙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소외 계층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가상공간의 예배에서 미디어 수용과 활용에 목회적 역량을 집중할 때 예배자들을 어떻게 환대할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 과제는 의도치 않게 약화될 수 있는 부분이다.<sup>55)</sup>

51) Wolterstorff, "The Theological Significance of Going to Church and Leaving and The Architectural Expression of That Significance," 232.

52) 디지털 기술에 의한 가상공간은 단지 도구를 넘어서서 또 다른 세계를 창조하고 그에 참여하는 자들의 삶을 형성하는 역할도 감당한다. Dyer, *From the Garden to the City*, 66-7.

53) 전통적으로 예배 공간이 신학적 의미를 반영하고 제시한다는 점에서 공간이 의미 전달의 중요한 영역이라는 James White의 접근[‘space as communication’: James White, *Documents of Christian Worship*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41-74)]은 유효하지만 공간으로 간주하는 구체적인 대상과 영역은 최근 들어 매우 다양해졌고, 별도의 심도있는 연구를 요구한다.

54) Wolterstorff, "The Theological Significance of Going to Church and Leaving and The Architectural Expression of That Significance," 235. 새로운 예배 운동과 실험적 실천을 강조하는 현대예배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킨 공간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창고를 지칭하는 ‘warehouse’ 또는 식당이나 ‘클럽’과 같은 예배 장소의 명명도 있으며, 최근에는 다시 ‘vision’과 같이 새로운 방향의 의도를 담은 이름들로 변화하고 있다. Spinks, *The Worship Mall*, 53-4 그리고 Lim and Ruth, *Lovin’ On Jesus*, 42-6 참고.

55) Carvalhaes, "And the Word Became Connection: Liturgical Theologies in the Real/Virtual World," 34.

더 나아가 예배의 공간이 하나님과 예배자들 사이의 관계를 구축하는데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분명한 이해와 구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 구축을 위한 공간 이해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공동예배를 위해 함께 참여하는 자들 사이의 만남을 위한 공간이다. 둘째는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제시하시는 초청과 말씀의 전달을 위해서 구분해 놓은 공간이다. 셋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직면하고 참여하기 위해 구분해 놓은 공간이다. 곧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소와 임재를 제시하는 일 또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필요하다.<sup>56)</sup> 이제 는 단지 예배를 위해서 건물과 장소를 마련하는 것 또는 디지털 기술에 의해 서로를 연결하는 것 자체보다 예배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초청, 다가오심, 말씀하심, 그리고 직접 그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실천적 행위들이 공간과 장소의 구분된 거룩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곧 예배의 직접적인 실천이 공간의 역할(worship as space)을 지배하고 주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배 참여가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통한 환대와 평안의 경험이 되고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구축의 중심점이 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계획, 진행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장소의 핵심 역할은 소속감을 형성시키는 것이다.<sup>57)</sup> 따라서 예배자들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구체적인 공간 또는 가상공간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확신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목회적 언어 사용과 실천에 주력하는 것이 요구된다.<sup>58)</sup> 좀더 구체적으로 디지털 예배의 실천에서 환대의 표현을 강화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접근을 의도적으로 신경쓰는 노력이 요구된다. 회중들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의한 말씀 전달과 반응을 요구하는 언어 표현과 의도적 접근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수용해 온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참여 방식을 온라인 성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sup>59)</sup> 자체보다 그리스도를 새롭게 깨닫고 알아 볼수 있는 성경적 표현과 기도를 개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3. 예배 구성요소로서의 기도 강화

뉴노멀 시대의 예배 실천은 예배 구성요소에 대한 변화된 참여와 경험에 목회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 사도행전 2:42에 따라 말씀(사도적 가르침), 교제, 성찬(떡을 떼), 기도는 새로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예배 구성과 실천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sup>60)</sup> 초대교회의 예배 실천을 기술한 순교자 저스틴(Justin the Martyr)의 ‘제일변증서’(The First Apology)의 65-67항에 따르면 기독교 예배는 말씀과 성찬의 구조(structure)를 지닌다.<sup>61)</sup>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리고 오늘날 예배의 실천에 나타나는 구성에는 성찬이 분명한 구조로 포함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 Wolterstorff는 예배의 구조(structure)와 현상(phenomenon)을 구분하고, 비록 모든 예배 실천에 성찬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예배를 지속하는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킨다.<sup>62)</sup> 이런 점에서 공동체 가운

56) Irvine, "Space," in *The Study of Liturgy and Worship*, 108.

57) Brueggemann, *Materiality as Resistance*, 82.

58) 위의 책, 80-81.

59) 온라인 성찬의 정당성을 지지 또는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모여 진행하는 것을 대체하는 임시적 방편으로서의 성찬 자체에 주력하는 것을 뜻한다.

60) 말씀, 교제, 성찬, 기도가 기독교 예배의 구성요소로서 이견이 없지만 이 모든 요소들이 공동체의 모임에서 동시에 실천되었는지, 각각의 실천이 서로 별도의 구분된 방식으로 실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다른 이해와 입장을 지니고 있다. McGowan, *The Ancient Christian Worship*, 1-18.

61) Justin Martyr, 'The First Apology,' in Bard Thompson,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e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0), 8-10.

데 일부의 제한된 모임 또는 디지털 예배 과정에서 성찬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비록 성찬이 한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기독교 예배로서의 구조적 결함을 지닌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뉴노멀 시대의 예배 구성과 실천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현실적 과제는 음악의 약화에 대한 목회적 대응을 제시하는 것이다. 음악은 예배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현대예배의 구성요소다. 음악의 성례성(sacramentality of music)은 현대 예배자들의 참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부각되었다.<sup>63)</sup> 좀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현대 예배자들은 말씀 선포에 대한 내적 반응과 음악에 대한 감정의 몰입과 경험을 통한 전적인 참여를 예배 구성에서 중요하게 간주한다.<sup>64)</sup> 하지만 이러한 예배 음악의 성례적 참여가 제한된 소규모의 모임 또는 가상공간에서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경험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예배 음악의 위치와 의미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중요한 목회적 과제이다. 초대교회부터 발전한 예배 구성요소의 정리와 기록에 따르면 다른 요소들과는 달리 음악의 구분된 표현이 선명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음악은 기도에 포함되거나 기도에 속한 구성요소로 간주되는 것이 더 선명하게 나타난다.<sup>65)</sup>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참여하는 신앙의 실천 방식이다.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공동예배는 기도를 포함시켰고, 은혜 곧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편이라는 신학적 이해와 확신을 구체화시키는 실천으로 간주해 왔다. 기도는 예배 안에서 단지 언어와 생각만이 아니라 예배자의 전인적 참여(the whole embodied participation)를 가능하게 한다.<sup>66)</sup> 공동체 전체 또는 제한된 규모의 모임 또는 가상공간의 연결을 통한 모임 모두 기도의 실천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전인적으로 참여하는 경험이 될 수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공동예배에 기도를 포함한 것은 시간과 공간의 경험과 같이 일정한 규칙에 따른 삶의 리듬으로 익히게 하는 의미를 지닌다.<sup>67)</sup> 이런 점에서 기도는 공동예배의 핵심 구성요소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이고 신실하게 구축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참여하고 반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지속하게 한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할 때 우선 분명한 것은 뉴노멀 시대에 공동예배의 구성요소와 관련한 목회적 과제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구성요소의 측면에서 말씀 중심의 예배를 지속하는 것에는 큰 변화가 없다. 성찬의 문제는 이전에도 매주 예배의 구성요소로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라면 간헐적으로 실천하는 방식에 대한 조절 또는 한시적 연기 상태로 목회적 조절이 가능하다.<sup>68)</sup> 다만 음악의 경우 가장 큰 변화와 조절이 현실적으로 요구된다. 그런데 예배에서의 음악이 단지 감정적 몰입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에 반응하는 경배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때 기도가 그 역할을 포괄할 수 있다. 기도는 공동예배의 구성요소로서 뉴노멀 시대에 부각되는 중요한 예배의 실천 영역이다. 새롭게 주어진 상황과 예배 참여의

---

62) Nicholas Wolterstorff, "The Reformed Liturgy," in *Major Themes in the Reformed Tradition*, ed. Donald McKim (Grand Rapids: Eerdmans, 1992), 277-80.

63) Lim and Ruth, *Lovin' On Jesus*, 18.

64) 음악은 예배 구성의 핵심 요소로서 예배자들의 참여에서 결정적 요소와 순간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Thomas Whelan, "Music," in *The Study of Liturgy and Worship*, 97.

65) 초대교회 디다케, 제일변증서, 사도적 전송 등을 보면 대부분 성경읽기, 기도, 설교, 성찬과 교제 및 나눔 등에 대한 구성요소의 선명한 제시가 나타나고 음악에 대한 구별된 구성요소의 언급이 선명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6) Nicholas, "Prayer," 45.

67) 위의 책, 46.

68) 물론 정해진 규칙성을 위해서 월 또는 분기별로 실천하는 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할 수도 있는데, 온라인 성찬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입장에 대해서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난다.



다양한 방식들에 대한 논의와 대안적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동예배에서 기도는 예외 없이 포함할 수 있고 또 전인적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공동기도의 실천에서 목회적 과제로 주어지는 것은 기도의 내용과 주제를 제시하고 구체화 시켜주는 것이다. 예배의 초청, 죄의 고백과 용서의 확증, 목회 기도, 파송과 함께 포함되는 축복의 기도 등을 이전과 같이 지속하되, 기도의 내용과 주제에 불안정한 시대 속에서 ‘소망’을 담아내는 고백을 포함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팬데믹으로 인해 주어진 삶의 변화와 불안전을 담고 있는 뉴노멀에서는 막연하게 긍정적으로 미래를 갈망하는 낙관적 기대가 아니라, 성경에서 제시하는 종말적론 소망을 다시 회복하고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고백(기도)이 요구된다.<sup>69)</sup>

그런데 기독교 예배에서 공동체가 함께 소망을 담아내고 표현하는 가장 성경적 표현은 탄식이다.<sup>70)</sup> 탄식은 구원과 온전한 소망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간구이고 신앙 표현의 직접적인 의례의 실천 방식이다.<sup>71)</sup> 구체적인 불평, 간구, 그리고 확신을 담아내는 가장 성경적이고 정직한 기도이다.<sup>72)</sup> 곧 신앙의 인내, 신실함 그리고 삶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시키고 거기서 소망을 이끌어내는 가장 확실한 성경적 기도 내용을 담고 있는 방식이다.<sup>73)</sup> Wolterstorff는 칼빈의 개혁주의적 탄식의 신학적 이해를 연구하면서 탄식이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서 비록 분명한 답을 알 수 없지만 “우리를 개혁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시도의 구체적 제시”(manifestations of God’s gracious attempt to reform us)와 연결된다고까지 언급한다.<sup>74)</sup> 이처럼 불편을 넘어서서 불안과 고통을 초래하는 뉴노멀 시대의 예배자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과제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구축하고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탄식 기도의 목회적 적용이다. 탄식 기도의 핵심은 단지 슬픔과 아픔을 고백하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하고 주어진 상실과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을 다시 회복해달라는 가장 신실한 신앙의 표현이다.<sup>75)</sup> 이러한 신실한 신앙의 표현으로서 탄식 기도는 음악을 대신해서 가장 성경적이고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부합한 예배 구성 요소로 자리잡을 수 있다.

69) Glen Packiam, *Worship in the World to Come: Exploring Christian Hope in Contemporary Worship* (Downers Grove: IVP, 2020)은 우리 시대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다시금 성경적 소망의 회복을 위한 기도(예배)의 의미와 역할을 심도 있게 논증한다. Claus Westermann은 탄식이 고난의 상황에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성경의 기도라고 언급한다. Westermann, *Praise and Lament in the Psalms* (Atlanta: John Knox Press, 1981), 267. Patrick Miller는 기도와 간구가 목회적으로 소망을 제시하는 중요한 실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논증한다. Patrick Miller, *They Cried to the Lord: the Form and Theology of Biblical Prayer* (Minneapolis: Fortress, 1994).

70) 탄식 기도의 기본 구조와 내용은 불평, 간구, 신뢰의 고백으로서 회복으로 구성된다. David Taylor, *Open and Unafraid: The Psalms As a Guide to Life* (Colorado Springs: Thomas Nelson, 2020), 70-1.

71) Miller, *They Cried to the Lord*, 21 그리고 Wolterstorff, “If God is Good and Sovereign, Why Lament?”, 82.

72) 개인적, 목회적 상황에서 탄식 기도의 구조를 가장 현대적으로 명료하게 요약한 구조는 시편 13편에 따른 정직한 불평(1-2절), 구체적인 간구(3-4절), 그리고 신앙의 확신과 찬양(5-6절)이다. David Taylor, *Open and Unafraid* (Nashville: Thomas Nelson, 2019), 70-1.

73) 팬데믹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과 반응 과제를 제시한 Brueggemann과 Wright 모두 탄식 기도의 필요성과 기독교적 소망 제시를 위한 성경적 실천으로 강조한다. N.T. Wright, *God and Pandemic*, xi. Brueggemann, *Virus as a Summons to Faith*, Chapter 5. Taylor, *Open and Unafraid*, 74.

74) Wolterstorff, “If God is Good and Sovereign, Why Lament?”, 89.

75) Brueggemann, *The Psalms and Life of Faith*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47 그리고 Steven Chase, *The Tree of Life: Models of Christian Prayer*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5), 95.

## V. 결론

뉴노멀 시대는 말 그대로 새로운 일상을 초래했다. 기독교 예배는 공동체의 신앙 실천에서 핵심을 차지한다. 일상과 직접 연결된 기독교 예배 역시 뉴노멀 시대를 직면해서 새로운 현상과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기독교 예배는 시대와 상황을 따라 새로운 구성과 형태의 변화를 경험해왔다. 따라서 새로운 변화 자체보다는 변화의 동기와 방향 그리고 변화의 현상에서 주어지는 신학적 고찰과 목회적 연결을 시도하는 것이 언제나 중요한 과제다. 뉴노멀 시대에 경험하는 기독교 예배의 변화는 교회 안에서 시작된 갱신 운동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주어진 불가피한 상황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혼란과 혼동을 경험한다. 특히 오랜 역사를 통해서 정해진 장소에 모여 예배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순환적 리듬을 유지하면서 발전해온 예배 참여와 경험의 기본 패러다임의 변화가 주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목회적 현실은 단순히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거나 가능한 기술과 장비를 적극 활용해서 디지털 예배를 또 하나의 새로운 대안으로 수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요구한다. 곧 “불안전과 혼란의 시대에 어떻게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공동예배의 실천을 이끌어낼 것인가?”이다. 이 짧은 글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어느 하나의 입장에 대한 정당성 제시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대한 신학적 고찰과 목회적 제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 뉴노멀 시대의 예배자들은 시간의 순환적 리듬을 명확히 하고 일상과 안식의 규칙성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제시하는 실천을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물리적 장소와 가상공간 사이에서 어느 하나를 더 우월한 예배의 공간으로 간주하려는 선택보다 예배 실천 자체가 예배 공간의 원래 의미를 구현하고 제시하는 ‘공간으로서의 예배’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아울러 예배 구성요소의 수용과 발전을 지속하면서 음악을 통한 감정적 몰입과 참여의 방식을 정직한 탄식의 기도 실천으로 전환해서 더욱 성경적이고 상황에 부합하게 하나님의 임재에 참여하게 하는 실천을 강화할 수 있다. 불안과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뉴노멀 시대의 예배에서도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구축과 형성을 위한 신학적 고찰과 목회적 노력은 여전히 가능하다.

### [참고 문헌]

- 조성돈. “Post Corona 19 한국교회의 갈 방향.” *포스트코로나시대의 한국교회의 생존*. 『실천 신학대학원대학교 세미나 자료집』, 2020.
- Abernethy, Alexis. ed. *Worship That Changes Lives*. Grand Rapids: Baker Books, 2008.
- Abraham, William. *Logic of Renewal*. Grand Rapids: Eerdmans, 2003.
- Begbie, Jeremy. *Redeeming Transcendence in the Arts: Bearing Witness to the Triune God*. Grand Rapids: Eerdmans, 2018.
- Bernard, Marcel, Cilliers, Johan, and Wepener, Cas, *Worship in the Network Culture*. Leuven: Peeters Bvba, 2014.
- Bradshaw, Paul. *The Search for the Origins of Christian Worshi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Brueggemann, Walter. *Materiality as Resistanc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20.

- Brueggemann, Walter. *Sabbath as Resistance: Saying No to the Culture of Now*.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4.
- \_\_\_\_\_. *Virus as a Summons to Faith: Biblical Reflections in a Time of Loss, Grief, and Uncertainty*. Eugene: Cascade Books: 2020.
- Calvin, John. "the Necessity of Reforming the Church." in Calvin's Tracks. Vol. 1. Eugene: Wipf and Stock Publishers, 2002.
- Campbell, Heidi and DeLasmutt, Michael W. "Studying Technology and Ecclesiology in Online Multi-Site Worship." *Journal of Contemporary Religion*, 2014. Vol. 29, No.2: 267-285.
- Carvalhoes, Claudio. "And the Word Became Connection: Liturgical Theologies in the Real/Virtual World." *Liturgy* 30:2 (2015): 26-35.
- Chase, Steven. *The Tree of Life: Models of Christian Prayer*.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5.
- Dawn, Marva. *Keeping the Sabbath Wholly*. Grand Rapids: Eerdmans, 1998.
- Dix, Dom. *The Shape of Liturgy*. New York: T&T Clark, 2005.
- Dreyer, Wim. "Being Church in the Era of 'Homo Digitalis'." *Verbum et Ecclesia* 40(1), 2019: 1-7.
- Dyer, John. *From The Garden to the City: The Redeeming and Corrupting Power of Technology*. Grand Rapids: Kregel, 2011.
- Fuller, Brian. "Practicing Worship Media Beyond Power Point." *Understanding Evangelical Media: the Changing Face of Christian Communication*, edited by Quentin Schultze and Robert Woods, Jr. Downers Grove: IVP, 2008.
- Gordon-Taylor, Benjamin. "Time", *The Study of Liturgy and Worship*. edited by Juliete Day and Benjamin Gordon-Taylor. Collegeville: Pueblo, 2013.
- Henry, Matthew. "Dictions for Daily Communion With God" in *the Complete Works of Matthew Henry*, Vol.1.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7.
- Heschel, Abraham. *The Sabbath*.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05.
- Irvine, Christopher. "Space." *The Study of Liturgy and Worship*. edited by Juliete Day and Benjamin Gordon-Taylor. Collegeville: Pueblo, 2013.
- Kaemingk, Matthew and Willson, Cory. *Work and Worship: Reconnecting Our Labor and Liturg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20.
- Lim, Swee Hong and Ruth, Lester. *Lovin' On Jesus*. Nashville: Abingdon, 2017.
- Martyr, Justin. 'The First Apology,' in Bard Thompson.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e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0.
- Mcgowan, Andrew. *Ancient Christian Worship*.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6.
- Miller, Patrick. "The Human Sabbath: A Study in Deuteronomic Theology."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Bulletin* 6 (1985): 81-97.
- Miller, Patrick. *They Cried to the Lord: the Form and Theology of Biblical Prayer*. Minneapolis: Fortress, 1994.

- Moberly, R.W.L. "Sacramentality and the Old Testament." edited by Hans Boersma and Matthew Levering, *The Oxford Handbook of Sacramental The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 Packiam, Glen. *Worship in the World to Come: Exploring Christian Hope in Contemporary Worship*. Downers Grove: IVP, 2020.
- Postman, Neil. *Amusing Ourselves to Death*. New York: Penguin Book, 1985.
- Smith, James. *Desiring the Kingdom*.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9.
- Spinks, Bryan. *The Worship Mall*. New York: Church Publishing, 2011.
- Stapert, Calvin. *A New Song for an Old World: Musical Thought in the Early Church*. Grand Rapids: Eerdmans, 2007.
- Sterne, Alistair. *Rhythms for Spiritual Practices for Who God Made You to Be*. Downers Grove: IVP, 2020.
- Taylor, David. *Glimpses of the New Creation: Worship and the Formative Power of the Arts*. Grand Rapids: Eerdmans, 2019.
- Taylor, David. *Open and Unafraid: The Psalms As a Guide to Life*. Colorado Springs: Thomas Nelson, 2020.
- Villodas, Rich. *The Deeply Formed Life*. Colorado Springs: WaterBrook, 2020.
- von Allmen, Jean Jacques. *Worship: Its Theology and Prac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5.
- Watts, Michael. *The Dissenter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 Westermann, Claus. *Praise and Lament in the Psalms*. Atlanta: John Knox Press, 1981.
- White, James. *Documents of Christian Worship*.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 Wiseman, Karyn. "A Virtual Space for Grace: Are There Boundaries for Worship in a Digital Age?" *Liturgy* 30:2 (2015): 52-60.
- Wolterstorff, Nicholas. "The Reformed Liturgy." in *Major Themes in the Reformed Tradition*. edited by Donald McKim. Grand Rapids: Eerdmans, 1992.
- \_\_\_\_\_. "The Theological Significance of Going to Church and Leaving and The Architectural Expression of That Significance." *Hearing the Call: Liturgy, Justice, Church, and World*. Grand Rapids: Eerdmans, 2011.
- Wright, N. T. *God and Pandemic: A Christian Reflection on the Coronavirus and Its Aftermath*. Grand Rapids: Zondervan, 2020.
- Yates, Nigel. *Liturgical Space*. New York: Routledge, 2016.
- Zuboff, Shoshana. *The Age of Surveillance Capitalism: The Fight For a Human Future at the New Frontier of Power*. London: Profile Books, 2019.

## ▶ 발제자2:

### “뉴노멀 시대에 적실한 설교 사역에 관한 연구”

이승진 박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한국설교학회 선임부회장)

#### I. 들어가는 말

2020년 봄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19 팬데믹’(COVID19 Pandemic)은 인류 문명의 역사에 선례가 없는 충격과 파장을 몰고왔다. COVID19에 대한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와 ‘마스크 착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전 세계인들의 모든 사회적 활동 방식의 표준이 기존의 대면 활동(contact activity)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비대면 활동을 거쳐 온라인을 통한 온택트(on-tact) 활동으로 재편되고 있다. 예전에 상점이나 시장을 방문하여 물건을 구매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온라인 쇼핑몰의 전자결제 방식으로 원하는 물품을 구입하기 시작하였다.

기독교 교회에서도 그동안 모든 신자들에게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로 간주되었던 ‘집단 대면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더 이상 당연한 예배 형식으로 인정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예배 방식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과거에는 필수적인 예배 방식이나 설교 방식이 2021년에는 옛날 방식으로 치부되고 이전에 비정상적이었던 방식들이 새로운 정상(new normal)으로 등장하고 있다. 새롭게 등장하는 예배 방식이나 설교 방식은 목회자들과 신자들 모두에게 상당히 심각한 신학적 및 목회적인 과제들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회자/설교자들이 해결해야 할 실천신학의 과제가 있다: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목회 사역과 예배 방식이 새로운 정상으로 등장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적실하고 효과적으로 선포될 수 있을까? 뉴노멀의 시대에도 여전히 중생과 성화의 효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선포될 수 있을까?

필자는 이 논문에서 이전 시대에 효과적이었던 설교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은 뉴노멀 시대에 적합한 설교 사역을 모색하려고 한다. 연구자는 리차드 오스머가 제안하는 4단계 실천신학의 연구방법론을 따라서 뉴노멀 시대에 적실한 설교 사역을 모색할 것이다. 리차드 오스머(Richard Osmer)의 ‘실천신학 연구방법론’은 연구 주제의 문제점에 관한 서술과 선행연구, 규범 수립, 실천 가능한 전략 마련의 네 단계로 진행된다.<sup>1)</sup> 첫째 연구 주제의 서술과 둘째 분석의 단계에서는 21세기에 새롭게 형성된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과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설교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관하여 서술할 것이다. 그리고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복음전도와 설교 사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sup>2)</sup> 이어서 셋째 규범 수립의 단계에서는 월터 브루그만의 ‘재상상 설교신학’(re-imagination homiletics)에 기초하여 뉴노멀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기독교 설교 사역의 기준과 규범을 마련할 것이다.<sup>3)</sup> 넷째 실천 전략의 단계에서는 뉴노멀 시대에 효과적인 설교 사역의 실제적인 전략을 제안할

1) Richard Osmer, *Practical Theology: An Introduction*, 김현애, 김정형 공역 『실천신학의 네 가지 중심과제』 (서울: WPA, 2012), 27-59.

2) 정창균, 이승진, 권 호, 공저, 『뉴노멀시대의 교회와 목회』 (수원: 설교자하우스, 2020): 158-234.

3) Walter Brueggemann, *Cadences of Home: Preaching Among Exiles*, 이승진 역, 『탈교회 시대의 설교』 (서울: CLC, 2018): 20-356; *The Message of the Psalms: A Theological Commentary*, 조호진 역, 『(브루그만의) 시편사색』 (서울: 솔로몬, 2012): 38-331.

것이다.

## II. 코로나 팬데믹과 뉴노멀 주일 예배

2020년 봄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COVID19 팬데믹과 방역 당국이 주도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주일의 회집 예배 방식을 매우 빠르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였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와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2020년 3월 29일에 한국교회 61.1%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였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한 교회가 15.6%, 현장 예배만 드린 교회는 8.6%에 불과하였다. 온라인 미디어를 주일 예배 송출에 활용가능한 거의 모든 교회들이 온라인 미디어를 주일 예배 형식에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교회의 선교적 노력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시의적절하게 발전한 IT 강국 대한민국의 무선통신 기술력과 효과적으로 결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sup>4)</sup>

온라인 예배 방식을 적극 인정하거나 마지 못해 수용하든 관계 없이, 2021년을 살아가는 목회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거대한 문명사적인 변화의 흐름이 하나 있다. 그것은 20세기 후반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때문에 그 이전에 인류가 의사소통을 위하여 사용해왔던 모든 소통 수단들이 인터넷과 무선통신 기술로 통합된 뉴미디어 융합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다.<sup>5)</sup> 이전 인류의 의사소통 방식은 전-미디어 시대(Pre-media age)와 미디어 시대(Media age), 그리고 뉴-미디어 시대(New media age)의 세 단계로 발전해왔다.<sup>6)</sup> 전-미디어 시대는 사람의 목소리에 의한 구술 시대와 그림을 통한 이미지 형상 시대, 그리고 문자가 개발되어 문자를 통하여 소통하는 문자 시대로 발전해왔다. 이어서 16세기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등장한 활자시대와 20세기 초에 라디오와 전화를 통한 청각 미디어 시대와 TV를 통한 영상 미디어 시대를 거쳤다. 그리고 20세기 말에 등장한 인터넷을 계기로 이전에 인류가 의사소통을 위하여 사용한 모든 미디어를 하나로 융합한 하이 미디어 시대(High media age), 미디어 융합 시대(Media convergence age), 또는 뉴미디어 시대가 열렸다.<sup>7)</sup>

뉴미디어 생태계의 미디어 환경은 콘텐츠(contents)와 플랫폼(platform), 네트워크(network), 그리고 디바이스(device)의 네 가지 CPND가 상호 결합하여 온라인상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sup>8)</sup> 콘텐츠(contents)는 온라인상에서 소통되는 모든 정보 자료들로서 텍스트, 음원, 동영상, 이미지, 뉴스 기사, e-book 등등을 가리킨다. 플랫폼(platform)은 좁은 의미로는 온라인상에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운영체계를 가리키기도 하고, 더 넓은 의미로는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처럼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유통하는 사업체나 그런 사업체가 제공하는 콘텐츠 저장소를 가리킨다. 셋째 네트워크(network)는 콘텐츠 플랫폼(저장소)과 그 콘텐츠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사용자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통신사(SK telecom, LG U+, KT, 등등)를 가리키고, 마지막으로 디바이스(device)는 소비자가 최종 단계

4) 조성돈, Post Corona19 한국교회의 갈 방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의 생존」 『2020 실천 신학대학원, 지역목회자를 위한 찾아가는 신학세미나 자료집』, 6.;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 조사, 2020.10.14. (전국 개신교인 만 19세 이상 1천명, 온라인 조사, 202007.21-07.29).

5) 이승진, “뉴노멀 시대의 강단목회”, 『뉴노멀시대의 교회와 목회』(수원: 설교자하우스, 2021), 158-9.

6) I. Fang, *A History of Mass Communication: Six Information Revolutions*, 심길중 역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역사: 6단계 정보혁명』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2).

7) 김문조, 『융합사회의 소통양식 변화와 사회진화 방향 연구』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37.

8) 최창현, “C-P-N-D 생태계와 ICC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3 (2014): 7-16.

에서 콘텐츠 플랫폼에 접속하여 콘텐츠를 가공하거나 활용, 유통할 때 사용하는 전자 기기들(핸드폰, 노트북, PC, 테블릿, 단말기, 등등)이다.

뉴노멀 시대 이전 사람들은 도시나 농촌과 같은 생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해왔다. 하지만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CPND로 형성된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 속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영화를 감상하며, 은행 업무를 처리하고 온라인 전자 상거래 활동을 한다. 물론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전통적인 생태 환경에서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으로 구성된 온라인 세상으로 100% 완전 이주는 하지 않았다고 할지언정, 온라인 세상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 Ⅲ. 미디어 생태학자들의 미디어 비평론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온라인의 가상 공간에서 설교 사역을 감당하려는 목회자들과 신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질문에 대하여 해럴드 이니스와 마셜 맥루한, 그리고 닐 포스트만과 같은 미디어 생태학자들의 미디어 비평론은 매우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한다.<sup>9)</sup> 먼저 해럴드 이니스(Harold Innis, 1894-1952)는 특정 미디어와 그 미디어의 시공간적 편향성, 또는 시공간적 확장성의 상관 관계에 주목하였다.<sup>10)</sup>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의 석판이나 구어 연설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라는 편향성이 강하여 참가자들이 그 소통 현장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해당 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분배력은 제한적이지만, 반대로 그 현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 강력한 상호 결속과 통제, 권위 의식, 등등을 가능하게 만든다.

마셜 맥루한(Marshall McLuhan, 1911-1980)의 대표적인 테제는 ‘미디어가 메시지다’는 주장과 ‘미디어는 인간 능력의 확장’이다.<sup>11)</sup> ‘미디어가 메시지’라는 주장은 근대의 합리적 이성 중심의 세계관에 크나큰 경종을 울렸다. 합리적 이성을 중요시하는 근대 사회에서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마셜 맥루한에 의하면 의사소통에서 중요하게 전달되는 것은 내용보다 오히려 그 내용을 담는 미디어라는 것이다. ‘미디어가 메시지’라는 테제는 온라인 설교 메시지를 준비하려는 목회자들이 CPND 생태계 환경을 잘 이해하고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을 요청한다.<sup>12)</sup>

‘미디어는 인간 능력의 확장’이라는 테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맥루한에 의하면 현대의 모든 미디어들은 타인과 의사소통하려는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들이다. 또한 인간의 다양한 감각 기관들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책은 독자들의 눈과 지성적인 활동을 책 안에 펼쳐진 무한대의 세상으로 안내해 준다. 추운 겨울에 입는 두꺼운 방한복은 피부 능력의 획기적인 확장이다. 인터넷은 인간의 신경망이 전지구적으로 또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 주는 획기적인 수단이다.<sup>13)</sup>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은 이전 세대 인류가 가지고 있던 의사소통의 능력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예를 들어 예전에 동창회 모임이나 교회의 구역 모임이 이루어지려면, 모임에 관심이 있는 사람(정인, 定人)이 지정된 시간(정시, 定時), 지정된 장소(정점, 定點)에서 모임을 했다. 모임을 위하여 3정이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온라인 환경에서는 정시

9) 이승진, “뉴노멀 시대의 강단목회”, 162-9.

10) Harold Innis, *Empire and Communications* (Toronto: Dundurn Press, 2007), 7.

11) Marshall McLuhan,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김성기, 이한우 공역, 『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확장』 (서울: 민음사, 2002), 35.

12) 이승진, “뉴노멀 시대의 강단목회”, 164-5.

13) Marshall McLuhan, 『미디어의 이해』, 30, 55, 439.

와 정점의 조건이 사라지고 모임에 관심이 있는 사람(정인)의 조건만 갖추어지는 것으로 충분하다. 모임에 관심 있는 사람은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각자 자유로운 시간에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접속하여 시공의 제약에서 자유로운 온택트(ontact) 활동이 이루어진다.

## 1. 가상현실 세계와 현실을 왜곡하는 시물라크르

온라인 설교 사역에 적극적인 목회자/설교자라면, 현대의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이 만들어진 가상공간(사이버스페이스, cyberspace), 또는 가상현실 세계의 속성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라는 용어는 윌리엄 깁슨(William Gibson)이 1982년에 발표한 소설 『뉴로맨서』(Newromancer)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깁슨의 사이버스페이스는 컴퓨터 시스템 속에서 특정한 좌표값을 갖는 매트릭스(matrix)를 가리킨다. 컴퓨터 사용자는 자기가 지구상에 물리적으로 위치한 특정한 위치에서 키보드를 두드린다. 하지만 그는 그 컴퓨터 키보드나 마우스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시공간의 물리적인 위치로부터 컴퓨터 매트릭스 속으로 이동한다. 그 접속자가 마우스를 클릭한 흔적들과 타이핑 내용들이 컴퓨터 매트릭스 안에 고스란히 남게 되고, 그러한 자료들은 본인에게나 타인에게 마치 실제 세계를 경험하듯 감각하고 지각할 수 있는 세계를 형성한다. 이렇게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온라인상에 조성된 세계를 가리켜서 가상현실(virtual reality), 또는 인공현실(artificial reality)이라고 부른다. 앞서 확인한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을 구성하는 CPND로 이루어진 세계가 곧 온라인상의 가상현실 세계다.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서 타인과 면대면으로 상호작용한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내면의 본능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회적인 관습이나 예절을 준수하면서 공공의 선과 행복을 추구한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타인과 면대면으로 상호작용하지 않고 가상현실을 매개로 상호작용한다. 존 톰슨(John Thompson)은 이를 가리켜서 ‘매개된 의사-상호작용(mediated quasi-interaction)’이라고 하였다. 매개된 의사-상호작용이 현실 세계에서 면대면 상호작용과 적절한 긴장과 보완의 관계를 맺는다면 온라인을 통한 온택트 활동은 현대인의 사회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닐 포스트만(Neil Postman, 1931-2003)은 인류 문명의 발전 과정을 도구를 사용하는 문화와 기술 중시 문화(테크노크라시, technocracy), 그리고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테크노폴리(technopoly)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sup>14)</sup> 20세기 이후 인류는 과학과 기술문명의 비약적인 발전을 비평적으로 성찰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술문명이 인간성을 압도하고 왜곡하는 단계로 진입하였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인류는 태고부터 “죽도록 즐기려는 뿌리 깊은 본능”(Amusing Ourselves to Death)을 갖고 있으며, 인간이 만들어 사용하는 모든 문명과 미디어는 그러한 본능에 충실한 도구라는 것이다.

뉴미디어에 관한 닐 포스트만의 비평적 관점은 최근 온라인 세상에서 너무나도 빈번하게 관찰된다. 온라인 세계에서는 익명성이 철저하게 보장된 까닭에 면대면 사회활동에서 감수해야 하는 여러 사회적인 제약이 무제한 해제된다. 온라인 세계에서는 마음먹기에 따라 내면의 부정적인 욕망을 무한대로 표출할 수 있다. 보이스포싱 문제나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은, CPND와 시물라크르 이미지들로 이루어진 온라인 세상의 매개된 의사-상호작용이 열

14) Neil Postman, *Technopoly: The Surrender of Culture to Technopoly*, 김 균 역, 『테크노폴리』 (서울: 궁리, 2005), 37.



하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한편, 가상현실 세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컴퓨터 화면이나 모바일폰 화면의 이미지들이다. 오늘날 분초 단위로 쏟아지는 뉴스 내용도 뉴스 제작자의 관점과 의도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가상현실 세계가 보여주는 수많은 이미지 중에는 실제 현실 세계의 사진 이미지들도 많이 포함된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과 주의를 끄는 이미지들은 대부분 가공된 이미지 정보들이 더 많다.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 속의 가상세계는 실제 세상의 정보에 관한 이미지들과 아울러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거나 왜곡된 이미지 정보가 뒤죽박죽 섞여 있다.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 1929-2007)에 의하면 시뮬라크르(simulacre)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인공물”을 가리킨다.<sup>15)</sup> 시뮬라크르는 현실 세계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나 실제 존재하는 것 같은 실재감을 주는 인공적인 이미지들이다. 온라인 세상을 채우는 수 많은 시뮬라크르에 사람들이 몰입감을 느끼는 이유가 있다. 널 포스트만의 통찰을 빌리자면, 테크노폴리 단계의 뉴미디어는 죽도록 즐기기를 원하는 인간의 뿌리 깊은 쾌락 본능을 자극하고 그런 본능에 기대어 몰입감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 2. 인격적 진정성이 배제된 의사소통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복음전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온라인 세계를 구성하는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CPND)은 어떤 문제를 초래하였을까?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 때문에 악화한 부정적인 문제는 전통적인 설득력 구조의 쇠퇴, 인격적 진정성 상실, 실제 현실과 가상현실의 괴리감 심화, 정보 무력감과 지행불일치, 메시지 편향성, 등등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sup>16)</sup> 첫째로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전문가의 권위를 잘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잘 모르면 인터넷을 검색한다. 구글과 네이버 검색이 전능자의 위치를 차지하였다. 둘째로 온라인상에서 소통되는 메시지 속에는 인격적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네이버 블로그에 올리는 정보들이 게시자의 전체 인격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목회자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의사소통할 때 서로 간에 인격적 진정성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sup>17)</sup> 목회자들은 신자들의 전인격적인 형편과 처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 그들의 형편에 맞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고난 중에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거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갈 때 준엄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신자들 편에서도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목회자가 자신의 메시지에 인격적 진정성을 함께 담아 전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피차간에 인격적 진정성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지식과 정보 전달은 편리하겠지만 인격적 진정성에 근거한 설득이나 위로, 도전, 격려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이 외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유명한 교회 목회자들의 감동적인 설교나 간증 동영상 많이 시청하더라도, 실제 신자가 매일 매일 겪어야 하는 현실 세계와 온라인상의 감동적이고 이상적인 세계와의 괴리감이 적지 않다. 현대인들은 죽도록 즐기려는 쾌락 본능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더 많이 감동적이고 자극적인 뉴스나 동영상을 소비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그에 따라 두 세계 사이의 괴리감도 점점 커지고, 새롭게 알게 된 정보의 세계와 그 세계에서 멀리

15) Jean Baudrillard, *Simulacres et Simulation*, 하태환 역, 『시뮬라시옹』 (서울: 민음사, 2001), 9-10.

16) 이승진, “뉴노멀 시대의 강단목회”, 181-204.

17) David Wells, *No Place for Truth*, 김재영 역, 『신학실증』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6), 148.

떨어져 있는 자신의 세계 사이에서 느껴지는 정보 무력감도 더욱 커질 것이다.

#### IV. 뉴노멀 프리칭을 위한 설교신학의 규범

현대인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다. 2022~2023년 정도가 되면 한국사회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에 익숙한 경제활동과 교육, 여가활동, 등등을 누릴 것이다. 그렇다면 뉴노멀 시대에 적합한 설교 사역을 위한 신학적인 토대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뉴노멀 프리칭을 위한 설교신학의 기준과 규범은 무엇일까? 연구자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의 ‘재상상 설교신학’(re-imagination homiletics)에서 모색하고자 한다.<sup>18)</sup>

##### 1. 월터 브루그만의 포로기 은유

세계적인 구약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바벨론 포로기 경험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북미권 교회와 신자들이 직면한 뉴노멀 시대의 낯선 경험과 신학적으로 매우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를 뉴노멀 시대 기독교 교회가 전통적인 복음을 새롭게 선포하고 확산할 신학적인 은유 모델로 이해할 것을 제안하였다.<sup>19)</sup> 월터 브루그만이 구약시대 바벨론 포로기의 경험을 21세기 북미권 교회와 신자들이 직면하는 뉴노멀 시대에 대한 은유로 이해하는 배경에는 두 세계의 공통분모 때문이다. “포로기의 경험은 단순히 지리적인 경험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도덕적이며 문화적인 경험이다.”<sup>20)</sup> 이 경험은 “구조적으로 안정적이고 신뢰할만한 세상에 대한 상실감과 아울러 삶의 의미를 제공했던 소중한 상징들이 더 이상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다.”<sup>21)</sup>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날 인류 문명은 코로나 팬데믹(COVID19)으로 인하여, 이전의 사회적인 규범과 문화적인 가치관이 더 이상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옛질서가 붕괴한 뉴노멀 시대로 진입하였다. 기독교인들 역시 예전의 신앙적인 규범과 교리적인 진술들, 예배 방식들이 더 이상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새로운 질서의 시대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 교회와 신자들은 “사라진 고향을 떠나보내고 스스로를 철저히 이방인처럼 느끼게 만드는 새롭고 위험한 장소로 당당히 들어가도록 도와줄 목회적인 도움이 절실하다.”<sup>22)</sup>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그러한 목회적인 도움의 원천이 구약시대 포로기 동안에 작성되고 발전한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들어 있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언어 사역(ministry of language)의 특성 때문이다. 포로민들은 그 특성상 발화(speech) 이외의 다른 모든 자원들, 예를 들어 정치적인 권력이나 부귀영화, 거대한 제국의

18) Walter Brueggemann, “Preaching as re-imagination”, *Theology Today* 52, (1995): 313-329.  
Walter Brueggemann, *Cadences of Home: Preaching Among Exiles*, 이승진 역, “재상상으로서의 설교” 『탈교회 시대의 설교』: 82-118; *The Message of the Psalms: A Theological Commentary*, 『(브루그만의) 시편사색』: 38-331.

19) Walter Brueggemann, 이승진 역, “포로민을 향한 설교” 『탈교회 시대의 설교』: 20-59.

20) Walter Brueggemann, “포로민을 향한 설교”, 22. Cf., Daniel L. Smith, *The Religion of the Landless: The Social Context of the Babylonian Exile* (Bloomington, Ind.: Meyerstone Books, 1989).

21) Walter Brueggemann, “포로민을 향한 설교”, 23.

22) 위의 책, 25.

영토, 화려한 신전들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의식들, 등등의 모든 인적, 물적, 및 영적인 자원들을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강탈당한 상태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포로민들에게는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소중한 자원으로 ‘하나님의 언어’(language of God)과 이에 대한 ‘언어 사역’(ministry of language)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sup>23)</sup>

월터 브루그만에 의하면 포로민들의 언어 사역은 바벨론 제국의 문화적 발명품이나 관습과는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오랜 언어 관습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났다고 한다.<sup>24)</sup> 하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러난 구속 계시의 역사의 관점에서 포로민들의 독특한 언어 활동은 포로민들을 자기 자녀들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의 말씀 선포의 역사 과정에서 발전한 것이다.<sup>25)</sup>

그렇다면 월터 브루그만의 포로기 은유는 어떻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도래한 뉴노멀 시대에 적실한 설교 사역을 위한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포로기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직면한 뉴 노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새롭게 서술하는 은유적 진술과 재상상, 그리고 이를 통해서 형성되는 대안적인 세계의 창조를 통해서 마련된다.

## 2. 언어를 통한 개념적 범주화와 은유적 개념의 통합

이전의 설교 전략이 더 이상 바람직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뉴 노멀의 시대에 설교자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효과적으로 선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설교학적인 해답은 언어를 통한 개념적 범주화(conceptual categorization)를 통해서 마련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인지언어학 교수 조지 레이코프(G. Lakoff)와 오리건대학교의 철학 교수 마크 존슨(M. Johnson)에 의하면 범주화(categorization)란 사람과 동물과 같은 모든 생명체가 생존을 위하여 자신이 마주하는 주변 환경을 생존에 유리한 방식으로 구분하는 작업으로 정의한다.<sup>26)</sup> “심지어 아메바도 자기와 마주치는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또는 다가가야 할 대상과 멀리 떨어져야 할 대상으로 범주화한다.... 그러므로 범주화는 우리가 신체화되어 있는 방식의 한 결과다. 우리는 범주화하도록 진화되어왔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인지과학자들은 이처럼 동물이나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와 감각기관을 통해서 주변 세계를 구분하는 일을 ‘지각적 범주화’(perceptual categorization)라고 부른다. “범주화란 세상 만물을 유사성을 통해 이 묶음(범주A), 저 묶음(범주B)로 구분하여 우리의 정신 활동과 언어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분류 작업이다.”<sup>27)</sup> 범주화는 그러한 분류 작업을 통해서 동물이나 사람의 인지 세계 안에 주변 세계를 이끌어들이고, 말하자면 모든 생명체는 범주화 과정을 통해서 주변 세계를 파악하고 이해하며, 그 주변 세계를 자신의 인식 세계 안으로 이끌어들이고 그렇게 이끌어 들여서 파악한 인식과 이해에 근거하여 물리적인 주변 세계와 상호작용한다.

23) Walter Brueggemann, “포로민을 향한 설교”, 80.

24) 위의 책, 80.

25)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본 논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참고, Graeme Goldsworthy, *According to Plan*, 김영철 역,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 (서울: 성서유니온, 2007).

26) George Lakoff and Mark Johnson, *Philosophy in the Flesh: The Embodied Mind and Its Challenge to Western Thought*, 임지룡, 윤희수, 노양진, 나익주 공역, 『몸의 철학』 (서울: 박이정, 2002), 47.

27) 김용규, 『생각의 시대』, 99.

인지과학자들에 의하면 동물들과 사람들은 자기 신체를 통해서 주변 세계를 지각적으로 범주화한다. 지각적인 범주화가 진행될 때는 신체의 행동 능력이 곧 인지 능력이고 그러한 인지 능력이 곧 동물들의 행동 능력으로 구현된다.<sup>28)</sup> 하지만 언어를 통해서 소통할 줄 아는 인간은 동물과 한 차원 높게 출생 이후 언어를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변 세계를 언어를 통하여 개념화함으로써 범주화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개념적 범주화, conceptual categorization).

동물들은 복잡한 언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처럼 먹이활동에 관한 수 많은 정보들을 수 많은 문장에 담아서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없다. 동물들은 추상적인 개념들을 마음에 담고 기억할 수도 없고, 과거의 여러 사건들을 다시 언어 형식으로 재현하여 반성하거나 비판할 수도 없고, 복잡한 미래의 구체적인 일정들을 계획할 수 없다. 오직 인간만이 언어를 구사하고 자신의 복잡한 생각을 여러 문장들에 담을 줄 알고, 또 여러 문장들을 읽으면서 그 문장들에 담긴 추상적인 개념들을 자기 인식 세계 안에 재구성할 줄 안다. 그래서 “한 마디로 언어가 인간을 인간이게 한다.!”

사람들이 동물과 다르게 언어를 통하여 개념적 범주화 작업을 진행할 때 가장 빈번하게 동원되는 것이 문장과 이야기다. 특정 신앙 공동체마다 그 공동체의 기원과 정체성, 소중한 가치와 문화적 유산을 포함한 공동의 이야기를 갖고 있다. 그러한 이야기들은 그 공동체가 주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주변 세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관한 개념적인 범주화의 패턴이나 방식들을 담고 있다.

### 3. 본문 공동체와 대안적인 세계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군사들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 중심부에 위치한 성전이 이방 군사들의 말발굽 아래 짓밟히는 비극을 목격하면서 자신들의 존재의 근거가 송두리째 뽑히는 충격을 경험하였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방의 우상 신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패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파기하셨는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다윗 왕조를 통해서 거듭 갱신된 영원한 언약은 어떻게 되는가?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비롯한 포로기 선지자들은 이러한 신학적인 질문들을 가슴에 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전히 이방 땅에서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을 선포해야만 하였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그것은 포로기 이스라엘 공동체와 그 중심에 있던 포로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새롭게 묘사하고 서술하는 본문 공동체로서 기능하였기 때문이다. 월터 브루그만은 포로기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언어 활동의 은유를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교회 신앙 공동체의 언어 활동으로 적용한다.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두 세계의 연결고리는 ‘본문 공동체를 통한 대안 세계의 창조’다.

‘본문 공동체’(the text community)란 특정한 공동체 집단이 혼란스런 세상에서 자신들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계승 발전하도록 언어적인 토대를 확보한 공동체를 말한다. 세상에 모든 공동체와 개인에게는 그 공동체와 개인의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계승 발전하도록 하는 언어 개념적인 자원이 담긴 텍스트를 가지고 있다. 기독교인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며,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 사회가 요청하고 투영하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성경이 제시하는 대안 세계를 바라보며 그 세계, 곧 하나님 나라의

28) 김용규, 『생각의 시대』, 103.

세계를 자신의 인식 구조 안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이해한 하나님 나라를 실천에 옮기는 삶을 살아간다.

월터 브루그만에 의하면, “현실은 텍스트에 의하여 그 대본이 작성된다. 즉 현실은 텍스트에 의하여 형성되고 그 권위를 부여받는다.”<sup>29)</sup> 바꾸어 말하자면, 저자가 기존 현실을 언어 텍스트의 형식에 담아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보다는 언어 개념적인 범주화 과정을 통하여 나름의 독특한 세계관에 따라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저자가 그렇게 이해한 대안적인 세계를 언어 텍스트에 담아 서술할 때, 독자들은 저자의 텍스트를 언어 개념적으로 자신의 인지 세계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자신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자기 바깥 현실에 내놓음으로써 새로운 대안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성경 텍스트는 그 내부의 모든 분열과 부조화에도 불구하고 현 세계에 대한 대안적인 대본을 제공한다. 그래서 성경 텍스트를 설교하는 것은 이 대안적인 텍스트를 통해서 바라보는 낯선 세계를 탐구하는 것이다.”<sup>30)</sup>

같은 맥락에서 폴 리피르에 의하면 기독교인이 성경을 읽고 설교자가 해석하는 성경 본문에 관한 설교 메시지를 경청하는 행위는, 성경 본문이 펼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인 하나님 나라는 기독교 교회의 예배와 실천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실현하는 창조 행위이다.<sup>31)</sup>

#### 4. 재상상을 통한 은유적 개념들의 통합

설교자의 설교 메시지가 교회 회중과 신자들에게 대안적인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 행위로 기능할 수 있는 배경에는 본문 공동체가 있다. 본문 공동체는 그들만의 독특한 텍스트 규범과 그 텍스트 규범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수용하고 활용하는 언어 관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언어 관습의 중심에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현상들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언어 자산들을 동원하여 이해하고 표현하는 개념적 범주화와 은유적 개념들의 통합이 자리하고 있다. ‘개념적 통합’(conceptual integration)이란 위기에 직면한 본문 공동체가 이전의 언어 자산들 중에서 익숙한 개념과 낯선 개념들을 창조적으로 통합하여 개념적 범주화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주변 세계를 넉넉히 감당하여 극복할만한 주변 세상으로 자신들의 인식 세계 안으로 끌어들이고 다시 그렇게 넉넉하게 감당할 세상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한다.<sup>32)</sup>

세계적인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에 의하면 이러한 개념적 통합 과정은 구약시대 바벨론 포로기의 위기 시대를 살았던 포로기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게서 풍부하게 발견된다고 한다. 월터 브루그만에 의하면, 성경 텍스트가 뉴노멀 시대의 신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적인 세상을 제시하는 방식은 은유를 통한 재상상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sup>33)</sup> 레이코프와 존슨에 의하면, “은유의 본질은 한 종류의 사물을 다른 종류의 사물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다.<sup>34)</sup> 레이코프와 존슨의 은유 이론에 비추어 본다면, 포로기 선지자들의 언어 활동은 예루살

29) Walter Brueggemann, “재상상으로서의 설교”, 『탈교회 시대의 설교』 (서울: CLC, 2018): 88.

30) 위의 책, 98.

31) Paul Ricoeur, “Biblical Hermeneutics,” *Semeia* 4(1975):31, 127.

32) 김용규, 『생각의 시대』, 113.

33) Walter Brueggemann, “재상상으로서의 설교”, 82-118.

34) George Lakoff and Mark Johnson, *Metaphors We Live By*, 노양진, 나익주 공역, 『삶으로서의 은유』 (서울: 박이정, 2006), 38-46.

렘 함락과 바벨론 포로기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와 고난을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재 해석하고 새롭게 서술하는 은유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 사건과 바벨론 포로기는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으로 범주화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 앞에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정위로부터 혼미, 그리고 다시 혼미로부터 재정위로 진행되는 개념적 통합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그 첫째 과정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계에 대한 정위로부터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한 끔찍한 고난에 관한 혼미로 진행된다. 그 다음 둘째 과정은 이전의 규범과 질서가 더 이상 정상으로 작동하지 않은 새로운 질서 속에서 새롭게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할 새로운 질서의 서술과 재상상, 그리고 이를 통한 재정위의 단계로 진행된다. 그리고 그 중간에 ‘상상력의 연결사’, ‘like as’(-같은, -처럼)가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① 정위에서 혼미로의 과정. 월터 브루그만은 포로기 선지자들이 첫째로 감당했던 언어적 인 과제는 현재 전개되고 있는 재앙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일이라고 한다. 이러한 묘사 방식은 정위에서 혼미로 진행된다. 정위(orientation)는 창세기 1장과 2장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태초에 피조계와 아담 그리고 하와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선언이다. 정위 단계에서 혼미(disorientation) 단계로의 진행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세상 피조물과 그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끔찍한 비극과 불행이 도래하였음을 있는 그대로 서술함으로 이루어진다.<sup>35)</sup>

성경에서 발견되는 가장 대표적인 혼미 단계로의 진행 사례는 시편의 탄식시와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관한 진술에서 발견된다. 시편의 탄식시와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 내러티브의 목적은 아담의 범죄로 이 세상에 들어온 죄악과 그 범죄로 파생된 끔찍한 고통을 올바르게 서술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자면 상실로 인해 발생한 고통을 생생한 이미지로 진술해야 하는데, 이는 상실을 바르게 표현하여 포로민들이 상실이라는 깊은 부정적 상황 속에서 상실을 올바르게 직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sup>36)</sup>

포로기에 선지자들은 바벨론 군대의 침공과 예루살렘 함락,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이주와 같은 전대미문의 충격적인 사태에 직면하여,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언어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이스라엘 공동체가 직면한 고통과 상실, 슬픔과 수치, 분노와 같은 격렬한 감정들을 솔직하고도 대담하게 표출하였다.

월터 브루그만에 의하면, 상실과 무력함과 연약함이 가득한 슬픔을 가장 풍부하고도 극단적으로 진술한 책은 예레미야애가다.<sup>37)</sup> 예레미야애가 1장은 상실의 도시 예루살렘은 완전히 버림을 받고 수치를 당하였으며 끔찍한 학대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주변에 아무런 후원자나 변호인을 찾아볼 수 없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비천한 처지에 놓였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으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애 5:20).

예레미야 애가를 포함한 포로기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의 문화적 상황과는 매우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날 COVID 19에 의한 뉴노멀 시대의 기독교 교회가 현재 상황을 올바르게 서술하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언어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런 이유로 COVID 19로 인한 뉴노멀의 시대에 기독교 교회의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뉴노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린다면 이 시대에 대한 ‘탄식의 행렬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35) Walter Brueggemann, 『(브루그만의) 시편사색』, 34.

36) Walter Brueggemann, “재진술하는 리듬: 포로민 중의 연설”, 63.

37) 위의 책, 63.

섭리를 기다려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sup>38)</sup> 그 탄식의 행렬 한가운데 서서, “코로나19는 현대의 끔찍한 소비주의를 끝내는 하나님의 방법이자 세계화 내러티브의 결말”임을 인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즉 인류 문명이 유사 천국처럼 이룩한 세계화의 문명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그 막다른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알리고 있다는 것이다.

② 상상력의 연결사. 월터 브루그만이 제안하는 ‘재상상 설교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상상력의 연결사(또는 계사)다. 개럿 그린(Garrett Green)에 의하면 ‘as’(-과 같은)의 연결사(또는 계사)가 명시적인 현실 세계 너머에 있는 은유적인 상상의 세계를 열어 보여주는 언어적인 도구로 기능한다고 한다.<sup>39)</sup> 월터 브루그만은 개럿 그린의 상상력의 연결사를 자신의 ‘재상상 설교신학’(re-imagination homiletics)으로 발전시켰다. 월터 브루그만에 의하면, 뉴 노멀 상황을 올바로 진술하려면 기존의 어떤 사건이나 사물은 은유적 관점의 ‘다른 어떤 것처럼’(- something like/as), 또는 ‘다른 어떤 것으로’(-as) 먼저 받아들여지고 해석되어야 올바로 진술될 수 있다고 한다.<sup>40)</sup>

예를 들자면 이방인의 침공으로 휘파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엄마가 자식을 결코 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절박한 이미지로 묘사한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사 49:15).

상상력의 연결사는 은유가 새로운 의미를 전달하고 창조하는 과정의 중심에 있다. 조지 레이크프에 의하면 은유는 화자(또는 저자)가 청자(또는 독자)에게 어떤 의미를 이해하도록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이다. 이 은유의 진행 과정은 대화 참가자가 서로 이해하고 공유하는 개념들의 근원 영역으로부터 대화 참가자가 의도하는 목표 영역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개념들의 근원 영역은 문자적이고 명시적인 단어나 개념들, 혹은 정보들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해는 밝은 낮을 주관한다. 또 달과 별들은 캄캄한 밤을 주관한다. 그런데 요셉 내러티브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도록 하심으로 “해가 밝은 낮을 주관한다”는 명시적이고 문자적인 개념을 은유화하고 의인화한다.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과 아버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자신의 보호를 받음으로 이전에 주어진 은유적인 개념들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구속 역사가 더욱 진전됨에 따라 나중에 다윗은 해와 같은 인격체(메시아)가 등장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따사로운 햇빛과 같은 공의로 통치할 날을 예언하였다(시 8편).

‘상상력의 연결사’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대표적인 성경 장르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parable)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cf., 막 4:26).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씨 뿌리는 사람이나 작은 겨자씨, 밭에 감추인 보화, 고기를 잡는 그물, 혼인 잔치 등등의 다양한 비유를 통하여 서술하였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성경 전편에 걸쳐서 ‘-과 같이’(as)라는 ‘연결사’를 통하여 서술되고 묘사된다.

③ 혼미에서 재정위로의 과정. 월터 브루그만의 재상상 설교신학의 둘째 과정은 혼미

38) Walter Brueggemann, 『다시 출추기 시작할 때까지』, (서울: IVP, 2020), 19. 51.

39) Garrett Green, *Imagining God: Theology and the Religious Imagination*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9), 73, 140. 상상력을 가능성의 시발점으로 이해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Paul Ricoeur, *The Philosophy of Paul Ricoeur*, Charles E. Reagan and David Stewart ed. (Boston: Beacon Press, 1978), 232-38.

40) Walter Brueggemann, “재상상으로서의 설교”, 100.

(disorientation)에서 상상력의 연결사를 통한 재정위(reorientation)의 단계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본래의 능력대로 선포되고, 상상력의 연결사의 도움으로 뉴노멀 시대를 새롭게 살아갈 원동력을 공급받으며 설교를 듣는 청중은 자신들 앞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가 활짝 열리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기의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의 제사 규칙 언어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기상 현상을 은유 이미지로 활용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이 언어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을 서술하였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like/as) 내 앞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사 55:10-11). 이 구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기로 인하여 혼미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비와 눈 하늘에서 내리는 기존의 기상현상을 은유로 사용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은 더 이상 모세오경의 획일적인 규범이나 예루살렘 성전, 또는 레위기의 제사 제도의 엄격한 준수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햇살과 비, 그리고 눈과 같은 매일의 기상 현상들처럼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을 서술하였다. 보이는 세상을 매개로 기존에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뉴 노멀의 하나님 나라 세계를 언어적으로 그리고 개념적으로 펼쳐 보이고 있는 것이다.

윌터 브루그만에 의하면 포로기의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기존의 모세오경을 바벨론 제국의 통치라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새로운 세상을 새롭게 상상하고 규정함으로써 바벨론 제국에 동화되어 사라지지 않고 그 속에서도 그들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며 계승,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이들의 독서행위는 기존의 세계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고유한 방식으로 살아내야 할 세상을 재서술하고(re-describe) 재상상하며(re-imagine), 재규정(re-characterize)하는 일종의 창조적인 상상의 행위였다.”<sup>41)</sup>

## V. 온라인 설교의 소통 전략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 통치가 서로 격돌하는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위치하였다. 그러한 전쟁터의 한복판에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로 부름 받은 포로기 선지자들은 재상상의 설교신학의 전략으로 자신들의 언어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으로 새롭게 등장한 뉴미디어 생태계는 현대인을 그 중심부에 놓고서 천국과 서로 경쟁관계를 형성한다. 온라인 설교를 준비하여 전하려는 목회자/설교자들은 CPND로 구성된 온라인 가상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서로 경쟁하고 있음을 잘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서로 격돌하는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볼 때,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이 조성되기 이전이나 이후에 영적 전쟁의 양상은 같다. 이전에도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와 이를 대적하는 사탄의 영향력이 득세하는 사탄 나라 사이의 대결이었다.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이 조성된 21세기 뉴노멀 시대에도, 영적 전쟁의 양상은 동일하게 두 나라 사이의 주도권 싸움이다. 다만 차이점 하나는 영적 전쟁이 진행되는 국경선이 이전보다 훨씬 더 넓어지고 길어졌다는 것이다. 기존의 영적 전쟁의 국경선이 온라인상의 가상현실 세계까지 확장된 셈이다.

41) Walter Brueggemann, “레토릭과 신앙공동체”, 『탈교회 시대의 설교』: 171.



온라인 설교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그 형식은 무엇일까? 온라인 설교 메시지의 목적은 기존 설교 사역과 동일하게 신자들을 삼위 하나님과 영적 연합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다(요 17:21-23).<sup>42)</sup> 현실적인 차원에서 볼 때 필자가 본고에서 염두에 두는 온라인 설교 메시지의 목적은 기존의 대면 예배 설교 메시지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오프라인 교회를 대체하거나 폐쇄하고 오직 가상현실 세계에 세워진 온라인 교회에 접속한 익명의 신자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메시지가 아니다.

온라인 설교 메시지의 대상은 기존 교회의 목회 활동과 신자들의 신앙 활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새신자로 오프라인 교회에 출석을 시작하여 새신자교육 훈련 과정과 입교, 세례의 과정을 거치고 교회에 등록교인으로 등록하여 다른 교인들과 오프라인상에서 신앙생활에 동참하는 신자들이다. 온라인 설교 메시지는 이들을 대상으로 매주일 11시에 지정된 강단에서 선포하는 오프라인상의 설교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거나 또는 녹화, 편집하여 온라인으로 송출하거나 또는 별도로 5분~15분 정도 짧게 제작, 편집하여 온라인을 통해서 배포되는 설교 메시지 동영상 자료를 의미한다.

21세기에 오프라인에서 실제 교회를 개척하거나 목회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예전보다 더욱 어려워졌다. 그렇다고 오프라인상의 지역 교회나 실제 오프라인으로 연락 가능한 신자가 한 명도 없이 온라인 사역으로만 목회사역을 진행하고 그 온라인 가상현실 세계에서 설교 메시지를 전하겠다면, 그 설교 메시지를 듣는 익명의 신자들과 성경이 말씀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말하자면 온라인 목회 사역은 오프라인 목회 사역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수단이다.

① 온라인 설교 메시지를 탑재할 플랫폼 구축하기. 설교 동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을 통해서 제공할 목적으로 교회 홈페이지를 구축하거나 Youtube 계정을 만든다. 이외에도 줌(zoom)이나 구글미트, canvas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② 설교 메시지를 듣는 신자들의 실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설교의 목표를 설정한다. 대부분 신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도래한 새로운 질서 앞에서 혼란스러운 입장이다. 따라서 온라인 설교 메시지를 준비하는 목회자/설교자들은 자기 백성들에게 평안과 행복을 바라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혼돈의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질서로 초청하고 계심을 깨닫도록 설교해야 한다. 옛사람의 소욕과 옛질서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사람의 열정과 하나님 나라의 새질서를 제시하고 신자들이 이를 수락하도록 복음을 설교한다. 뉴노멀 시대의 문자적인 의미는 이전의 질서가 더 이상 효과적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구속의 역사를 살펴보면, 매 순간 순간이 옛 질서에서 새질서로 나아가는 뉴노멀 시대의 연속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설교의 목적과 핵심 대지를 분명하게 정하고, 온전한 설교문을 작성한다.

④ ppt 프레젠테이션 준비하기. 온라인 설교 메시지를 준비할 때 중요한 요소는 기존의 설교문 내용을 시청각 이미지와 함께 전달하도록 해당 이미지를 마련하는 것이다. 구글 검색으로 설교문 메시지에 어울리는 이미지들을 검색하고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는 이미지들을 가져와서 텍스트를 입힌다. 2~3분 설교 메시지 분량에 1~2개 정도 이미지가 조합되도록 한다. 한 장의 ppt 이미지에 너무 많은 정보를 담지 않도록 주의한다. 짧은 동영상 자료는 확장자명에 gif를 입력하여 검색하면 좀 더 액티브한 동영상 자료를 얻을 수 있다.

⑤ 방송팀이 온라인 설교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ppt 페이지 넘김을 지원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설교자가 설교 도중에 적당한 시점에서 스스로 ppt 페이지를 넘겨야 한다.

42) 정창균, 이승진, 권 호, 공저, 『뉴노멀시대의 교회와 목회』, 222-229.

이를 위해서 미리 텍스트 설교문을 인쇄할 때 오른쪽 여백(기준 30mm)을 최대한 줄이고 왼쪽 제본 여백(25mm 정도)을 확보하여 출력한다. ppt 이미지도 A4 1장에 9개의 이미지를 함께 담아 출력한다. 해당 이미지를 오려서 해당 설교문 메시지 왼쪽 여백에 붙인다.

⑥ 온라인 설교 메시지를 제작할 때, 강단 아래에 최소한 1~2명 정도의 신자나 제작 지원 팀이 앉아서 설교 메시지에 실시간으로 반응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 VI. 나가는 말

유발 하라리는 그의 저서 『호모 데우스』에서 21세기 뉴노멀 시대에 가장 많은 신도를 거느리는 종교로서 ‘데이터교’(Dataism)을 제시하였다.<sup>43)</sup> 데이터교는 20세기 후반에 미국 실리콘벨리에서 태어난 신흥종교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이미 수억명의 신도를 확보하였고, 이미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절반 이상의 삶과 생활, 그 마음을 사로잡았다. 스마트폰을 매일 사용하고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현대인들의 숫자가 이미 30억을 넘은 시점에서 데이터교의 영향력은 새삼스러운 이야기도 아니다. 이렇게 전례 없는 뉴노멀의 시대에 적실한 기독교 설교 사역의 신학적인 토대와 그 이정표는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연구자는 리처드 오스머(Richard Osmer)의 '실천신학 연구방법론'에 따라서 먼저 21세기에 새롭게 형성된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과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설교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뉴미디어 생태계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복음전도와 설교 사역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독교 설교의 신학적인 토대로 월터 브루그만의 '재상상 설교신학'(re-imagination homiletics)을 고찰하였다. 이는 '상상력의 연결사'를 활용하여 정위와 혼미, 그리고 재정위를 통한 새로운 세상의 묘사와 창조 작업으로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실천 가능한 전략을 모색하는 단계에서는 온라인 설교의 준비와 전달에 관한 실제적인 방법들을 모색하였다.

## [참고 문헌]

- 김문조. 『융합사회의 소통양식 변화와 사회진화 방향 연구』.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 이승진. “뉴노멀 시대의 강단목회”. 『뉴노멀시대의 교회와 목회』. 수원: 설교자하우스, 2021.
- 정창균, 이승진, 권 호. 공저. 『뉴노멀시대의 교회와 목회』. 수원: 설교자하우스, 2020.
- 조성돈. Post Corona19 한국교회의 갈 방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의 생존」. 『2020 실천신학대학원, 지역목회자를 위한 찾아가는 신학세미나 자료집』.
- 최창현. “C-P-N-D 생태계와 ICC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3. 2014, 7-16.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 조사. 2020.10.14. 「전국 개신교인 만 19세 이상 1천명, 온라인 조사. 202007.21-07.29」
- Brueggemann, Walter. “Preaching as re-imagination”. *Theology Today* 52. 1995.
- Green, Garrett. *Imagining God: Theology and the Religious Imagination*.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9.

43) Yuval Harari, *Homo Deus*, 김명주 역, 『호모 데우스』 (서울: 김영사, 2017), 503-544.

- Innis, Harold. *Empire and Communications*. Toronto: Dundurn Press, 2007.
- Ricoeur, Paul. *The Philosophy of Paul Ricoeur: An Anthology of His Work*. Ed by Reagan, Charles E. Reagan and David Stewart. Boston: Beacon Press, 1978.
- \_\_\_\_\_. "Biblical Hermeneutics," *Semeia* 4. 1975.
- Smith, Daniel L. *The Religion of the Landless: The Social Context of the Babylonian Exile*. Bloomington, Ind.: Meyerstone Books, 1989.
- Baudrillard, Jean. *Simulacres et Simulation*, 하태환 역. 『시뮬라시옹』. 서울: 민음사, 2001.
- Brueggemann, Walter. *Cadences of Home: Preaching Among Exiles*. 이승진 역. 『탈교회 시대의 설교』. 서울: CLC, 2018.
- \_\_\_\_\_. *The Message of the Psalms: A Theological Commentary*. 조호진 역. 『(브루그만의) 시편사색』. 서울: 솔로몬, 2012.
- \_\_\_\_\_. 신지철 역.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서울: IVP, 2020.
- Fang, I. *A History of Mass Communication: Six Information Revolutions*. 심길중 역.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역사: 6단계 정보혁명』.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2.
- Goldsworthy, Graeme. *According to Plan*. 김영철 역.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 서울: 성서유니온, 2007.
- Harari, Yuval. *Homo Deus*. 김명주 역. 『호모 데우스』. 서울: 김영사, 2017.
- Lakoff, George and Mark Johnson. *Metaphors We Live By*. 노양진, 나익주 공역. 『삶으로서의 은유』. 서울: 박이정, 2006.
- \_\_\_\_\_. *Philosophy in the Flesh: The Embodied Mind and Its Challenge to Western Thought*. 임지룡, 윤희수, 노양진, 나익주 공역. 『몸의 철학』. 서울: 박이정, 2002.
- McLuhan, Marshall.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김성기, 이한우 역. 『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확장』. 서울: 민음사, 2002.
- Osmer, Richard. *Practical Theology: An Introduction*. 김현애, 김정형 공역. 『실천신학의 네 가지 중심과제』. 서울: WPA, 2012.
- Postman, Neil. *Technopoly: The Surrender of Culture to Technopoly*. 김 균 역. 『테크노폴리』. 서울: 궁리, 2005.
- Wells, David. *No Place for Truth*. 김재영 역. 『신학실종』.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6.

▶ 질의응답(좌장2):

**나형석 박사**

(협성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전 한국예배학회 회장)



